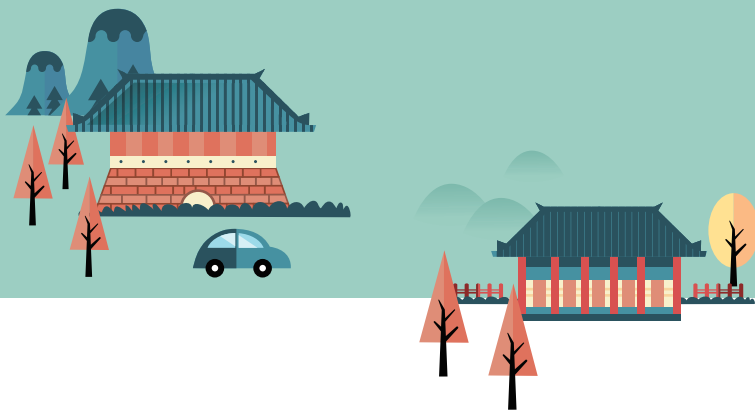


2021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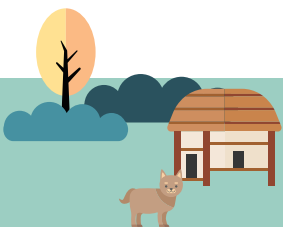
개선
사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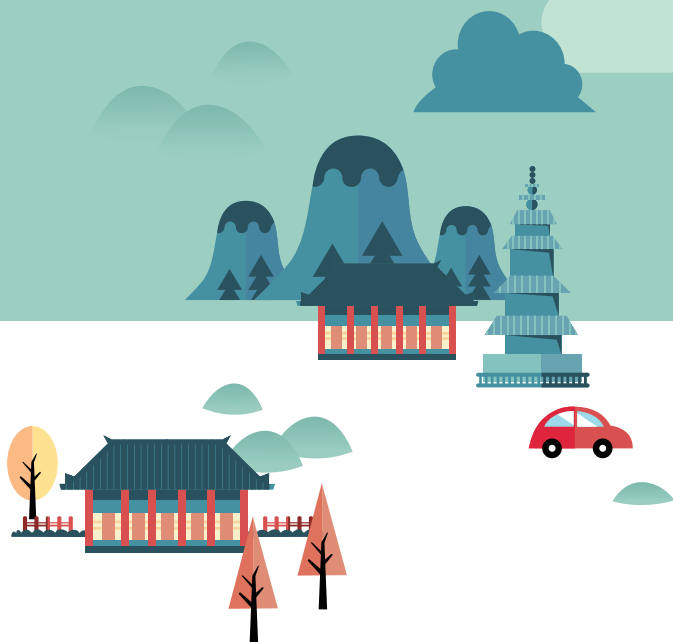


목차

I. 2021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개선사례

1. 건축문화재	09
관아건축 / 향교·서원 / 고택 / 누·정 / 사묘재실 / 주거시설 / 비석	
2. 사적	37
관방유적 / 선사유적·발굴터 / 유허지 / 묘역 / 탑	
3. 불교문화재	59
불상 / 탑·부도 / 불화 / 불교 건축 / 절터 / 기타	
4. 자연문화재·무형문화재	89
식물류 / 화석지질류 / 명승류 / 자연 생태 / 무형문화재	
5. 근대문화재	109
근대건축 / 근대시설 / 항일운동터	
6. 동산문화재	127





II. 2021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1.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목적

- 1) 문화재와 문화재 안내판의 개념 134
- 2) 문화재 안내판을 정비하는 이유 136
- 3) 2021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 대상 136

2.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추진 과정 137

3. 문화재 안내판 문안 작성 방법 140

4. 문화재 안내판 제작 방법과 고려사항 155

III. 특별기고 167

문화재 안내판의 존재 의미 (이광표, 서원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IV. 찾아보기 175





보광사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大雄殿

普獨一功衆生心

佛智廣大同虛堂

上白雲一輪紅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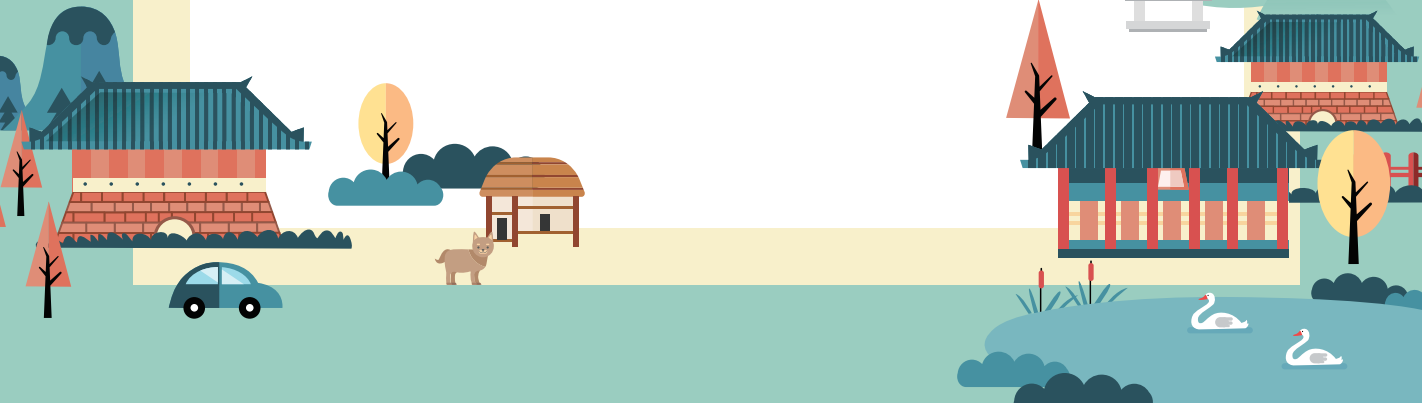
主卷聖法塔前頂額

一念忘機太極無站

I .

2021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개선사례

1. 건축문화재
2. 사적
3. 불교문화재
4. 자연문화재·무형문화재
5. 근대문화재
6. 동산문화재



2021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개선사례



건축문화재

관아건축 / 향교·서원 / 고택 /
누·정 / 사묘재실 / 주거시설 / 비석



전주 풍패지관

종 목 보물
지 역 전라북도 전주시

기존 문안

전주 풍패지관

全州 豊沛之館

보물 ① 제583호

②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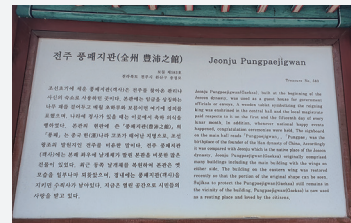
조선초기에 세운 객사는 전주를 찾아온 관리나 사신의 숙소로 사용하던 곳이다.

③ 본관에는 임금을 상징하는 나무 패를 걸어두고 매월 초하루와 보름이면 여기에 경의를 표했으며,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는 이곳에서 축하 의식을 행하였다. 본관의 현판에 쓴 「풍패지관(豊沛之館)」의 「풍패」는 중국 한(漢)나라 고조가 태어난 지명으로, 조선왕조의 발원지인 전주를 비유한 말이다. 전주 객사에는 본래 좌우에

④ 날개채가 딸린 본관을 비롯한 많은 건물이 있었다. 최근 동쪽 날개채를 복원하여 본관은 옛 모습을 일부나마 되찾았으며, 경내에는 객사를 지키던

⑤ 수직사가 남아있다.

⑥ 지금은 열린 공간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① 지정번호 불필요

② 소재지 불필요

③ 문화재를 ‘본관’으로 지칭하여 사용하는 것이 어색하며, 문장이 장황함.

④~⑤ 단어 설명 필요

⑥ 주관적인 의견 불필요

개선 문안

전주 풍패지관

全州 豊沛之館

보물

전주 풍패지관은 전주에 온 관리나 사신이 머물던 전주 객사(客舍)이다. 조선 시대에는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대궐을 향해 예를 올렸으며,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는 축하 의식을 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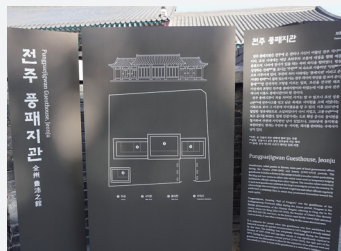
① 왕을 상징하는 전패(殿牌)를 모시는 ‘주관(主館)’과 숙소로 사용하던 ‘익헌(翼軒)*’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관의 처마 아래에는 ‘풍패지관’이라고 쓴 거대한 편액**이 걸려 있는데 이는 전주 객사의 위상을 잘 보여 준다. 풍패***란 건국자의 고향을 이르는 말로,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본향인 전주를 풍패지향이라 하였는데 이를 본따 전주 객사의 이름도 풍패지관이라 한 것이다.

② 전주 풍패지관이 처음 지어진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조선 성종 4년(1473)에 전주사고를 짓고 남은 목재로 서익헌을 고쳐 지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그 이전에 지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후 1597년에 발발한 정유재란으로 소실되었다가 다시 지었고, 고종 9년(1872)에 보수 공사를 하였다. 일제 강점기에는 도로 확장 공사로 동익헌을 철거하여 주관과 서익헌만 남아 있었으나, 1999년에 동익헌을 복원하였다. 현재는 주관과 동·서익헌, 객사를 관리하는 수직사가 남아 있다.

③* 익헌 : 본 건물의 좌우 양쪽에 딸려 있는 건물

** 편액 : 건물이나 문루 중앙 윗부분에 거는 액자

*** 풍패 : 중국 한나라 고조가 태어난 곳의 지명



① 구성하고 있는 건물들 소개
한두 단계적으로 문화재 명칭의
유래와 의미 설명

② 문화재의 연혁을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설명

③ 각주를 사용하여 전문용어를
풀이함



Q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일은 무엇인가요?

A : 안내판 위치를 결정하는 일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문화재 안내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내판의 최종 설치 위치에 따라 주목성, 편리함 등의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치를 선정하는 일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전문가에게 자문하고, 문화재 관리자와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가장 이상적인 위치를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김해객사 후원지

종 목 경상남도 기념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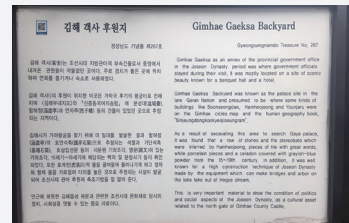
지 역 경상남도 김해시

기존 문안

김해 객사 후원지

金海客舍 後苑址

경상남도 기념물 1 제267호



김해 객사(客舍)는 조선시대 지방관아의 부속건물로서 중앙에서 내려온 관원들이 머물렀던 곳이다. 주로 경치가 좋은 곳에 위치하여 연회를 즐기거나 숙소로 사용하였다.

2 김해 객사의 후원이 위치한 이곳은 가락국 후기의 왕궁터로 전해지며 <김해부내지도>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분성대(盆城臺), 함허정(涵虛亭)과 연자루(然子櫺) 등의 건물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지역이다.

김해시가 가야왕궁을 찾기 위해 이 일대를 발굴한 결과 함허정(涵虛亭)의 3 호안석축(護岸石築)으로 추정되는

4 석렬과 5 기단석축(基壇石築), 호상집선문 등이 시문된 기와조각, 명문(銘文)이 있는 기와조각, 15세기~19세기에 해당되는 백자 및 분청사기 등이 확인되었다. 또한 호계천(虎溪川)의 물을 끌어들여 돌아가게 하고 정자와 함께 물을 가로질러 다리를 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시설이 발굴되어 조선시대 관아 후원의 축조기법을 잘 알려 준다.

인근에 복원한 김해읍성 복문과 관련한 조선시대 문화재로 6 당시의 정치·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 자료이다.

1 지정번호 불필요

2 근거 부족

3~5 어려운 단어 사용

6 어느 부분이 정치와 사회상을 보여주는지 설명이 부족함

개선 문안

김해객사 후원지

金海客舍 後苑址

경상남도 기념물

① 김해객사 후원지는 왕명을 받아 김해에 내려온 관리를 대접하고 머물게 한 김해객사의 뒤뜰에 자리했던 정원으로, 조선 시대 관아의 후원 양식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② 1820년경에 제작된 「김해부내지도」에는 객사 후원지 내에 연자루와 함허정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③ 연자루는 진주 축석루, 밀양 영남루와 함께 영남 3대 누각으로 손꼽히던 곳으로, 고려 시대부터 정몽주와 맹사성을 비롯한 여러 인물이 찾아와 시를 읊은 곳이다. 일제 강점기인 1932년에 철거되어 건물 일부가 매각되어 서울로 이전되었다고 한다.

④ 함허정은 연산군 3년(1497)에 김해 부사 최윤신이 처음 지었다. 이후 몇 차례 수리를 해 오며 19세기까지 남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007년에 발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선 시대에 함허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현재 연화사 대웅전이 자리한 연못 주변에서 조선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석축*이 발견되었다. 석축 주변에서는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분청사기와 글자 기와 등이 출토되었다.

조선 후기 김해의 아름다운 경치를 ‘금릉팔경’**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함허정의 이슬 맺힌 연꽃’과 ‘연자루에서 멀리 펼쳐 보이는 낙동강 하구의 경치’가 포함되어 있다.

⑤* 석축 : 돌로 쌓아 만든 시설물

**금릉팔경:

타고청원(打鼓晴月): 분산성 타고봉의 맑은 달
남포어화(南浦漁火): 남포의 고기 잡는 횃불
삼차풍범(三叉風帆): 삼차강의 돛단배
죽도연운(竹島煙雲): 죽도의 저녁 연기

연루원조(燕樓遠眺): 연자루에서 펼쳐 보이는 낙동강 하구의 원경
함정로우(涵亭露藕): 함허정의 이슬 맺힌 연꽃
구지석람(龜旨夕嵐): 구지봉의 저녁 아지랑이
호계낙조(虎溪落照): 호계천의 저녁 노을



1 문화재의 개념과 문화재적

가치 설명

2 역사적 근거 제시로 문안의

신뢰도 상승

3 문화재의 당시 사용 모습과

연혁 설명

4 발굴 조사 결과 내용을 통해

함허정의 존재 확인

5 전문용어와 금릉팔경을 주석으로

사용해 설명



전체적으로 역사적 사실과 발굴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문안의 신빙성을

높이려고 노력함

Q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A : 안내판 정비사업 관련 매뉴얼 및 지침 등을 통하여 기본적인 방향성을 확보하고, 점검표를 통한 지속적인 집행 과정 확인을 통하여 현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고 타 시군과 비교를 통해 업무 추진에 자극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운계서원

종 목 경기도 문화재자료

지 역 경기도 양평군

기존 문안

운계서원

雲溪書院

경기도 문화재자료 ❶ 제18호

조선 중기 명종 때의 학자인 조옥(趙昱, 1498~1557)을 기리기 위하여 그의 제자들이 효종 5년(1654)에 건립한 서원이다.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❷ **헐어서 치워버렸다가** 현재의 모습으로 중건된 것으로 추측된다. 조옥은 조광조의 제자로, 중종 11년(1516) 생원·진사 양 과에 급제하여

❸ **내섬시주부(內贍寺主簿)**, 장수현감(長水縣監) 등을 역임 하였으나 벼슬을 버리고 용문산에 은거하면서 많은 후학을 가르쳐 사람들은 그를 용문 선생(龍門先生)이라 불렀다. 시문(詩文)과 서화(書畫)에 매우 능했으며, 서경덕(徐敬德), 이황(李滉) 등 당대의 뛰어난 학자들과 교유가 깊었다. 세상을 떠난 후 이조참의로 ❹ **추증(追贈)**되었으며, 시호는 문강공(文康公)이다. 건물은 재실 한 채와 사랑만 남아 있다. 현재 이곳에는 조옥 외에 네 분의 ❺ **신위(神位)**를 모시고 있으며 매년 제사를 올린다.



❶ 지정번호 불필요

❷ 다소 과격하게 느껴지는 문체
사용·동의어 반복 사용

❸~❺ 어려운 단어 사용 및 단어
설명 필요

개선 문안

운계서원

雲溪書院

경기도 문화재자료

① 서원은 본받을 만한 유학자에게 제사를 지내고 학문을 가르치는 사설 교육기관이다. 운계 서원은 조옥(趙昱) 등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그의 제자들이 건립하였다.

② 조옥이 쓴 글을 모은 책용문집에 따르면 운계 서원은 조선 효종 6년(1655)에 세워졌다.③ 그 후 조선 숙종이 ‘용문 서원’이라 이름 지었으나, 헌종이 양평 용문사에 왔다가 용문 서원이 사찰 이름과 같다고 하여 ‘운계 서원’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한다.

운계 서원은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의 서원 폐지 명령(서원철폐령)으로 없어졌다가 이후 재실과 사당이 복원되었다.④ 재실은 제사를 준비하는 공간이며, 사당은 조옥 등의 이름이 적힌 위패*를 모셔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⑤ 조옥은 조선 중종 14년(1519)에 스승 조광조 등이 제거되는 사건(기묘사화)에 연루되었으나 당시 나이가 어려 화를 입지 않았다. 후에 세상을 피해 용문산에 살며 학문을 닦았고, 사람들은 조옥을 ‘용문 선생’이라 불렀다.

운계 서원이 있는 용문면 덕촌리에는 조옥과 관련한 문화유산이 전해진다. 조옥이 제자들과 함께 학문을 강론하던 정자인 세심정(洗心亭), 조옥의 묘 등이 있다. 한편 덕촌리는 조옥이 벼슬자리에서 물러나 살았던 동네라 하여 퇴촌이라고도 불린다.

⑥* 익헌 : 본 건물의 좌우 양쪽에 달려 있는 건물



① 서원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② 건립시기를 역사적 기록을 근거로 하여 설명

③ 문화재 명칭 유래 설명

④ 구성하고 있는 건물의 용도 설명

⑤ 문화재와 관련된 인물 소개

⑥ 각주를 사용하여 전문용어를 풀이함



김기서 강학당

종 목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지 역 전라북도 고창군

기존 문안

김기서 강학당

金麒瑞 講學堂

❶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상평리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❷ 제100호

이 강학당은 김기서가 후진양성의 뜻을 펼치기 위해 조선 명종 3년(1548)에 세운 곳이다. 김기서는 학문과 효를 겸비한 선비로 성종 10년(1479) 호동리에서 출생하였으며, 중종 3년(1508)에는 광릉참봉을 지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종 14년(1519)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화를 입은 후로는, 세속을 등지기로 마음을 먹고 고창으로 내려와, 전불사(典佛寺)라는 절이 있던 이 곳에 강학당을 짓고 오로지 후진 양성에만 전념하였다. 그는 특히 조광조의 학문에 심취하였다고 한다.

김기서 강학당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상평리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00호

金麒瑞 講學堂

Gim Gi-seo Ganghakdang
Jondok-do T'ongil Cultural Property No. 100
Sangpyung-mi, Gokseom-gun, Jeollabuk-do

이 강학당은 김기서가 후진양성의 뜻을 펼치기 위해 조선 명종 3년(1548)에 세운 곳이다. 김기서는 학문과 효를 겸비한 선비로 성종 10년(1479) 호동리에서 출생하였으며, 중종 3년(1508)에는 광릉참봉을 지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종 14년(1519)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화를 입은 후로는, 세속을 등지기로 마음을 먹고 고창으로 내려와, 전불사(典佛寺)라는 절이 있던 이 곳에 강학당을 짓고 오로지 후진 양성에만 전념하였다. 그는 특히 조광조의 학문에 심취하였다고 한다.

This is where Gim Gi-seo taught his junior generation. Gim Gi-seo was born at Hwang-mi in 1479 and was famous for his learning and filial devotion. It was built in 1548. He served a government post, Gwangseungcham-bong, in 1508. However, after the Gimoseonwae the purge of Confucian literati in 1519, he retired his government position, built this teaching room at the former site of Jeonbul Temple and devoted his life to instructing the younger generation. He is said to have especially been interested with Jo Kwangjo's learning.

❶ 소재지 불필요

❷ 지정번호 불필요



문안이 짧고 문화재 설명보다
문화재와 관련된 인물 설명이
주를 이룸

Q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일은 무엇인가요?

A : 안내판이라는 특성상 한정된 글자 수 안에 내용을 담아야 하므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민자문단 그리고 해당 문화재 관계자 분들과 상의하여 꼭 넣었으면 하는 말, 다르게 표현했으면 하는 문구 등을 정해 나가며, 100점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80점을 목표로 문안의 양과 질을 조절해 나갔습니다. 해당 문화재에 대해 관람객이 많은 정보를 얻어가면 하는 마음이 컸지만, 독자의 기억에 남는 것은 2~3가지의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을 줄이고 몇가지 내용만을 핵심적으로 넣었습니다.



개선 문안

김기서 강학당

金麒瑞 講學堂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① '강학당'은 학문이나 교리를 가르치던 사학의 교육 시설이다.

② 김기서 강학당은 조선 명종 때인 1548년에 김기서가 '전불사'라는 절 터에다 세운 강학당이다.

③ 이곳에는 제사를 지내는 노산사, 유학을 가르치던 강학당 등이 있다. 강학당은 앞면 5칸의 단층 팔작지붕으로, 조선 초기의 소박하고도 중후한 건축 양식을 보인다. 강학당의 상량문*은 직접 볼 수 있도록 옆면에도 써 놓았는데, 이는 당시 여느 건축물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이다.

④ 고창 호동 마을에서 태어난 김기서는 조광조의 제자로, 학문이 뛰어나고 효성이 지극하였는데, 효행이 알려지면서 조선 중종 때인 1508년에 광릉 참봉**에 제수 되기도 하였다. 당대의 대학자 양팽손의 매형이기도 한 김기서는 기묘사화***로 조광조가 화를 입자 고창으로 내려와 은거하면서 강학당을 세웠다.

⑤* 상량문 : 집을 새로 짓거나 고친 내력이나 까닭과 공여한 날짜 및 시간 등을 적은 글

** 광릉 참봉 : 조선 세조의 무덤 광릉을 관리하는 관리

*** 기묘사화 : 조선 중종 때인 1519년에 일어난 사화로 남궁, 심정, 홍경주 등의 훈구파가 성리학에 바탕을 둔 이상 정치를 주장하던 조광조, 김정 등의 신진파를 죽이거나 귀양을 보낸 사건



① 강학당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② 문화재 건립 시기와 지은 인물 소개

③ 해당 문화재만의 구조적 특징 설명

④ 문화재와 관련된 인물 소개

⑤ 각주를 사용하여 전문용어를 풀이함



삼매당

종 목 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지 역 대전광역시 동구

기존 문안

삼매당

三梅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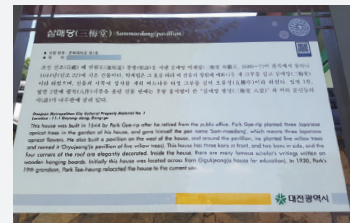
문화재자료 ❶ 제1호

❷ 위치: 동구 가양동 11-1

조선 선조(宣祖) 때 연원도(連原道) 찰방(察訪)을 지낸 삼매당 박계립(三梅堂 朴繼立, 1600~?)이 관직에서 물러나 1644년(인조 22)에 지은 건물이다.

박계립은 그 호를 따라 이 건물의 정원에 매화나무 세 그루를 심고 삼매당(三梅堂)이라 하였으며, 건물의 서쪽에 정자를 세워 버드나무 다섯 그루를 심어 오류정(五柳亭)이라 하였다.

❸ 앞면 3칸, 옆면 2칸에 팔작(八作)지붕을 올린 건물 안에는 우암 송시열이 쓴 『삼매당 팔경(三梅堂八景)』과 여러 문인들의 시(詩)가 나무판에 걸려 있다.



❶ 지정번호 불필요

❷ 소재지 불필요

❸ 문화재에 관한 일화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아 불필요한 문장으로 느껴짐



문화재에 대한 가치나 인물 등 전체적인 설명 부족

Q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일은 무엇인가요?

A: 어려움이 있다면 역시나 사실관계 확인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일하는 곳에 계신 학예사들과 상의도 하고, 대학교수, 그리고 민간 향토 전문가 등과 계속 이메일, 전화로 문의하고 근거자료를 요청드렸어요. 어떤 경우에는 동일 문화재에 대해서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달라서 난감하기도 했는데, 그럴 때는 그냥 어떤 문제가 없는 선에서 과감하게 내용을 빼버렸습니다.



개선 문안

삼매당

三梅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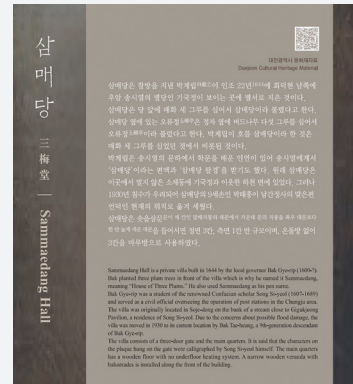
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① 삼매당은 찰방을 지낸 박계립(朴繼立)이 인조 22년(1644)에 회덕현 남쪽에 우암 송시열의 별당인 기국정이 보이는 곳에 별서로 지은 것이다.

② 삼매당은 당 앞에 매화 세 그루를 심어서 삼매당이라 불렀다고 한다. 삼매당 옆에 있는 오류정(五柳亭)은 정자 옆에 버드나무 다섯 그루를 심어서 오류정(五柳亭)이라 불렀다고 한다. 박계립이 호를 삼매당이라 한 것은 매화 세 그루를 심었던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③ 박계립은 송시열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운 인연이 있어 송시열에게서 ‘삼매당’이라는 편액과 ‘삼매당 팔경’을 받기도 했다. 원래 삼매당은 이곳에서 멀지 않은 소재동에 기국정과 이웃한 하천 변에 있었다. 그러나 1930년 침수가 우려되어 삼매당의 9세손인 ④ 박태흥이 남간정사의 맞은편 언덕인 현재의 위치로 옮겨 세웠다.

⑤ 삼매당은 솟을삼문(솟을三門: 문이 세 칸인 맞배지붕의 대문에서 가운데 문의 지붕을 좌우 대문보다 한 단 높게 세운 대문)을 들어서면 정면 3칸, 측면 1칸 반 규모이며, 온돌방 없이 3칸을 마루방으로 사용하였다.



① 문화재 건립배경과 시기, 인물을 간단하게 설명

② 문화재 명칭의 의미와 인물과의 관계 설명

③ 인물과 관련된 유명한 인물과의 연관성을 설명하며 흥미 유발

④ 문화재 이전 내력 안내

⑤ 문화재 구조를 쉽게 풀어 설명



속초매곡오윤환 선생생가

종 목 강원도 문화재자료

지 역 강원도 속초시

기존 문안

속초 매곡오윤환선생 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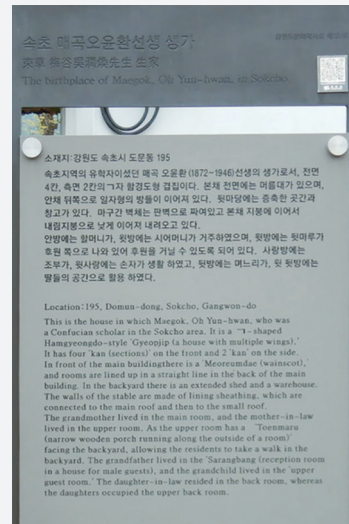
束草 梅谷吳潤煥先生 生家

강원도 문화재자료 ① 제137호

② 소재지: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 195

속초지역의 유학자이셨던 매곡 오윤환(1872~1946) 선생의 생가로서, 전면 4칸, 측면 2칸의 ㄱ자 함경도형 겹집이다. 본채 전면에는 ③ 머슴대가 있으며, 안채 뒤쪽으로 일자형의 방들이 이어져 있다. 뒷마당에는 증축한 공간과 창고가 있다. 마구간 벽체는 판벽으로 짜여 있고 본채 지붕에 이어서 ④ 내림지붕으로 낮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⑤ 안방에는 할머니가, 뒷방에는 시어머니가 거주하였으며, 뒷방에는 뒷마루가 후원 쪽으로 나와 있어 후원을 거닐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사랑방에는 조부가, 뒷사랑에는 손자가 생활하였고 뒷방에는 며느리가, 뒷 뒷방에는 딸들의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① 지정번호 불필요

② 소재지 불필요

③~④ 단어 설명 필요

⑤ 가족 구성원이 해당 문화재의 어떠한 공간을 사용했는지는 불필요한 정보임



문안이 짧고 문화재에 대한

가치나 인물 등 전체적인 설명

부족

개선 문안

속초매곡오윤환선생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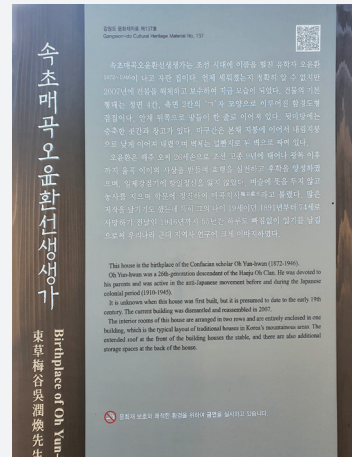
東草 梅谷吳潤煥先生 生家

강원도 문화재자료

속초매곡오윤환선생생가는 조선 시대에 이름을 떨친 유학자 오윤환(1872~1946)이 나고 자란 집이다.

① 언제 세워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2007년에 건물을 해체하고 보수하여 지금 모습이 되었다. 건물의 기본 형태는 정면 4칸, 측면 2칸의 ‘ㄱ’자 모양으로 이루어진 함경도형 겹집이다. 안채 뒤쪽으로 방들이 한 줄로 이어져 있다. 뒷마당에는 증축한 공간과 창고가 있다. 마구간은 본채 지붕에 이어서 내림지붕으로 낮게 이어져 내렸으며 벽체는 널빤지로 된 벽으로 짜여 있다.

② 오윤환은 해주 오씨 26세손으로 조선 고종 9년에 태어나 광복 이후까지 율곡 이이의 사상을 받들며 효행을 실천하고 후학을 양성하였으며, 일제강점기에 항일정신을 잃지 않았다.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농사를 지으며 학문에 정진하여 매곡 처사(梅谷處士)라고 불렸다. 많은 저작을 남기기도 했는데 특히 그의 나이 19세이던 1891년부터 74세로 사망하기 전날인 1946년까지 55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남김으로써 우리나라 근대 지역사 연구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① 문화재의 구조에 대한 설명

② 문화재와 관련된 인물 설명과 업적 설명



김정희 고가

종 목 전라북도 민속문화재

지 역 전라북도 고창군

기존 문안

김정희 고가

金正會 古家

전라북도 민속자료 ① 제29호

②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도산리

③ 조선시대 양반 가옥의 전형적 형태인 이집은 김정희 (1903~1970)가 고조때부터 살아 온 집이다. 조선 숙종 8년 (1682)에 지었다고 하며, 안채, 사랑채, 행랑채, 문간채, 사당과 두동의 곡간채로 이루어졌다. ④ 호를 보정(普亭)이라 한 김정희는 전라남도 장성의 유학자인 기우만(奇宇萬)에게 한학을 배우고, 우리나라 근대 고등교육기관의 하나인 경학원 즉, 성균관대학교의 전신인 명륜 전문학원에서 경학을 가르친 학자이자 해강 김규진(海岡 金圭鎭)에게서 서화를 배운 서예가였다. 그는 특히 난과 대나무를 잘 그렸다.



① 지정번호 불필요

② 소재지 불필요

③ 조선시대 양반 가옥의 전형
묘사가 누락됨

④ 문장이 장황하고.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아 읽기가 어려움



문안이 짧고 문화재에 대한
가치와 전체적인 설명 부족

Q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의 핵심이 독자가 이해하기 쉽고 재밌게 읽는 것이기 때문에, 안내판에 넣고자 하는 내용을 한정적으로 추려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문안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과제일 수는 있지만, 문화재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기 쉽고 기억에 남도록 표현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노력으로 어느 정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내판 크기와 위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내판은 별로 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되도록 눈에 안 띄는 무광 회색으로 문화재를 가리지 않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개선 문안

김정희 고가

金正會 古家

전라북도 민속문화재

김정희 고가는 유학자이며 서예가인 보정 김정희(普亭 金正會, 1903~1970)가 살았던 집이다.

① 김정희는 광주의 유학자 후석 오준선에게서 배우고 경학원(經學院: 1911년 개칭된 성균관 이름) 부설의 명륜전문학원을 졸업했으며, 나중에 경학원 강사로도 활동했다. 시문에 능한 그는 서화가로 이름 높은 해강 김규진에게 배워 사군자에도 능하였고, 특히 그는 풍죽(風竹: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을 잘 그리기로 유명하였다.

원래 이 집은 예조 참판에 추증된 정택신의 후손이 살던 집이었는데 김정희의 증조 김영철이 구입하여 5대째 전해왔다고 한다.

② 조선 후기 전형적인 상류층 집으로 사당, 안채, 사랑채, 행랑채, 좌우 2채의 곳간, 대문채 등 7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안채는 앞면 7칸 규모로 일반적인 一자집과 같으나, 부엌 뒤쪽에 2칸의 방을 덧붙여 뒷마당에서 보면 ㄱ자집의 형태를 하고 있다. 안채의 지붕은 옆에서 보면 八자 형태인데, 독특하게 용마루 밑에 처마 모양을 덧붙인 이중 용마루 형태이다. 사당은 앞면 3칸, 옆면 1칸 반의 맞배지붕 건물로 단을 높게 쌓아 지었다.

김정희 고가
金正會 古家

Kim Jeong-hoe's House

전라북도 민속문화재

Jeollabuk-do Folklore Cultural Heritage

김정희 고가는 유학자이며 서예가인 보정 김정희(普亭 金正會, 1903~1970)가 살았던 집이다. 김정희는 광주의 유학자 후석 오준선에게서 배우고 경학원(經學院: 1911년 개칭된 성균관 이름) 부설의 명륜전문학원을 졸업했으며, 나중에 경학원 강사로도 활동했다. 시문에 능한 그는 서화가로 이름 높은 해강 김규진에게 배워 사군자에도 능하였고, 특히 그는 풍죽(風竹: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을 잘 그리기로 유명하였다. 원래 이 집은 예조 참판에 추증된 정택신의 후손이 살던 집이었는데 김정희의 증조 김영철이 구입하여 5대째 전해왔다고 한다.

조선 후기 전형적인 상류층 집으로 사당, 안채, 사랑채, 행랑채, 좌우 2채의 곳간(대문채 등 7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안채는 앞면 7칸 규모로 일반적인 一자집과 같으나, 부엌 뒤쪽에 2칸의 방을 덧붙여 뒷마당에서 보면 ㄱ자집 형태를 하고 있다. 안채의 지붕은 옆에서 보면 八자 형태인데, 독특하게 용마루 밑에 처마 모양을 덧붙인 이중 용마루 형태이다. 사당은 앞면 3칸, 옆면 1칸 반의 맞배지붕 건물로 단을 높게 쌓아 지었다.

① 문화재와 관련된 인물 설명

② 문화재 구조적 특징 설명



나주 김효병 가옥

종 목 전라남도 민속문화재

지 역 전라남도 나주시

기존 문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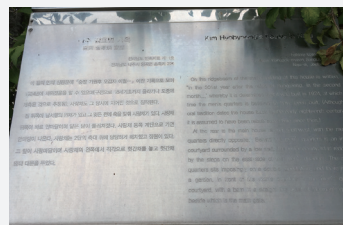
나주 김효병 가옥

羅州 金孝炳 家屋

전라남도 민속자료 ① 제11호

이 집의 안채 상량문에 「승정 기원후 오갑자 이월…」이란 기록으로 보아 1924년에 세워졌음을 알 수 있으며 ② (구전으로 18세기 초까지 올라가나 도중에 개축된 것으로 추정됨), 사랑채도 그 당시에 지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③ 집 뒤쪽에 남서향의 안채가 있고 그 맞은 편에 축을 맞춰 사랑채가 있다. 사랑채 뒤쪽이 바로 안마당이며 얇은 담이 둘러쳐졌다. 사랑채 동쪽 계단으로 가면 안마당이 나온다. 사랑채는 2단의 축대 위에 당당하게 배치했고 정원이 있다. 그 앞이 사랑마당이며 사랑채의 왼쪽에서 직각으로 헛간채를 놓고 헛간채 옆에 대문을 두었다.



① 지정번호 불필요

② 연대 추정 근거 부족

③ 도면이나 사진자료 없이
글로만 설명되어 있어 이해
하기 어려움



문안이 짧고 문화재에 대한
가치나 인물 등 전체적인 설명
부족

이렇게
바뀌었어요!



개선 문안

나주 김효병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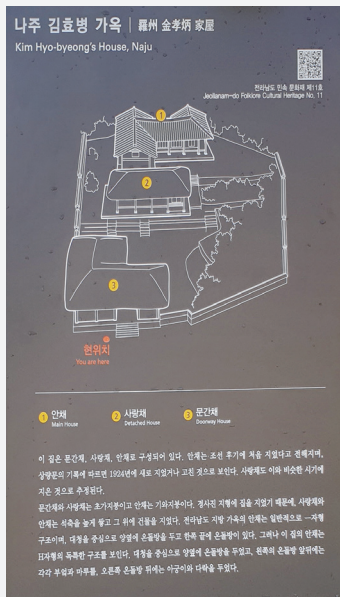
羅州 金孝炳 家屋

전라남도 민속문화재

❶ 이 집은 문간채, 사랑채, 안채로 구성되어 있다. 안채는 조선 후기에 처음 지었다고 전해지며, 상량문의 기록에 따르면 1924년에 새로 지었거나 고친 것으로 보인다. 사랑채도 이와 비슷한 시기에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❷ 문간채와 사랑채는 초가지붕이고 안채는 기와지붕이다. 경사진 지형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사랑채와 안채는 석축을 높게 쌓고 그 위에 건물을 지었다.

❸ 전라남도 지방 가옥의 안채는 일반적으로 一자형 구조이며, 대청을 중심으로 양옆에 온돌방을 두고 한쪽 끝에 온돌방이 있다. 그러나 이 집의 안채는 H자형의 독특한 구조를 보인다. 대청을 중심으로 양옆에 온돌방을 두었고, 왼쪽의 온돌방 앞뒤에는 각각 부엌과 마루를, 오른쪽 온돌방 뒤에는 아궁이와 다락을 두었다.



❶ 기록을 근거로 문화재의 건립 시기를 밝힘

❷ 문화재의 건축적 특징 설명

- ❸ 지역의 일반적 가옥 특징을 설명한 뒤, 해당 문화재만의 특징 설명
- 도면을 삽입하여 가옥 배치에 대한 이해를 도움

기존 안내판은 문화재와의 접근성은 좋지만 오래되어 다소 훼손되었고 재질 또한 햇빛에 반사되기 쉬우므로 글씨를 읽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멀리서는 그저 금속판으로만 인식되어 안내판으로써의 존재감이 아쉬웠습니다. 개선된 안내판은 기존 안내판보다 크기가 크고 문화재명이 잘 보이므로 안내판으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의 항공 이미지를 일러스트화하여 첨부하고 각 건물의 명칭과 관람객의 현위치도 안내하여 가옥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취석정

종 목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지 역 전라북도 고창군

기존 문안

취석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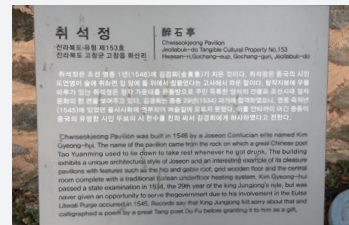
醉石亭

전라북도 유형 ① 제153호

②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화산리

취석정은 조선 명종 1년(1546)에 김경희(金景熹)가 지은 것이다. 취석정은 중국의 시인 도연명이 술에 취하면 집 앞에 돌 위에서 잠들었다는 고사에서 따온 말이다. 팔작지붕에 우물마루가 있는 취석정은 정자 가운데를 온돌방으로 꾸민 독특한 양식의 건물로 조선시대 정자 문화의 한 면을 보여 주고 있다. 김경희는 중종 29년(1534) 과거에 합격하였으나, 명종 즉위년(1545)에 있었던 을사사화에 연루되어 벼슬길에 오르지 못했다.


③ 이를 안타까이 여긴 중종이 중국의 유명한 시인 두보의 시 한수를 친히 써서 김경희에게 하사하였다고 전한다.



① 지정번호 불필요

② 소재지 불필요

③ 해당 문화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화를 기술하여 불필요한 정보로 느껴짐

 문화재에 대한 가치와 전체적인 설명 부족

개선 문안

취석정

醉石亭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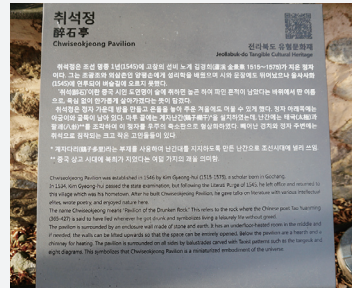
❶ 취석정은 조선 명종 1년에 고창의 선비 노계 김경희(1546 蘆溪 金景熹 1515~1575)가 지은 정자이다. 그는 조광조와 외삼촌인 양팽손에게 성리학을 배웠으며 시와 문장에도 뛰어났으나 을사사화(1545)에 연루되어 벼슬길에 오르지 못했다.

❷ ‘취석(醉石)’이란 중국 시인 도연명이 술에 취하면 늙곤하여 파인 흔적이 남았다는 바위에서 딴 이름으로, 욕심 없이 한가롭게 살아가겠다는 뜻이 담겼다.

❸ 취석정은 정자 가운데 방을 만들고 온돌을 놓아 추운 겨울에도 머물 수 있게 했다. 정자 아래쪽에는 아궁이와 굴뚝이 남아 있다. 마루 끝에는 계자난간(鷄子欄干)*을 설치하였는데, 난간에는 태극(太極)과 팔괘(八卦)**를 조각하여 이 정자를 우주의 축소판으로 형상화하였다. 빼어난 경치와 정자 주변에는 취석으로 짐작되는 크고 작은 고인돌들이 있다.

❹* 계자다리(鷄子多里)라는 부재를 사용하여 난간대를 지지하도록 만든 난간으로 조선시대에 널리 쓰임.

** 중국 상고 시대에 복희씨가 지었다는 여덟 가지의 괘를 의미함.



❶ 문화재 건립 시기와 지은 인물 소개

❷ 명칭의 유래와 의미 설명

❸ 해당 문화재만의 구조적 특징 설명

❹ 각주를 사용하여 전문용어를 풀이함

Q 문화재 안내판 안내 문안 작성 혹은 안내판 제작 및 설치에 있어 담당자 선생님만의 팁이 있으신가요?

A: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은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팁이라고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문화재 안내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과 정성이 다소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사람이 수차례 볼수록 문안이 다듬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못 본 부분을 다른 사람이 보는 경우도 많고 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도 조절해 나가면서 더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담당자가 처음부터 완벽한 결과물을 만드는 것은 아니니까요.





청주 백석정

종 목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지 역 충청북도 청주시

기존 문안

① 청원 관정리 백석정

清原 官井里 白石亭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② 제82호

조선 숙종 3년(1677)에 동부주부(東部主簿)를 지낸 백석정 신교(申澆 : 1641~1703)가 세운 고령신씨의 정자이다. 현재의 정자는 1927년 후손들이 중건하였다.

신교는 1677년 낭성천한강의 상류의 지담변(芷潭邊) 절벽에 매달린 높은 바위 위에 백석정을 창건하여 백석정이라 명명하고, 이곳에서 당대의 영남(嶺南)과 기호(畿湖)지방의 유명한 문사(文士)들과 문장과 시가(詩歌)를 짓고 교류하였다. <백석정 유고(遺稿)>에는 신교가 지은 국문가사(國文歌詞) 2편과 시조(時調) 22수, 한시(漢詩) 3편이 실려 있다.

③ 1690년 조정(朝廷)의 천거(薦擧)를 받아 관직(官職)에 출사(出仕)하여 7개 부서(部署)를 맡았으며, 1699년 동부주부를 끝으로 관직을 떠나 경기도 광주(廣州) 탄천변(炭川邊)에 정자 임경정(臨慶亭)을 건립하였다. 1701년 광주에서 고향인 낭성면 묵정(墨井)으로 환향(還鄕)하였고, 1703년 향년 63세로 별세하였다.

③ 5량가 소로수장집으로 내부는 통간에 우물마루를 깔고 통난간을 돌렸다. 전체적으로 구조부재가 세장하고 간결하게 구성되어 있다. 배면 가운데 기둥은 치목하지 않은 자연목을 세워 특이하다.

조선시대 중기 기호지방의 대표적인 문인이며 가사문학(歌辭文學)의 거장인 신교가 물 맑고 경치가 수려한 낭성면 관정리 흰 바위 위에 정자를 짓고 당대의 저명한 선비와 문인 그리고 조정 대신들과 학문을 교류하고 시문(詩文)을 겨루던 정자로서 역사적 가치가 클 뿐 아니라, 당시에 상류층 사회의 명사들이 진주(晉州)의 축석루(矗石樓), 관동지방의 총석정(叢石亭), 삼척(三陟)의 죽서루(竹西樓) 등과 같이 전국의 명승지에 정자를 짓고 풍류를 즐기던 전통적인 건축양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조선시대의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계속하여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



① 문화재 명칭 오류

② 지정번호 불필요

③ 계속되는 한자 어휘 사용으로
흥미가 떨어짐

④ 전문용어 사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은 건물인지 상상하기 어려움



전체적으로 어려운 단어를
사용해 가독성이 떨어짐

개선 문안

청주 백석정

淸州 白石亭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❶ 백석정은 조선 시대 중기 경기·충청권의 대표적인 문인이자 가사 문학의 거장인 신교(申澆, 1641~1703)가 학문을 교류하며 시문을 겨루었던 정자이다. 숙종 3년(1677)에 세워졌으나 퇴락하여 없어진 것을, 1927년 후손들이 다시 지었다.

❷ 인조 19년(1641)에 태어난 신교는 젊었을 적에는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학문에 매진하였다. 숙종 16년(1690) 50세의 늦은 나이에 조정의 천거를 받아 9년간 관직에 머물렀으며, 이후 낙향하여 고향인 청주시 낭성면 목정에서 여생을 보내다 숙종 29년(1703)에 세상을 떠났다.

❸ 그의 나이 36세 되던 해에 청주 낭성천의 지담변(芷潭邊) 절벽 높은 바위 위에 백석정을 짓고, 이곳에서 당대 영남·경기·충청 지방의 유명한 문인들과 교류하였다. 신교는 이 정자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여 정자의 이름을 자신의 호로 삼았으며, 「백석정별곡」이라는 국문 가사를 남기기도 하였다. 그는 작품에서 이곳을 조화로운 자연과 평화로운 백성들의 삶으로 구현된 유평적 이상세계로 묘사하였다.

❹ 현재 남아 있는 백석정은 후대에 지어 건축 자체는 뛰어나지 않지만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잘 이용하여 풍류를 감상하기에 적합한 정자이다. 이는 조선 후기 상류층 명사들이 전국의 명승지에 정자를 짓고 풍류를 즐기던 문화를 반영한 것으로, 조선 시대 풍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문화재이다.

청주 백석정 | 淸州 白石亭
Baekseokjeong Pavilion, Cheongju

백석정은 조선 시대 중기 경기·충청권의 대표적인 문인이자 가사 문학의 거장인 신교(申澆, 1641~1703)가 학문을 교류하며 시문을 겨루었던 정자이다. 숙종 3년(1677)에 세워졌으나 퇴락하여 없어진 것을, 1927년 후손들이 다시 지었다.

인조 19년(1641)에 태어난 신교는 젊었을 적에는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학문에 매진하였다. 숙종 16년(1690) 50세의 늦은 나이에 조정의 천거를 받아 9년간 관직에 머물렀으며, 이후 낙향하여 고향인 청주시 낭성면 목정에서 여생을 보내다 숙종 29년(1703)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나이 36세 되던 해에 청주 낭성천의 지담변(芷潭邊) 절벽 높은 바위 위에 백석정을 짓고, 이곳에서 당대 영남·경기·충청 지방의 유명한 문인들과 교류하였다. 신교는 이 정자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여 정자의 이름을 자신의 호로 삼았으며, 「백석정별곡」이라는 국문 가사를 남기기도 하였다. 그는 작품에서 이곳을 조화로운 자연과 평화로운 백성들의 삶으로 구현된 유평적 이상세계로 묘사하였다.

현재 남아 있는 백석정은 후대에 지어 건축 자체는 뛰어나지 않지만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잘 이용하여 풍류를 감상하기에 적합한 정자이다. 이는 조선 후기 상류층 명사들이 전국의 명승지에 정자를 짓고 풍류를 즐기던 문화를 반영한 것으로, 조선 시대 풍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문화재이다.

백석정은 조선 시대 중기 경기·충청권의 대표적인 문인이자 가사 문학의 거장인 신교(申澆, 1641~1703)가 학문을 교류하며 시문을 겨루었던 정자이다. 숙종 3년(1677)에 세워졌으나 퇴락하여 없어진 것을, 1927년 후손들이 다시 지었다.

인조 19년(1641)에 태어난 신교는 젊었을 적에는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학문에 매진하였다. 숙종 16년(1690) 50세의 늦은 나이에 조정의 천거를 받아 9년간 관직에 머물렀으며, 이후 낙향하여 고향인 청주시 낭성면 목정에서 여생을 보내다 숙종 29년(1703)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나이 36세 되던 해에 청주 낭성천의 지담변(芷潭邊) 절벽 높은 바위 위에 백석정을 짓고, 이곳에서 당대 영남·경기·충청 지방의 유명한 문인들과 교류하였다. 신교는 이 정자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여 정자의 이름을 자신의 호로 삼았으며, 「백석정별곡」이라는 국문 가사를 남기기도 하였다. 그는 작품에서 이곳을 조화로운 자연과 평화로운 백성들의 삶으로 구현된 유평적 이상세계로 묘사하였다.

현재 남아 있는 백석정은 후대에 지어 건축 자체는 뛰어나지 않지만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잘 이용하여 풍류를 감상하기에 적합한 정자이다. 이는 조선 후기 상류층 명사들이 전국의 명승지에 정자를 짓고 풍류를 즐기던 문화를 반영한 것으로, 조선 시대 풍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문화재이다.

(신교, 「백석정 별곡」 중에서)

Baekseokjeong Pavilion was first built in 1677 by the poet Shin Gyo (1641-1703) to be used as a venue for literary exchange with other prominent writers and poets of the time. The current pavilion was built anew in 1927 by Shin's descendant after the original had fallen into disrepair and no longer remained.

Born in Naengseong-myeon, Township of Cheongju, Shin Gyo spent most of his life in his hometown and served as a civil official only for a brief period of time when he was already 10 years old. He built this pavilion at the age of 36 and invited many famous poets to compose a writing album at here. The pavilion was named by Shin as much as he took its name as his own pen name and even wrote a poem called 「Baekseokjeong Byeol-gok」 (Baekseokjeong Pavilion's Distinctive Song). In this poem, Shin Gyo describes this place as an ideal Confucian world full of nature's harmony and peace.

Built on a cliff providing a nice view of Naengseongcheon Stream, the pavilion harmonizes well with the beautiful surroundings. Pavilion built in a simple plain to enjoy and foster one's own poetic mood among upper-class families during the Joseon period (1392-1910). The lower part of the site facing the river is enclosed for safety purposes, but the wooden pavilion is otherwise open to allow a panoramic view of the scenery.

❶ 문화재를 지은 인물과 축조된

시기 및 개축 시기 소개

❷ 문화재와 관련된 인물 연혁

설명

❸ 문화재와 관련 인물 간의

관계를 알기 쉽게 설명

❹ 문화재적 가치 보강



백파 이상 영당 및 승무재

종 목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지 역 충청남도 논산시

기존 문안

백파이상영당 및 승무재

❶ 白波李常影堂, 繩武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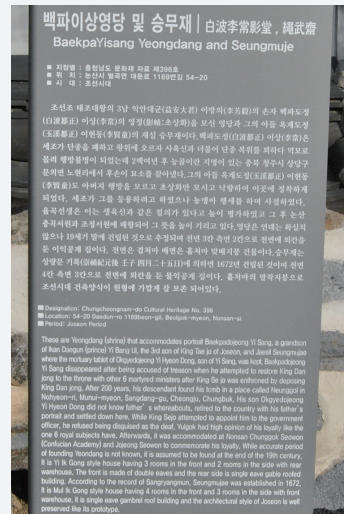
지정별 :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❷ 제396호

❸ 위치 : 논산시 벌곡면 태둔로1189번길 54-20

❹ 시대 : 조선시대

조선조 태조대왕의 3남 익안대군(益安大君) 이방의(李芳毅)의 손자 백파도정(白波都正) 이상(李常)의 영정(影幀:초상화)을 모신 영당과 그의 아들 옥계도정(玉溪都正) 이현동(李賢童)의 ❺ 재실 승무재이다. 백파도정(白波都正) 이상(李常)은 세조가 단종을 폐하고 왕위에 오르자 사육신과 더불어 단종 복위를 꾀하다 역모로 몰려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2백여년 후 능골이란 지명이 있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노현리에서 후손이 묘소를 찾아냈다. 그의 아들 옥계도정(玉溪都正) 이현동(李賢童)도 아버지 행방을 모르고 초상화만 모시고 낙향하여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다. 세조가 그를 등용하려고 하였으나 농맹아 행세를 하며 사절하였다. 율곡 선생은 이는 생육신과 같은 절의가 있다고 높이 평가하였고 그 후 논산 충곡서원과 조정서원에 배향되어 그 뜻을 높이 기리고 있다. 영당은 연대는 확실치 않으나 19세기 말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❻ 전면 3칸 측면 2칸으로 전면에 퇴칸을 둔 이익공계 집이다. 전면은 겹처마 배면은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승무재는 상량문 기록(崇禎紀元後 壬子 四月二十五日)에 의하면 1672년 건립된 것이며 전면 4칸 측면 3칸으로 ❼ 전면에 퇴칸을 둔 물의 공계 집이다. 홑처마의 팔작지붕으로 조선시대 건축양식이 원형에 가깝게 잘 보존되어있다.



- ❶ 한자 표기 오류
- ❷ 지정번호 불필요
- ❸ 소재지 불필요
- ❹ 연대 기입 불필요
- ❺ 단어 설명 부족
- ❻~❼ 전문용어 사용과 설명 부족



- 주요 인물의 일화와 문화재 묘사가 매끄럽지 연결되지 않음
- 한자를 많이 사용하여 이해하기 어려움

개선 문안

백파 이상 영당 및 승무재

白波 李常 影堂 및 繩武齋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백파 이상 영당 및 승무재는 태조의 셋째 아들 이방의(李芳毅)의 손자 이상(李常)과 아들 이현동(李賢童)의 재실*이다. 이상은 세조가 단종을 폐하고 왕위에 오르자 사육신과 더불어 단종 복위를 꾀하다 역모로 몰려 행방불명되었는데, 2백여 년 후 능골이란 지명이 있는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노현리에서 후손이 묘소를 찾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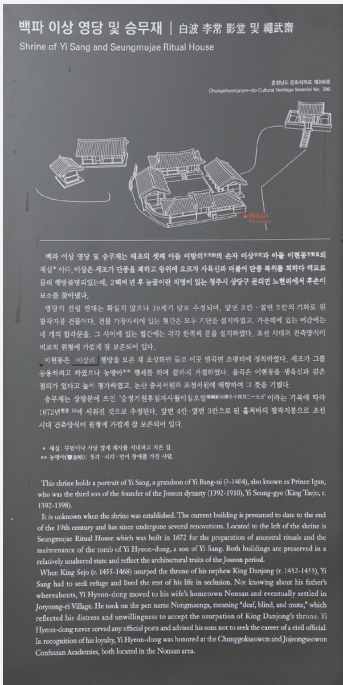
① 영당의 건립 연대는 확실치 않으나 19세기 말로 추정되며 앞면 3칸, 옆면 2칸의 기와로 된 팔작지붕 건물이다. 건물 가장자리에 있는 킷간은 모두 기단을 설치하였고, 가운데에 있는 여간에는 네 개의 합각문을, 그 사이에 있는 협간에는 각각 한쪽씩 문을 설치하였다. 조선 시대의 건축양식이 비교적 원형에 가깝게 잘 보존되어 있다.

② 이현동은 이방의의 행방을 모른 채 초상화만 들고 이곳 벌곡면 조령리에 정착하였다. 세조가 그를 등용하려고 하였으나 농맹아** 행세를 하며 끝까지 거절하였다. 율곡은 이현동을 생육신과 같은 절의가 있다고 높이 평가하였고, 논산 충곡서원과 조정서원에 배향하여 그 뜻을 기렸다.

승무재는 상량문에 쓰인 ‘승정기원후임자사월이십오일(崇禎紀元後壬子四月二十五日)’이라는 기록에 따라 1672년(현종 13)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앞면 4칸, 옆면 3칸으로 된 흙처마의 팔작지붕으로 조선 시대 건축양식이 원형에 가깝게 잘 보존되어 있다.

③* 재실 : 무덤이나 사당 옆에 제사를 지내려고 지은 집

** 농맹아(聾盲啞) : 청각, 시각, 언어 장애를 가진 사람



① 문화재의 구조적 특징을 설명

② 관련 인물의 일화를 소개하여
흥미 유발③ 각주를 사용하여 전문용어를
풀이함

적절한 문단 나눔으로
가독성을 높임



욕은지

종 목 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

지 역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존 문안

욕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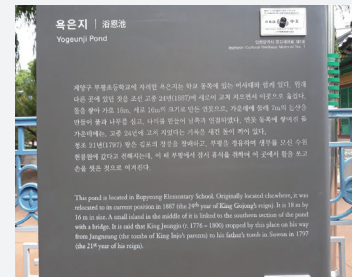
浴恩池

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 ❶ 제1호

계양구 부평초등학교에 자리한 욕은지는 학교 동쪽에 있는
어사대와 함께 있다. 원래 다른 곳에 있던 것을 조선 고종
24년(1887)에 새로이 고쳐 지으면서 이곳으로 옮겼다.

❷ 돌을 쌓아 가로 18m, 세로 16m의 크기로 만든 연못
으로, 가운데에 돌레 7m의 돌산을 만들어 풀과 나무를 심고,
다리를 만들어 남쪽과 연결하였다. 연못 동쪽에 쌓여진 돌
가운데에는, 고종 24년에 고쳐 지었다는 기록을 새긴 돌이
끼어 있다.

❸ 정조 21년(1797) 왕은 김포의 장릉을 참배하고, 부평을
경유하여 생부를 모신 수원 현릉원에 갔다고 전해지는데,
이 때 부평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이 곳에서 활을 쏘고 손을
씻은 것으로 여겨진다.



❶ 지정번호 불필요

❷ 주어 없이 문화재의 규모와 조성방법을 같이 기술하여 문맥이 어색함

❸ 문장의 호흡이 길어 지루하게 느껴짐



문화재에 대한 가치와 전체
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정리
가 필요해 보임

개선 문안

욕은지

浴恩池

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

① 욕은지는 돌을 쌓아 만든 연못으로 크기는 가로 18m, 세로 16m이다. 가운데에 지름 5m 가량의 돌산이 조성되어 있고, 돌산까지는 돌다리가 놓여 있다. 언제 처음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며, 원래 지금보다 약간 동쪽에 있던 것을 고종 24년(1887)에 옮기며 보수하였다.

② 욕은지는 조선 제22대왕 정조(1776~1800 재위)가 정조 21년(1797) 부평도호부를 방문했을 때 머물렀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정조는 김포에 있는 장릉*에 참배하고, 부평을 경유하여 아버지 사도세자를 모신 화성 현릉원에 행차하였다. 부평도호부에 머무는 동안 정조는 어사대에서 활을 쏘고 욕은지에서 손을 씻었다고 한다.

③* 장릉(章陵): 제16대 인조의 아버지 원종과 왕비 인현왕후 구씨의 능

욕은지 | 浴恩池
Yogeunji Pond

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호
Incheon Cultural Heritage No. 1

욕은지는 돌을 쌓아 만든 연못으로 크기는 가로 18m, 세로 16m이다. 가운데에 지름 5m 가량의 돌산이 조성되어 있고, 돌산까지는 돌다리가 놓여 있다. 언제 처음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며, 원래 지금보다 약간 동쪽에 있던 것을 고종 24년(1887)에 옮기며 보수하였다.

욕은지는 조선 제22대 왕 정조(1776~1800 재위)가 정조 21년(1797) 부평도호부를 방문했을 때 머물렀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정조는 김포에 있는 장릉*에 참배하고, 부평을 경유하여 아버지의 사도세자를 모신 화성 현릉원에 행차하였다. 부평도호부에 머무는 동안 정조는 어사대에서 활을 쏘고 욕은지에서 손을 씻었다고 한다.

① (설명문) 욕은지는 돌을 쌓아 만든 연못으로 크기는 가로 18m, 세로 16m이다. 가운데에 지름 5m 가량의 돌산이 조성되어 있고, 돌산까지는 돌다리가 놓여 있다. 언제 처음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며, 원래 지금보다 약간 동쪽에 있던 것을 고종 24년(1887)에 옮기며 보수하였다.



① 문화재의 규모와 조성방법을
분리하여 문장을 작성함

② 문화재에 관련한 일화를 소개
하여 흥미를 유발함

③ 각주를 사용하여 전문용어를
풀이함



남해 척화비

종 목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지 역 경상남도 남해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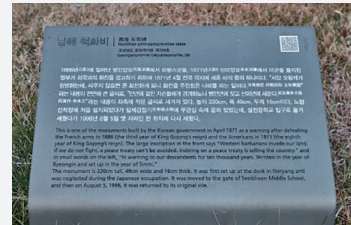
기존 문안

남해척화비

南海斥和碑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❶ 제266호

❷ 1866년(고종3)에 일어난 병인양요(丙寅洋擾)에서 프랑스군을, 1871년(고종8)에 일어난 신미양요(辛未洋擾)에서 미군을 물리친 정부가 외국과의 화친을 경고하기 위하여 1871년 4월 전국 각지에 세운 비석 중의 하나이다.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곧 화친하게 되니 화친을 주장함은 나라를 파는 일이다."라는 내용이 전면에 큰 글씨고, "만년에 걸친 자손들에게 경계하노니 병인년에 짓고 신미년에 세운다."라는 내용이 좌측에 작은 글씨로 새겨져 있다. 높이 220cm, 폭 49cm, 두께 18cm이다. 노량 선착장에 처음 설치되었다가 일제강점기에 무관심 속에 묻혀 있었는데, 설천중학교 입구로 옮겨 세웠다가 1999년 8월 5일 옛 자리인 현 위치에 다시 세웠다.



❶ 지정번호 불필요

❷ 문장의 호흡이 길어 이해

하기 어려움

· 중요 인물인 흥선대원군

언급이 누락됨

이렇게
바뀌었어요!



개선 문안

남해 척화비

南海斥和碑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① 척화비는 1866년 병인양요와 1871년 신미양요를 승리로 이끈 흥선대원군이 서양 세력을 배척하고 그들의 침략을 국민에게 경고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 세운 비석이다.

② 남해에 처음 척화비를 세웠던 곳은 노량 선착장 입구였으나 일제강점기 때 무관심 속에 묻혀 있던 것을 해방 후 마을 사람들이 설천중학교 입구로 옮겨 보존하였다. 그 뒤 1998년 8월 남해군과 남해문화원에서 원래 자리와 가까운 마을 안으로 옮겼다가, 남해 충렬사 성역화 사업이 끝나자 다시 원래 위치로 옮겨 세웠다.

③ 남해 척화비는 낮은 사각 받침돌 위에 몸돌이 있고 맨 위에 지붕돌이 올려져 있는 형태로, 다른 척화비와는 모습이 달라 지방 관청에서 대원군의 척화비를 본떠 세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④ 척화비에는 ‘서양의 오랑캐가 침입해 오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자는 것이고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洋夷侵犯 非戰則和 主和賣國).’라는 내용의 열두 글자를 크게 새긴 다음 그 왼쪽에 ‘우리 만대 자손에게 경고한다(戒我萬年子孫).’는 작은 글자를 덧붙였다.

1882년 흥선대원군이 물러난 뒤, 조선이 문호를 열게 되면서 척화비는 대부분 철거하였는데 지금까지 전국에 남아 있는 20여 기는 모두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남해 척화비

南海斥和碑
Anti-appesement Stele, Namhae경상남도 문화재 자료
Gyeongsangnam-do Cultural Heritage Material

척화비는 1866년 병인양요와 1871년 신미양요를 승리로 이끈 흥선대원군이 서양 세력을 배척하고 그들의 침략을 국민에게 경고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 세운 비석이다.

남해에 처음 척화비를 세웠던 곳은 노량 선착장 입구였으나 일제강점기 때 무관심 속에 묻혀 있던 것을 해방 후 마을 사람들이 설천중학교 입구로 옮겨 보존하였다. 그 뒤 1998년 8월 남해군과 남해문화원에서 원래 자리와 가까운 마을 안으로 옮겼다가, 남해 충렬사 성역화 사업이 끝나자 다시 원래 위치로 옮겨 세웠다.

남해 척화비는 낮은 사각 받침돌 위에 몸돌이 있고 맨 위에 지붕돌이 올려져 있는 형태로, 다른 척화비와는 모습이 달라 지방 관청에서 대원군의 척화비를 본떠 세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척화비에는 서양의 오랑캐가 침입해 오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자는 것이고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洋夷侵犯 非戰則和 主和賣國)라는 내용의 열두 글자를 크게 새긴 다음 그 왼쪽에 우리 만대 자손에게 경고한다(戒我萬年子孫)는 작은 글자를 덧붙였다.

1882년 흥선대원군이 물러난 뒤, 조선이 문호를 열게 되면서 척화비는 대부분 철거하였는데 지금까지 전국에 남아 있는 20여 기는 모두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This is one of the many anti-appesement steles set up across the country in 1871.

Following devastating armed conflicts on Korean soil with France in 1866 and the United States in 1871, Heungseon Daewongun (1820-1898), the prince regent and de facto ruler during the early period of King Gwangmu's reign (9, 1862-1897), ordered these steles be erected to warn people against cowering before Western powers.

Each stele bears twelve Chinese characters, reading, "The Western barbarians have invaded. To not fight is to subulate peace. To subulate peace is to sell out the country." Next to this admonition are small characters which read, "Let this be a warning to our offspring for the next ten-thousand years." After King Gwangmu took control of state affairs, Korea opened itself to foreign exchange, and most such steles were taken down. One 20 of them have survived to this day and were designated as cultural heritages.

This anti-appesement stele was originally erected at the entrance to Noryang Harbor, but in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it was moved by the local people to the entrance of Seoddeon Middle School. In 1998, it was moved back to its current location. The stele consists of a rectangular pedestal, a body stone, and a roof-shaped capstone.

It is presumed that this stele was erected by the local government office and was modeled on the steles erected by Heungseon Daewongun's order.

① 해당 문화재의 개념을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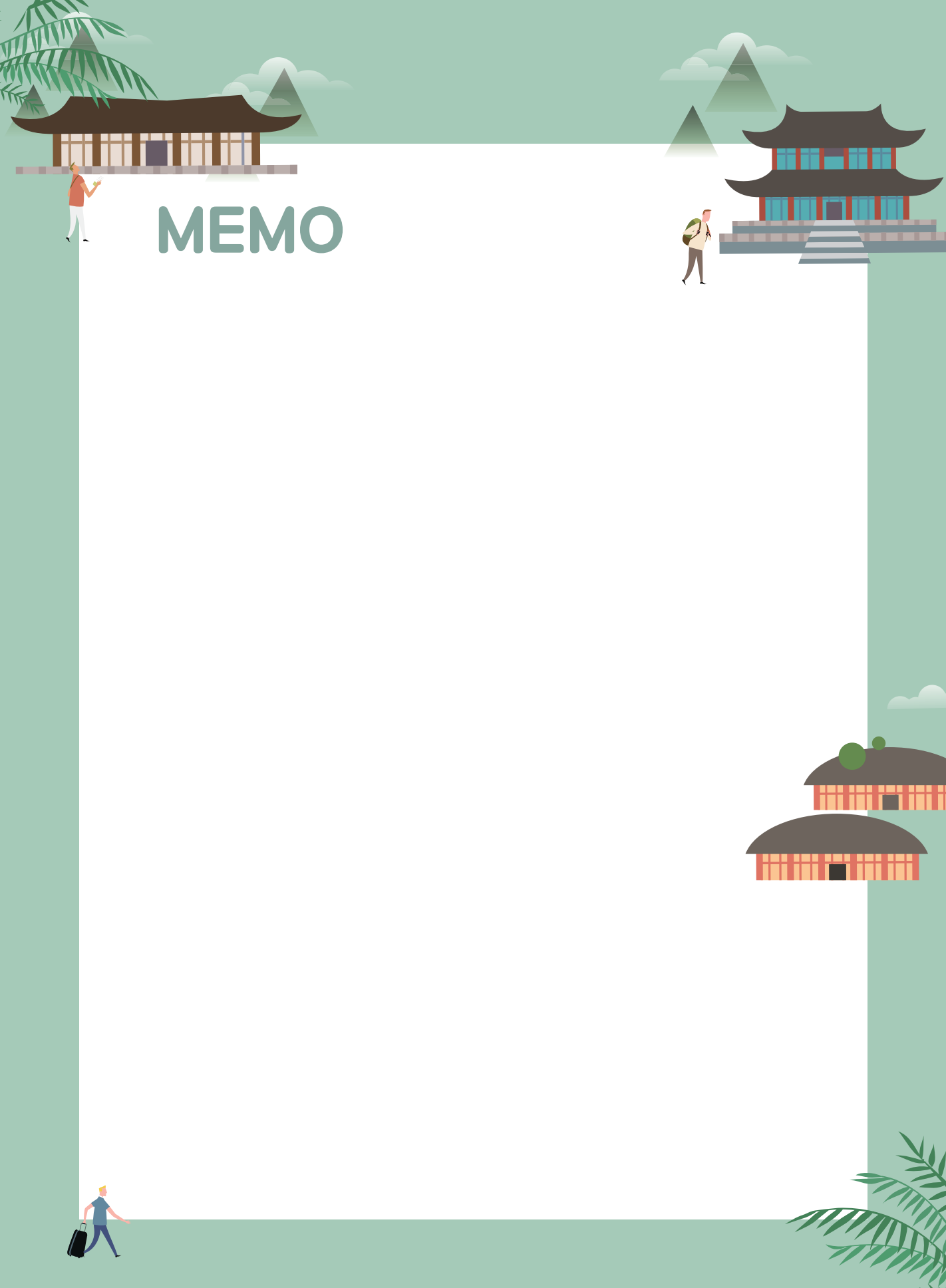
② 문화재의 연혁 설명

③ 문화재의 형태적 특징 설명

④ 척화비에 새겨진 내용의 뜻

풀이와 원문을 함께 기재하여
신뢰도를 높임

기존 안내판은 높이가 너무 낮아 문안을 읽으려고 과도하게 허리를 숙이거나 쏘그려 앉아야 읽을 수 있으므로 관람객이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개선된 안내판은 눈높이로 제작되었고 문화재와 시선이 같아서 관람하면서 읽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MEMO

2021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개선사례



사적

관방유적 / 선사유적·발굴터 /
유허지 / 묘역 / 탑



흑석동산성

종 목 대전광역시 기념물

지 역 대전광역시 서구

기존 문안

흑석동산성

黑石洞山城

지정 번호 : 기념물 ❶ 제15호

❷ 위치 : 서구 봉곡동 산 26-1

고무래봉(해발 197m) 정상에 테를 두르듯 돌을 쌓아 만든 백제시대 성으로 밀암산성이라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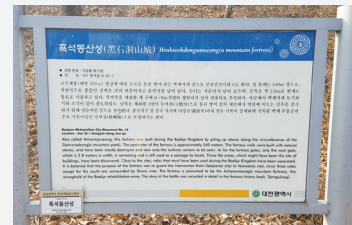
❸ 성 둘레는 540m 정도로, 자연석으로 쌓았던 성벽은 거의 허물어지고 윤곽선만 남아 있다.

문터는 서문터가 남아 있으며, 문폭은 약 2.8m로 현재도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 북벽쪽을 제외한 세 곳에 6~9m 가량의 평탄지가 있어 건물터로 추정되며,

❹ 이곳에서 백제시대 토기와 기와 조각이 많이 출토되었다.

남쪽을 제외한 3면이 두마천(豆磨川)으로 둘러 쌓여 있어 대전에서 연산에 이르는 길목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삼국사기 및 중국 사서에 나당군(羅唐軍)과의 전투 기록이 상세하게 기록된 백제 부흥군의 주요 거점이었던 진현성(眞峴城)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❶ 지정번호 불필요

❷ 소재지 불필요

❸ 산성의 규모에 관한 묘사를
단순하게 나열함

❹ 문장의 선후관계가 바뀌어
서술됨



문화재에 대한 가치와 전체
적인 설명 부족

개선 문안

흑석동산성

黑石洞山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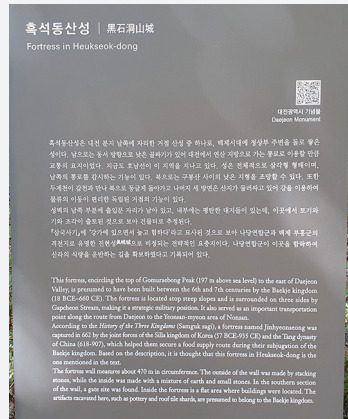
대전광역시 기념물

흑석동산성은 대전 분지 남쪽에 자리한 거점 산성 중 하나로, 백제시대에 정상부 주변을 둘로 쌓은 성이다. 남으로는 동서 방향으로 낮은 골짜기가 있어 대전에서 연산 지방으로 가는 통로로 이용할 만큼 교통의 요지이었다. 지금도 호남선이 이 지역을 지나고 있다.

① 성은 전체적으로 삼각형 형태이며, 남쪽의 통로를 감시하는 기능이 있다. 북으로는 구룡산 사이의 낮은 지형을 조망할 수 있다. 또한 두계천이 갑천과 만나 북으로 둥글게 돌아가고 나머지 세 방면은 산지가 둘러싸고 있어 강을 이용하여 물류의 이동이 편리한 독립된 거점의 기능이 있다.

② 성벽의 남쪽 부분에 출입문 자리가 남아 있고, 내부에는 평탄한 대지들이 있는데, 이곳에서 토기와 기와 조각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건물터로 추정된다.

『삼국사기』에 ‘강가에 있으면서 높고 험하다’라고 묘사된 것으로 보아 나당연합군과 백제 부흥군의 격전지로 유명한 진현성(眞峴城)으로 비정되는 전략적인 요충지이다. 나당연합군이 이곳을 함락하여 신라의 식량을 운반하는 길을 확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① 당시 문화재의 기능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

② 건물터 설명을 중심으로 선후 관계에 맞게 문장이 작성됨



전체적으로 어렵지 않고 가독성이 좋아 읽기 쉬운 문안



Q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 : 제가 안내판 정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첫째는 사실여부, 둘째는 전달력이라 생각합니다. 문화재에서 사실여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문화재를 설명하면서 시간, 인물, 배경 등에 있어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아무리 쉬운 문안을 작성해도 문화재 안내판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 안내판은 어려운 문안으로 인해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자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도 만화, 사진 등을 활용하여 전달력을 높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이 잘 될지 고민하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주 것대산 봉수

종 목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지 역 충청북도 청주시

기존 문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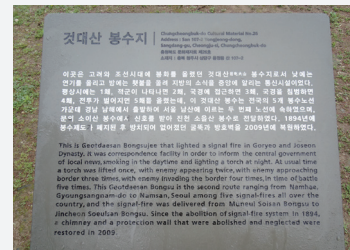
1 것대산 봉수지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2 제26호

3 소재지: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산 107-2

이곳은 고려와 조선시대에 봉화를 올렸던 것대산(巨叱大山) 봉수지로서 낮에는 연기를 올리고 밤에는 횃불을 올려 지방의 소식을 중앙에 알리는 통신시설이었다.

4 평상시에는 1회, 적군이 나타나면 2회, 국경에 접근하면 3회, 국경을 침범하면 4회, 전투가 벌어지면 5회를 올렸는데, 이 것대산 봉수는 전국의 5개 봉수노선 가운데 경남 남해에서 출발하여 서울 남산에 이르는 두 번째 노선에 속하였으며, 문의 소이산 봉수에서 신호를 받아 진천 소을산 봉수로 전달하였다. 1894년에 봉수제도가 폐지된 후 방치되어 없어졌던 굴뚝과 방호벽을 2009년에 복원하였다.



1 문화재 명칭 오류

2 지정번호 불필요

3 소재지 불필요

4 문장의 호흡이 길고 산만한 문장

- 과도한 정보가 서술되어 전체 안내 문안의 절반을 할애하고 있음

개선 문안

청주 갯대산 봉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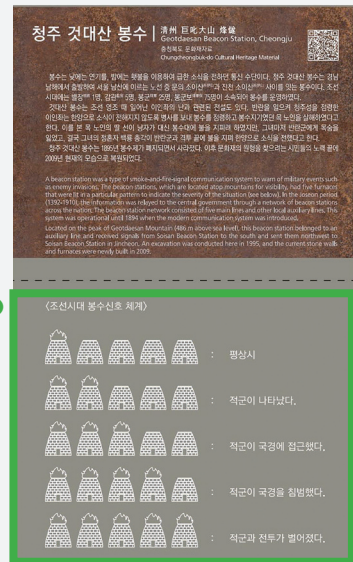
淸州 巨叱大山 烽燧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① 봉수는 낮에는 연기를, 밤에는 횃불을 이용하여 급한 소식을 전하던 통신 수단이다. 청주 갯대산 봉수는 경남 남해에서 출발하여 서울 남산에 이르는 노선 중 문의 소이산(所伊山)과 진천 소이산(所伊山) 사이를 잇는 봉수이다. 조선 시대에는 별장(別將) 1명, 감관(監官) 5명, 봉군(烽軍) 25명, 봉군보(烽軍保) 75명이 소속되어 봉수를 운영하였다.

② 갯대산 봉수는 조선 영조 때 일어난 이인좌의 난과 관련된 전설도 있다. 반란을 일으켜 청주성을 점령한 이인좌는 한양으로 소식이 전해지지 않도록 병사를 보내 봉수를 점령하고 봉수지기였던 목 노인을 살해하였다고 한다. 이를 본 목 노인의 딸 선이 남자가 대신 봉수대에 불을 지피려 하였지만, 그녀마저 반란군에게 목숨을 잃었고, 결국 그녀의 정혼자 백룡 총각이 반란군과 격투 끝에 불을 지피 한양으로 소식을 전했다고 한다.

청주 갯대산 봉수는 1895년 봉수제가 폐지되면서 사라졌다. 이후 ③ 문화재의 원형을 찾으려는 시민들의 노력 끝에 2009년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① 문화재의 개념과 역할을 간결

하게 설명

② 문화재와 관련한 흥미로운

설화 소개

③ '시민'의 문화재 복원 노력을

추가함

④ 봉수신호 체계를 그림으로 설명

하여 이해를 도움



충주 대림산 봉수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지 역 충청북도 충주시

신규 문안

충주 대림산 봉수

忠州 大林山 烽燧

충청북도 기념물

❶ 충주 대림산 봉수는 충주시 대림산 꼭대기에 있는 봉수 터이다. 봉수는 밤에는 불을 이용하고 낮에는 연기를 이용하는 통신수단과 시설을 뜻한다.

❷ 우리나라에서는 삼국 시대부터 봉수를 이용하였으며 조선 후기까지 운영하다 근대 통신시설이 도입되면서 1894년 갑오개혁 때 폐지하였다.

❸ 봉수는 평상시 1거(炬)를 유지하며 유사시 적의 침입하여 교전하는 상황에서는 최대 5거까지 올라간다.

대림산 봉수는 주정산봉수(周井山烽燧, 수안보면 온천리, 기념물 제113호)를 받아 마산봉수(馬山烽燧, 대소원면 대소리·금곡리)로 연결하는 노선(제2거 간봉)이다. 산꼭대기에 위치하며 충주 시내와 달천강 일대가 잘 보인다.

❹ 2017년 봉수터 발굴 조사를 통해 연조*, 석축, 방호벽**, 재 폐기장 등을 확인하였다. 불을 때는 시설인 연조는 5기가 조사되었는데 하부구조만 남아 있으며 평면 'ㄱ' 자 형태로 배치되었다.

❺ 출토된 유물은 통일신라 시대의 기와와 고려 시대 기와편, 청자편 등이 소량 수습되었으며 조선 시대 물결무늬(波狀紋) 기와와 백자가 다수를 차지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대림산 봉수는 주로 조선 시대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❻* 연조 : 불 때는 아궁이를 갖춘 구조물

❻** 방호벽 : 위험을 막기 위하여 바위나 진흙 따위로 만든 시설물



안내판이 문화재 근방에 설치되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성인의 키와 눈높이에 맞춰 제작되어 읽기도 좋고 봉수 복원 모습, 봉수 원경, 발굴 모습을 사진 자료를 첨부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❶ 문화재의 개념과 역할 설명

❷ 봉수의 유구한 역사와 폐지 시기 설명

❸ 봉수의 사용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❹ 문화재의 구조와 형태 설명

❺ 출토 유물을 통한 시대 추정으로 신뢰도를 높임

❻ 각주를 사용하여 전문용어를 풀이함



서산산성

종 목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지 역 전라북도 고창군

신규 문안

서산산성

西山山城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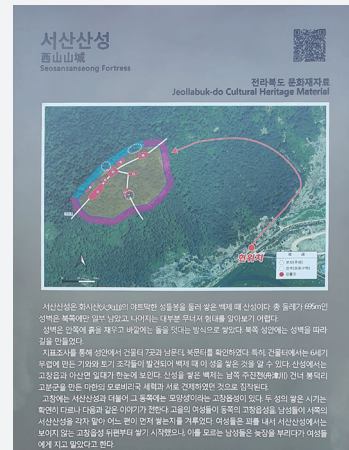
① 서산산성은 화시산(火矢山 157m)의 야트막한 성틀봉을 둘러 쌓은 백제 때 산성이다. 총 둘레가 695m인 성벽은 북쪽에만 일부 남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무너져 형태를 알아보기 어렵다.

성벽은 안쪽에 흙을 채우고 바깥에는 돌을 덧대는 방식으로 쌓았다. 북쪽 성안에는 성벽을 따라 길을 만들었다

지표조사를 통해 성안에서 건물터 7곳과 남문터, 북문터를 확인하였다. 특히, ② 건물터에서는 6세기 무렵에 만든 기와와 토기 조각들이 발견되어 백제 때 이 성을 쌓은 것을 알 수 있다. 산성에서는 고창읍과 아산면 일대가 한눈에 보인다. 산성을 쌓은 백제는 남쪽 주진천(舟津川) 건너 봉덕리 고분군을 만든 마한의 모로비리국 세력과 서로 견제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고창에는 서산산성과 더불어 그 동쪽에는 '모양성'이라는 고창읍성이 있다. 두 성의 쌓은 시기는 확연히 다르나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③ 고을의 여성들이 동쪽의 고창읍성을, 남성들이 서쪽의 서산산성을 각자 맡아 어느 편이 먼저 쌓는지를 겨루었다. 여성들은 꾀를 내서 서산산성에서는 보이지 않는 고창읍성 뒤편부터 쌓기 시작했으나, 이를 모르는 남성들은 늦장을 부리다가 여성들에게 지고 말았다고 한다.



① 문화재의 규모와 현재 모습

설명

② 출토 유물을 통한 시대 추정 으로 신뢰도를 높임

③ 문화재와 관련한 흥미로운 설화 소개

Q 이번에 『서산산성』을 정비했는데, 해당 문화재 안내판 정비 시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무엇인가요?

A : 문화재의 위치상 접근성이 상당히 좋지 않아 그림으로 위치를 표현했습니다. 주변 문화유산과 연계하여 설명해 이해의 폭을 넓히려 노력했습니다.



완주 위봉산성

종 목 사적

지 역 전라북도 완주군

기존 문안

위봉산성

威鳳山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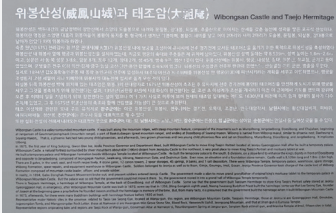
사적 1 제471호

이 산성은 조선 숙종 원년(1675)에 쌓은 것으로,

2 둘레가 약 16km에 이르는 대단한 규모이다. 유사시에 전주 경기전과 조경묘에 있는 태조의 초상화와 그의 조상을 상징하는 나무패를 피난시키려고 이 성을 쌓았다. 실제 동학농민봉기로 전주가 함락되었을 때 초상화와 나무패를 이곳으로 가져왔다. 성안에는 초상화와

3 위패를 둘 소형 궁궐이 있었으나 오래전에 헐려 없어졌다. 성의 동·서·북쪽에 각각 문을 냈는데, 지금은 전주로 통하는 서쪽에 반월형 문 하나만이 남아 있다.

4 성안에는 위봉사와 전주 팔경의 하나인 위봉폭포가 있다.



- 1 지정번호 불필요
- 2 규모에 대한 감상적 설명
- 3 앞서 나무패라고 설명하다
위패로 변경되어 단어의 통일
성이 없음
- 4 해당 설명을 하गे 된 배경
부재로 불필요한 설명으로
느껴짐



문안이 짧고 문화재에 대한
가치와 전체적인 설명 부족
하고 정리가 필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기존 안내판은 접근성이 다소 좋지 않고 높이도 낮아 읽기 불편합니다. 개선 안내판은 기존 안내판에 비해 접근성이 좋고 높이도 적당해 문안을 읽기 불편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위봉산성의 지도를 첨부하고 현위치를 표시해 관람객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개선 문안

위봉산성

威鳳山城

사적

① 위봉산성은 숙종 원년(1675)부터 숙종 8년(1682) 사이에 쌓았고 순조 8년(1808)에 고쳐 지었다. 둘로 쌓은 대규모의 산성으로 둘레는 약 8.6km, 높이는 1.8~2.6m에 달한다.

② 산성은 보통 변란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군사 시설이다. 그러나 위봉산성에는 이외에도 유사시에 전주 경기전(사적 제339호)에 모신 태조 이성계의 어진(御眞)과 전주 이씨의 시조인 이한공의 위패를 옮겨서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이를 위해 산성 안에 행궁을 함께 만들었으며 이외에도 위봉사, 내성장, 장대, 위봉진, 장교청, 군기고 등도 설치하였다. 실제로 전주가 동학 농민군에게 함락되자 태조 어진과 위패를 이곳에 모셔 왔다. 하지만 행궁을 지은 지가 오래되어 어진과 위패를 행궁에 모시기에는 마땅치 않아 일시적으로 위봉사 대웅전에 모셨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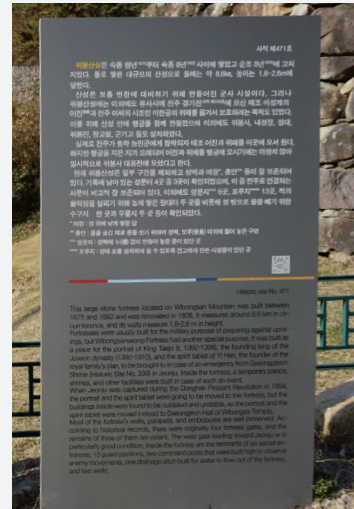
③ 현재 위봉산성은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성벽과 여장*, 총안** 등이 잘 보존되어 있다. 기록에 남아 있는 성문터 4곳 중 3곳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전주로 연결되는 서문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 이외에도 암문지*** 6곳, 포루지**** 13곳, 적의 움직임을 살피기 위해 높게 쌓은 장대터 두 곳을 비롯해 성 밖으로 물을 빼기 위한 수구지 한 곳과 우물지 두 곳 등이 확인되었다.

④* 여장 : 성 위에 낮게 쌓은 담

** 총안 : 몸을 숨긴 채로 총을 쏘기 위하여 성벽, 보루(堡壘) 따위에 뚫어 놓은 구멍

*** 암문지 : 성벽에 누(樓) 없이 만들어 놓은 문이 있던 곳

**** 포루지 : 성에 포를 설치하여 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든 시설물이 있던 곳



① 문화재 축조 시기와 규모 설명

② 기존 문안과 같은 내용이지만 문장을 정리하고 내용을 추가 하여 이해도를 높임

③ 기록과 현 상태를 교차 비교

④ 각주를 사용하여 전문용어를 풀이함



전주 남고산성

종 목 사적

지 역 전라북도 전주시

기존 문안

전주 남고산성

全州 南固山城

사적 ❶ 제294호

❶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고덕산 자락을 따라 쌓은 이 산성은 고덕산성으로도 부르며, 후백제의 견훤이 도성인 전주의 방어를 위해 쌓았다 하여 견훤성이라고도 한다. 현존하는 성벽은 임진왜란 때 왜군을 막기 위해 쌓은 것인데, 그 뒤 조선 순조 13년(1813)에 고쳐 쌓고 남고산성이라 했다. 남고산성 안에는 많은 주민이 살았으며, 동·서에 성문을 두고, 관아, 창고, 화약고, 군기고 등 각종 건물이 즐비했다. 산성 방어의 지휘소로 ❸ 남장대(南將臺)와 북장대(北將臺)를 두고, 남고사의 승려들이 산성 수호에 활용했다. 남고산성은 성벽이 많이 허물어졌는데, 현재 성의 둘레는 약 3km이다. 현재 성안에는 남고사와 ❹ 삼국지의 영웅 관우를 모신 관성묘(關聖廟) 그리고 산성의 시설 및 규모와 그 연혁을 기록한 남고진(南固鎭) 사적비가 있다.

사적 제 294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고덕산 자락을 따라 쌓은 이 산성은 고덕산성으로도 부르며, 후백제의 견훤이 도성인 전주의 방어를 위해 쌓았다 하여 견훤성이라고도 한다. 현존하는 성벽은 임진왜란 때 왜군을 막기 위해 쌓은 것인데, 그 뒤 조선 순조 13년(1813)에 고쳐 쌓고 남고산성이라 했다. 남고산성 안에는 많은 주민이 살았으며, 동·서에 성문을 두고, 관아·창고·화약고·군기고 등 각종 건물이 즐비했다. 산성 방어의 지휘소로 남장대(南將臺)와 북장대(北將臺)를 두고, 남고사의 승려들을 산성 수호에 활용했다. 남고산성은 성벽이 많이 허물어졌는데, 현재 성의 둘레는 약 3km이다. 현재 성안에는 남고사와 삼국지의 영웅 관우를 모신 관성묘(關聖廟) 그리고 산성의 시설 및 규모와 그 연혁을 기록한 남고진(南固鎭) 사적비가 있다.

Namgosanseong Fortress

This fortress is called "Godeok fortress" or "Gyeon Hwon fortress" because it was built in Godeok mountain and built by Gyeon Hwon, King of the Habaekje kingdom in order to defend Jeonju. The existing wall seen here was built to defend against the Japanese army. It was then repaired in 1813 and renamed Namgo fortress. Many civilians lived in the fortress and there were military barracks, storehouses, and armories. As commanding places, Namjangdae and Bukjangdae were mobilized to protect the fortress. Most of the walls have collapsed, and

❶ 지정번호 불필요

❷ 소재지 불필요

❸ 어려운 용어 사용

❹ 남고산성과 관우와의 관계성을
찾기 힘들므로 불필요한 정보로
느껴짐



문장이 산만하여 정리가
필요함

개선 문안

전주 남고산성

全州 南固山城

사적

① 전주 남고산성은 전주시 남쪽의 남고산 정상부와 골짜기를 감싸고 있는 산성이다. 후백제를 세운 견훤이 도성인 전주를 방어하기 위해 쌓았다고 하여 견훤산성이라고도 하며, 남고산의 주봉인 고덕산의 이름을 따서 고덕산성으로도 불린다.

② 남고산성의 정확한 축성 연도는 알 수 없으나 『세종실록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서 조선 전기에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조선 순조 13년(1813)에 산성을 고쳐 쌓아 남고산성이라 하고, 남고진*을 설치하였다. 현재 성문지**와 장대지*** 등의 방어 시설과 남고산성을 쌓은 경위를 기록한 남고진사적비가 있다.

③ 성의 둘레는 약 5.3km이며, 남쪽 성벽 구간 외에는 대부분 정비 복원하였다.

④ 남고산성은 천혜의 요새일 뿐 아니라, 동고산성 지역과 함께 전주의 남쪽 관문으로 전주 지역을 방어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그 의미가 크다.

⑤* 남고진(南固鎭) : 남고산성에 설치한 군사 행정 구역

** 성문지(城門址) : 성문이 있던 터

*** 장대지(將臺址) : 군대를 지휘하기 위한 건물인 장대가 있었던 자리

전주 남고산성

사적
Historic Site

전주 남고산성은 전주시 남쪽의 남고산 정상부와 골짜기를 감싸고 있는 산성이다. 후백제를 세운 견훤이 도성인 전주를 방어하기 위해 쌓았다고 하여 견훤산성이라고도 하며, 남고산의 주봉인 고덕산의 이름을 따서 고덕산성으로도 불린다.

남고산성의 정확한 축성 연도는 알 수 없으나 『세종실록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서 조선 전기에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조선 순조 13년(1813)에 산성을 고쳐 쌓아 남고산성이라 하고, 남고진*을 설치하였다. 현재 성문지**와 장대지*** 등의 방어 시설과 남고산성을 쌓은 경위를 기록한 남고진사적비가 있다. 성의 둘레는 약 5.3km이며, 남쪽 성벽 구간 외에는 대부분 정비 복원하였다. 남고산성은 천혜의 요새일 뿐 아니라, 동고산성 지역과 함께 전주의 남쪽 관문으로 전주 지역을 방어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그 의미가 크다.

*남고진(南固鎭): 남고산성에 설치한 군사 행정 구역
**성문지(城門址): 성문이 있던 터
***장대지(將臺址): 군대를 지휘하기 위한 건물인 장대가 있었던 자리



① 문화재의 위치와 별칭 설명

② 역사적 기록을 통한 축성 연대 추정하여 문안의 신뢰도를 높임

③ 문화재의 규모와 복원 현황 안내

④ 문화재의 역할 부각

⑤ 각주를 사용하여 전문용어를 풀이함



Q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 :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을 통해 사람들이 문화재 안내판을 더 많이, 더 이롭게 이용할 수 있는 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노후화되어 문안을 읽을 수 없는 안내판을 보면, 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도 떨어지고, 문화재 안내판에 대한 관심도 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필요한 정보가 담길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결과로 이어져 사람들이 문화재 안내판을 잘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충주 칠금동 제철유적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지 역 충청북도 충주시



신규 문안

충주 칠금동 제철유적

忠州 漆琴洞 製鐵遺蹟

충청북도 기념물

충주 칠금동 제철유적은 과거 철을 생산하던 유적지이다.
충주는 울산, 양양과 함께 고대 3대 철산지 중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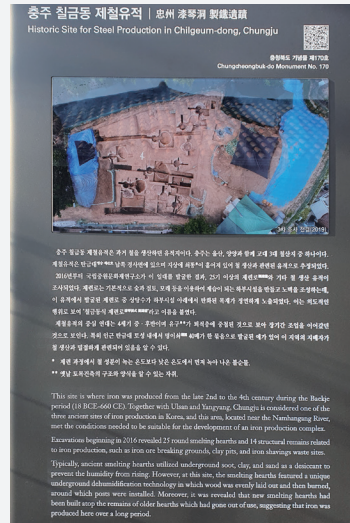
① 제철유적은 탄금대(명승 제42호) 남쪽 경사면에 있으며
지상에 쇠뚝*이 흩어져 있어 철 생산과 관련된 유적으로 추
정되었다.

② 2016년부터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가 이 일대를 발굴한
결과, 25기 이상의 제련로(製鍊爐)와 기타 철 생산 유적이 조
사되었다. 제련로는 기본적으로 숯과 점토, 모래 등을 이용하
여 제습이 되는 하부시설을 만들고 노벽을 조성하는데, 이 유
적에서 발굴된 제련로 중 상당수가 하부시설 아래에서 탄화
된 목재가 정연하게 노출되었다. 이는 의도적인 행위로 보여
'칠금동식 제련로(漆琴洞式 製鍊爐)'라고 이름을 붙였다.

제철유적의 중심 연대는 4세기 중·후반이며 유구**가 퇴적
층에 중첩된 것으로 보아 장기간 조업을 이어갔던 것으로 보
인다. 특히 인근 탄금대 토성 내에서 덩이쇠(鐵鉋) 40매가 한
묶음으로 발굴된 예가 있어 이 지역의 지배자가 철 생산과 밀
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쇠뚝 : 제련 과정에서 철 성분이 녹는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먼저 녹아
나온 불순물

** 유구 : 옛날 토목건축의 구조와 양식을 알 수 있는 자취



① 문화재 발굴 배경 설명

② 발굴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

· 최신 연구 성과반영

③ 각주를 사용하여 전문용어를 풀이함



창원 성산 패총

종 목 사적

지 역 경상남도 창원시

기존 문안

① 창원 외동 성산 패총

昌原 外洞 城山貝塚

사적 ② 제240호

③ 경상남도 창원시 외동

삼한시대의 사람들이 먹고 버렸던 조개껍질들이 총을 이루며 산처럼 쌓인 유적이다. 이 조개껍질층 속에서는 쓰고 버렸던 여러 가지 도구들도 포함되어 있고, 조개껍질층의 아래에서는 철기를 만들던 ④ 야철지(冶鐵地)도 확인되어, 당시 사람들의 생활고 역사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창원공업기지의 조성에 앞서 1974년에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주관으로 서울대학교박물관과 부산대학교박물관이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발굴조사에서 많은 종류의 토기와 철기, 뼈와 돌로 만든 골각기와 석기 등이 출토되었는데, 이러한 유물들은 전시관에 진열되어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조개껍질 층의 단면과 야철지는 별도의 시설을 만들어 보존하고 있다.

철 소재를 녹이고 두드려 각종 철기를 만들었던 야철지는 우리나라 남부에서 철기시대의 시작을 보여 주는 중요한 유적이다. 3세기 경에 편찬된 중국의 역사서 『삼국지』에는 남해안 지역에서 대량의 철이 생산되어 낙랑(樂浪)대방(帶方)과 일변열도의 왜까지 수출되었다고 전한다. 성산패총의 야철지는 이러한 역사의 한 부분을 보여 주는 유적으로,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업도시로 성장한 창원시의 역사적 근원이 되고 있다.



① 문화재 명칭 오류

② 지정번호 불필요

③ 소재지 불필요

④ 어려운 용어 사용



전체적인 설명이 잘 되어
있지만 어려운 단어 풀이와
정리가 필요함

개선 문안

창원 성산 패총

昌原 城山貝塚

사적

❶ 패총이란 고대 사람들이 먹고 버렸던 조개껍질이 무덤처럼 쌓인 유적을 의미한다.

❷ 성산패총은 1973년 창원기계공업단지 조성 공사가 시행되어 산을 깎는 과정에서 조개더미와 토기 조각들이 노출되어 문화재 관리국에서 1974년부터 발굴한 것이다. 패총 아래 철을 만들던 작업장과 삼한시대에 형성된 패총, 그 위에 쌓인 삼국시대의 성곽으로 구성되어 있다.

❸ 성산패총 아래 야철지*는 한반도 남부에서 철기시대의 시작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이다.

❹ 중국의 역사서인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는 한반도의 남해안 지역에서 대량의 철이 생산되어 낙랑, 대방과 일본까지 수출되었다고 전한다. 즉, 성산패총 아래 작업장에서 만들어진 철이 여러 나라에 수출된 것이다.

❺ 패총에서는 민무늬 토기, 반달돌칼, 가락바퀴, 한나라 오수전(五銖錢) 등의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출토 유물 중 가장 의미 있는 유물은 한나라 오수전이다. 한 무제(漢武帝, 기원 전 141~87 재위) 때 만들어진 오수전은 패총의 조성 시기 및 당시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국제 교류 관계를 시사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성산패총 위에 조성된 삼국시대의 성곽은 5세기 이후의 것으로 추정된다. 성곽에서는 당나라의 화폐인 개원통보(開元通寶) 등이 출토되었다.

성산패총은 삼한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당시 사람들의 생활과 역사를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며,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업도시 창원의 역사적 근원이 되고 있다.

❻ * 야철지(冶鐵址) : 철을 만들던 작업장

창원 성산 패총

昌原 城山貝塚
Shell Mound in Seongsan, Changwon

패총이란 고대 사람들이 먹고 버렸던 조개껍질이 무덤처럼 쌓인 유적을 의미한다. 성산패총은 1973년 창원기계공업단지 조성 공사가 시행되어 산을 깎는 과정에서 조개더미와 토기 조각들이 노출되어 문화재 관리국에서 1974년부터 발굴한 것이다. 패총 아래 철을 만들던 작업장과 삼한시대에 형성된 패총, 그 위에 쌓인 삼국시대의 성곽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산패총 아래 야철지*는 한반도 남부에서 철기시대의 시작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이다. 중국의 역사서인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는 한반도의 남해안 지역에서 대량의 철이 생산되어 낙랑, 대방과 일본까지 수출되었다고 전한다. 즉, 성산패총 아래 작업장에서 만들어진 철이 여러 나라에 수출된 것이다. 패총에서는 민무늬 토기, 반달돌칼, 가락바퀴, 한나라 오수전(五銖錢) 등의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출토 유물 중 가장 의미 있는 유물은 한나라 오수전이다. 한 무제(漢武帝, 기원 전 141~87 재위) 때 만들어진 오수전은 패총의 조성 시기 및 당시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국제 교류 관계를 시사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성산패총 위에 조성된 삼국시대의 성곽은 5세기 이후의 것으로 추정된다. 성곽에서는 당나라의 화폐인 개원통보(開元通寶) 등이 출토되었다. 성산패총은 삼한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당시 사람들의 생활과 역사를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며,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업도시 창원의 역사적 근원이 되고 있다.

* 야철지(冶鐵址) : 철을 만들던 작업장

❶ 문화재의 개념 설명

❷ 발굴 경위와 출토 내용 설명

❸ 해당 문화재의 중요성 부각

❹ 역사적 기록을 통한 문화재 가치 상기

❺ 출토 유물을 바탕으로 국제 교류 관계 설명

❻ 각주를 사용하여 전문용어를 풀이함



국민이 만드는 문화재 안내
문안 공모전 수상작 일부 반영

Q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일은 무엇인가요?

A : 안내판을 정비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란 의문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게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문안을 작성할 때 시민자문단의 의견을 듣거나 감수할 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며 안내판 정비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 :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안내판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안내판을 읽고도 이해가 안되었던 경우가 많았는데 정비를 하면서 안내판 속 어려운 용어들을 풀어쓰거나 각주를 달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Q 문화재 안내판 안내 문안 작성 혹은 안내판 제작 및 설치에 있어 담당자 선생님만의 팁이 있으신가요?

A : 기존에 설치된 사례들 중 안내판의 크기와 위치 등이 어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내판이 설치되었을 때 문화재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비슷한 설치 사례를 찾아보고 가장 어울릴 수 있는 안내판을 선정하여 제작했습니다.





고양 벽제관지

종 목 사적

지 역 경기도 고양시

기존 문안

고양 벽제관지

① 碧蹄館址

사적 ② 제144호

③ 소재지 : 고양시 덕양구 별제관로 34-16

이곳은 조선시대 역관(驛館)터로서 중국을 오가던 고관들이 머물던 곳이다.

조선시대에는 한양에서 중국으로 통하는 의주로에 역관이 10여 군데 있었는데, 한양에 들어가기 하루 전에 반드시 이곳 벽제관에 서 숙박하고 다음날 예의를 갖추어 들어가는 것이 관례였다. 또한 중국으로 가는 우리나라의 사신들도 이곳에서 머물렀다.

지금의 벽제관터는 인조 3년(1625년) 고양군의 관아를 옮기면서 지은 객관 자리로 일제 강점기에 건물의 일부가 헐렸고 6.25전쟁 때 삼문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 불타 버렸다. 그 후 객관의 삼문도 무너져서 현재는 터만 남아 있다. 건물의 중앙의 청사와 좌우의 익사로 구성되는데, 모두 정면 3칸, 측면 2칸이며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① 한자 표기 오류

② 지정번호 불필요

③ 불필요한 주소 기입



사실에 대한 설명만 있을 뿐
문화재에 대한 가치나 지정
이유에 대한 설명 부족

이렇게
바뀌었어요!



개선 문안

고양 벽제관지

高陽 碧蹄館址

사적

❶ 벽제관지는 조선 시대에 중국 사신이나 중국으로 가는 우리나라 사신이 머물던 객사(客舍)였던 벽제관이 있었던 곳이다. 중국 사신은 한양에 들어가기 하루 전에 이곳에 머물며 예의를 갖추는 것이 관례였다. 벽제관은 중국과 조선을 잇는 곳에 있으면서 당시 중국과의 외교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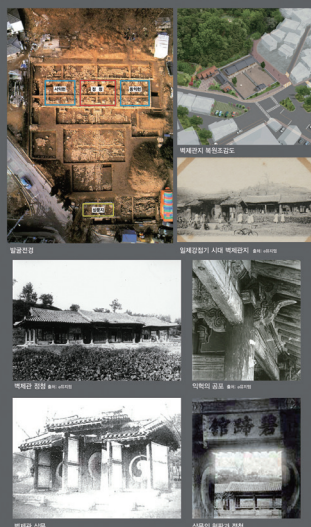
② 원래 벽제관은 성종 7년(1476), 이곳에서 서쪽으로 3km 떨어진 곳에 지어졌으나 선조 25년(1592)에 일어난 임진왜란으로 당시의 고양군청이 훼손되면서 인조 3년(1625)에 벽제관도 이곳으로 함께 옮겨졌다.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총독부가 원형을 훼손했고, 조선총독부 2대 총독인 하세가와는 벽제관의 부속 건물인 육각정을 불법으로 일본에 반출했다. 한국전쟁 때 건물과 담장이 소실되었으며 1960년대에는 삼문마저 허물어 없어졌다. 지금은 건물의 기둥을 받치던 돌의 일부만이 남아 있어 옛 흔적을 찾기가 힘들지만 지리적 위치로 인한 역사적 전부가 있었으며, 한중 외교사에 역사적인 의미가 있었던 장소였음을 인정받아 1965년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③ 고양시는 2021년 정밀 발굴 조사를 시행하여 기존에 파악되지 않았던 담장과 부속 건물의 자취를 발굴했다. 고고학적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벽제관의 원형을 정비·복원하고, 고양동의 잃어버린 역사성도 회복할 예정이다.

고양 벽제관지 高陽 碧蹄館址
Byeokjegwan Guesthouse Site, Goyang

벽제관지 전경

View of Byepkiegwan Guesthouse Site



1 백제관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설명

2 무화재 거립 시기와 현재까지

이어져 온 내력 소개

3 문화재의 발굴·정비·보수

현황 정보 제공

기존 안내판은 오래된 디자인으로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좋지 않습니다. 개선된 안내판은 가독성이 좋은 재질과 색상으로 변경하고 평균 성인의 키를 고려한 높이로 읽기 불편하지 않습니다. 또한 문화재 옛 모습을 알 수 있는 사진 자료와 현재 발굴진경 등을 첨부해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더불어 고양 벽제관지는 특별하게 아크릴을 사용한 **투영안내판을 제작하여 당시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복원도는 「고양 벽제관지 종합정비계획 수립 보고서((재)불교문화연구소, 2018)」를 근거로 하여 제작하여 역사적 사실에 오류를 최소화하려 노력했습니다.



범세동 선생 묘

종 목 광주광역시 기념물

지 역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존 문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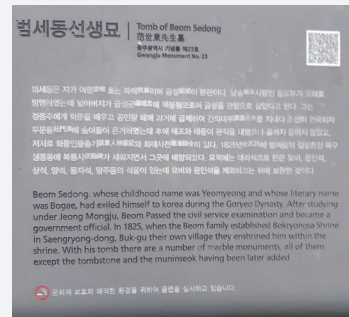
범세동선생묘

范世東先生墓

광주광역시 기념물 ① 제23호

② 범세동은 자가 여명(汝明) 호는 복애(伏崖)이며 금성(錦城)이 본관이다. 남송(南宋) 사람인 증조부가 고려로 망명하였는데 할아버지가 금성군(錦城君)에 책봉됨으로써 금성을 관향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는 정몽주에게 학문을 배우고 공민왕 때에 과거에 급제하여 ③ 간의대부(諫議大夫)를 지내다 조선이 건국되자 두문동(杜門洞)에 숨어들어 은거하였는데 후에 태조와 태종이 관직을 내렸으나 끝까지 응하지 않았고, ④ 저서로 화동인물총기(話東人物叢記)와 화해사전(華海師全)이 있다.

⑤ 1825년(순조25)에 범씨들의 집성촌인 북구 생룡동에 북룡사(伏龍祠)가 세워지면서 그곳에 배향되었다. 묘역에는 대리석으로 만든 묘비, 문인석, 상석, 양석, 동자석, 망주 등의 석물이 있는데 묘비와 문인석을 제외하고는 뒤에 보완한 것이다.



① 지정번호 불필요

② 어려운 전문용어 사용과 자와 호 등의 불필요한 정보 나열

③ 어려운 단어 사용, 단어 설명 필요

④ 저서의 소개나 학문적 기여를 설명하지 않아 불필요한 정보로 느껴짐

⑤ 불필요한 정보 기재



전체적으로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여 문안이 지루하게
느껴짐

개선 문안

범세동 선생 묘

范世東 先生 墓

광주광역시 기념물

고려시대의 학자이자 문신인 범세동(范世東)의 무덤이다.

- ① 범세동은 공민왕 18년(1369) 과거에 합격한 뒤 여러 관직을 지냈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왕조가 세워지자, 벼슬을 버리고 은거하다가 고향인 나주(지금의 광산구)로 돌아왔다. 이후 태종(1400~1418 재위)이 여러 차례 벼슬을 권하였으나 끝내 사양하였다고 한다.

봉분 앞에는 상석, 향로석, 묘비, 망주석, 문인석, 동자석, 석양 등의 다양한 석물이 있는데, 이중 묘비와 문인석만 무덤이 조성될 때 만들어진 것이고 나머지는 후대에 보충한 것이다. ② 봉분 왼쪽 앞에 있는 묘비는 화강암으로 만든 받침돌, 하나의 대리석으로 만든 몸돌과 머릿돌로 이루어져 있다.

③ 머릿돌에는 연잎을 엮어 놓은 무늬를 새겼는데, 이는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묘비에서 볼 수 있는 양식이다. 문인석은 각이 진 판모를 쓰고 있고, 얼굴은 이목구비가 뚜렷하며, 두 손은 가슴에 모아 홀*을 들고 있다.

- ④* 홀 : 조선 시대에 벼슬아치가 임금을 만날 때에 손에 쥐던 물건

범세동 선생 묘

范世東 先生 墓
Tomb of Beom Se-dong
1369 ~ 1418
Seonjo, Joseon



고려 시대의 학자이자 문신인 범세동(范世東)의 무덤이다. 범세동은 공민왕 18년(1369) 과거에 합격한 뒤 여러 관직을 지냈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왕조가 세워지자, 벼슬을 버리고 은거하다가 고향인 나주(지금의 광산구)로 돌아왔다. 이후 태종(1400~1418 재위)이 여러 차례 벼슬을 권하였으나 끝내 사양하였다고 한다.
봉분 앞에는 상석, 향로석, 묘비, 망주석, 문인석, 동자석, 석양 등의 다양한 석물이 있는데, 이중 묘비와 문인석만 무덤이 조성될 때 만들어진 것이고 나머지는 후대에 보충한 것이다. 봉분 왼쪽 앞에 있는 묘비는 화강암으로 만든 받침돌, 하나의 대리석으로 만든 몸돌과 머릿돌로 이루어져 있다.
머릿돌에는 연잎을 엮어 놓은 무늬를 새겼는데, 이는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묘비에서 볼 수 있는 양식이다. 문인석은 각이 진 판모를 쓰고 있고, 얼굴은 이목구비가 뚜렷하며, 두 손은 가슴에 모아 홀*을 들고 있다.
* 홀 : 조선 시대에 벼슬아치가 임금을 만날 때에 손에 쥐던 물건

This is the tomb of Beom Se-dong, a scholar and civil official of the Goryeo period (918-1392). Beom passed the state examination in 1369 and served various official posts. When Goryeo fell and the Joseon dynasty (1392-1910) was founded, he refused to serve the new dynasty, retired, and returned to his hometown in Naju (today's Gwangsan-gu). Later, King Tadjong (r. 1400-1418) offered Beom an official post several times, but Beom always refused.
The stone sculptures in front of the tomb include a table, an incense table, a tortoise, a pair of pillars, a pair of civil official statues, a pair of child attendants' statues, and a pair of dog statues. Only the tortoise and the civil official statues date to the time when the tomb was built. The other sculptures were later added by experts. In summary, the tombstone stands in front of the tomb to the left. It is carved in a single piece of granite, and its body stone and capstone are made of a single piece of marble slabs. The capstone was carved with patterns of double-lotus leaves, common found on tombstones from the early Joseon period. The civil official statues wear angular official's caps, have distinct facial features, and hold scepters in front of their chests with both hands.

① 묘주의 생년과 주요 공적 소개

② 문화재 구조 설명

③ 문화재의 주변 석물의 특징

설명

④ 각주를 사용하여 전문용어를

풀이함



마이산탑

종 목 전라북도 기념물

지 역 전라북도 진안군

기존 문안

1 마이산 석탑

2 전라북도 지방 기념물 제35호

3 소재지: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등촌리

마이산 석탑은 1885년에 입산하여 술잎 등으로 생식하며 수도한 이갑룡(李甲龍, 1860-1957 처사(處士)가 30여 년 동안 쌓아 올린 것이다.

이곳 탑사(塔寺)에는 당시에 120기의 탑들이 세워져 있었지만 현재에는 80기만 남아 있다.

4 대부분은 주변의 천연석으로 쌓아졌지만 천지탑 등의 주요 탑들은 전국 팔도의 명산에서 가져온 돌들이 한두 개씩 들어가 신묘한 정기를 담고 있다.

마이산 석탑은 섬세하게 가공된 돌들로 쌓아진 신라 왕조의 탑들과는 달리, 가공되지 않은 천연석을 그대로 이용했다.

5 '막돌허튼식'이라는 조형 양식으로 음양의 이치와 팔진도법이 적용된 이 탑들은 정성과 탁월한 솜씨로 쌓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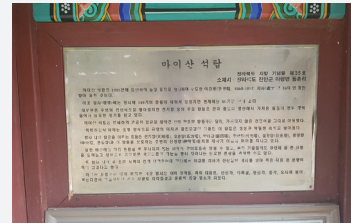
탑사 내의 탑군을 이르는 탑들은 천지탑(天地塔), 오방탑(五方塔), 약탑사(藥師塔), 월광탑(月光塔), 일광탑(日光塔), 중앙탑(中史塔, 흔들탑)과 이 탑들을 보호하는 주변의 신장탑(神將塔)들처럼 제각기 이름과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심한 바람에도 약간 흔들릴 뿐 무너지지 않는 탑에서 경이로움을 맛볼 수 있고,

6 특히 겨울철에도 탑단에 물을 올려놓고 성심으로 기도하면 역고드름이 하늘을 향해 자라나는 신묘한 현상을 관찰할 수도 있다.

또 탑사 내에 두 권의 서책이 전해 내려오는데 당시에는 이갑룡 처사가 산신들의 계시를 받아 적은 서른 권 분량의 책이 있었다고 한다.

마이산 도립공원 내에 위치한 이곳 탑사는 여러 유적들, 특히 대웅전, 산신각, 미륵불, 영신각, 종각, 요사채 등이, 복원되면서 명실상부한 전통 사찰로 자리 잡았고 훌륭한 관광 명소가 되었다.



1 문화재 명칭 표기 오류

2 · 종목 표기 오류

· 지정번호 불필요

3 소재지 불필요

4~5 명확하지 않은 정보로

문화재를 정의함

6 초자연적인 현상 기재로

문안의 신뢰도 하락

개선 문안

마이산탑

馬耳山塔

전라북도 기념물

① 마이산탑은 마이산 역암으로 이루어진 절벽을 배경으로 마이산 탑사 경내에 쌓여 있는 80여 기의 돌탑들을 가리킨다. 돌탑들의 건립 내력은 분명하지 않고 전설로만 전해져 온다. ② 조선 후기 이갑룡(李甲龍) 처사가 마이산 은수사(銀水寺)에서 수도하던 중 꿈에 신의 계시를 받고 이곳으로 이주하여 30여년 동안 혼자서 돌을 쌓아서 만들었다고 한다. 이갑룡 처사는 98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정성과 기도를 올리며 천지음양의 이치와 팔진도법*에 따라 탑을 쌓았다고 전한다. ③ 각 돌탑은 크고 작은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하여 서로 맞물리게 쌓은 것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위로 올라가게 하였고, 상부는 비슷한 크기의 돌들을 일렬로 올렸다.

탑의 높이는 1m이하부터 15m까지이며, 탑의 크기도 제각각이다. 주요 돌탑에는 천지탑, 오방탑, 약사탑, 월광탑, 일광탑, 중앙탑 등의 이름이 붙어 있다. 각 탑의 이름에는 나름대로의 의미와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고 한다.

천지탑은 마이산에서 기가 가장 강한 곳에 세워져 있다. 천지탑은 이갑룡 처사가 1930년경 3년 고행 끝에 완성한 2기의 탑으로, 오른쪽에 있는 탑이 양탑, 왼쪽에 있는 탑이 음탑이다. ④ 천지탑에서 기도를 하면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한다.

마이산의 특이한 암석 및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진 돌탑들은 마이산 볼거리 중에서도 으뜸으로 평가된다.

⑤* 팔진도법 : 중군을 중앙에 두고 사방에 각각 여덟 가지 모양으로 진을 친 진법

마이산탑 馬耳山塔

지정 종별 : 전라북도 기념물 제35호

마이산탑은 마이산 역암으로 이루어진 절벽을 배경으로 마이산 탑사 경내에 쌓여 있는 80여 기의 돌탑들을 가리킨다. 돌탑들의 건립 내력은 분명하지 않고 전설로만 전해져 온다. 조선 후기 이갑룡 처사가 마이산 은수사(銀水寺)에서 수도하던 중 꿈에 신의 계시를 받고 이곳으로 이주하여 30여년 동안 혼자서 돌을 쌓아서 만들었다고 한다. 이갑룡 처사는 98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정성과 기도를 올리며 천지음양의 이치와 팔진도법에 따라 탑을 쌓았다고 전한다.

각 돌탑은 크고 작은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하여 서로 맞물리게 쌓은 것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위로 올라가게 하였고, 상부는 비슷한 크기의 돌들을 일렬로 올렸다.

탑의 높이는 1m 이하부터 15m까지이며, 탑의 크기도 제각각이다. 주요 돌탑에는 천지탑, 오방탑, 약사탑, 월광탑, 일광탑 등의 이름이 붙어 있다. 각 탑의 이름에는 나름대로의 의미와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고 한다.

천지탑은 마이산에서 기가 가장 강한 곳에 세워져 있다. 천지탑은 이갑룡 처사가 1930년경 3년 고행 끝에 완성한 2기의 탑으로, 오른쪽에 있는 탑이 양탑, 왼쪽에 있는 탑이 음탑이다. 천지탑에서 기도를 하면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한다.

마이산의 특이한 암석 및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진 돌탑들은 마이산 볼거리 중에서도 으뜸으로 평가된다.

Pagodas in Maisan Mountain
Jeollabuk-do Monument No. 35

These 80-some pagodas at Tapas Temple in Maisan Mountain consist of countless natural stones piled on to create towers. In Korea, pagodas are typically built as large stone monuments to enshrine the relics of the Buddha, but these pagodas were made over time through a custom in which Buddhist believers add a rock to the pile while making a wish or prayer. These pagodas, together with the beautiful natural landscape and unusual rock faces, are considered one of the most scenic sites of Maisan Mountain.

It is unknown when these pagodas first began to be made at Tapas Temple, the name of which means "Pagoda Temple". It is said that the currently remaining pagodas were made over 30 years by a man named Yi Gap-ryong (1862-1952) after he received instructions to do so from a spirit in his dream. Within the temple complex, there is a statue and a stele to commemorate him.

The pagodas were made by stacking natural rocks of varying sizes to create a stable structure. The lowest tower at Tapas Temple, with the largest section consisting of rocks of a similar size stacked one on top of each other. The pagodas' circumferences are all different, and they measure from less than 1 m to 15 m in height. Some of the major pagodas have names, such as Cheonghap ("Pagoda of the Five Directions"), Yeonsaeng ("Pagoda of the Medicine Basket"), Wolsaengtap ("Pagoda of the Bright Moon"), and Gwanghap ("Pagoda of Bright Sun").

The most important pagoda in the complex is Cheonghap ("Pagoda of Heaven and Earth"), which is located on the high ground behind Daengjeon Hall and measures 13 m in height. It is presumed to have been made in the early 20th century. It is said that it is located on the place with the strongest energy in Maisan Mountain. It is flanked on its left and right by Eumgong ("Pagoda of No Energy") and Yanggong ("Pagoda of No Energy"). It, respectively, and surrounded by several small pagodas which seem to create a protective border. It is said that those who pray to Cheonghap Pagoda will have one of their wishes fulfill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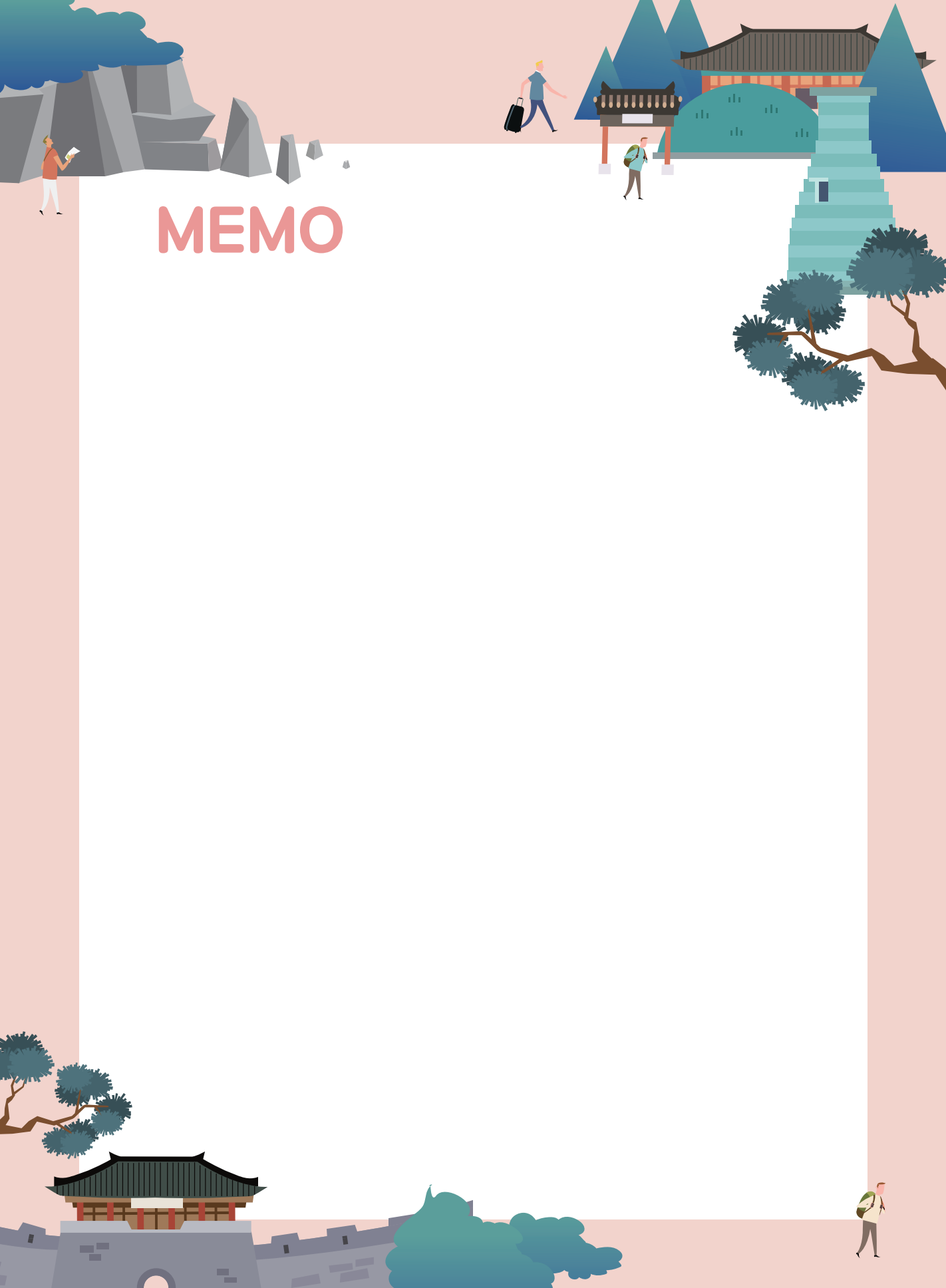
① 문화재 지정 정보 소개

② 문화재가 조성된 배경 설명

③ 문화재의 구조적 특징 설명

④ 흥미로운 정보로 관심을 유도

⑤ 각주를 사용하여 전문용어 설명



MEMO

2021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개선사례



불교문화재

불상 / 탑·부도 / 불화 / 불교 건축 /
절터 / 기타



암치리 선각석불좌상

종 목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지 역 전라북도 고창군

기존 문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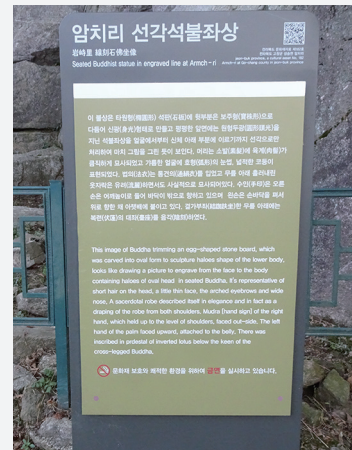
암치리 선각석불좌상

岩峙里 線刻石佛坐像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① 제182호

②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암치리

이 불상은 타원형(橢圓形) 석판(石板)에 윗부분은 ③ 보주형(寶珠形)으로 다듬어 신광(身光)형태로 만들고 평평한 앞면에는 원형두광(圓形頭光)을 지닌 석불좌상을 얼굴에서부터 신체 아래 부분에 이르기까지 선각으로만 처리하여 마치 그림을 그린 듯이 보인다. 머리는 소발(素髮)에 육계(肉髻)가 큼직하게 묘사되었고 가름한 얼굴에 호형(弧形)의 눈썹, 넓적한 코등이 표현되었다. 법의(法衣)는 통견의(通絹衣)를 입었고 무릎 아래 흘러내린 옷자락은 유려(流麗)하면서도 사실적으로 묘사되어있다. 수인(手印)은 오른손은 어깨높이고 들어 바닥이 밖으로 향하고 있으며 왼손은 손바닥을 펴서 위로 향한 채 아랫배에 붙이고 있다. 결가부좌(結跏趺坐)한 무릎 아래에는 복련(伏蓮)의 대좌(臺座)를 음각(陰刻)하였다.



① 지정번호 불필요

② 소재지 불필요

③ 전문용어 사용, 단어 설명 필요



• 전체적으로 전문용어를 사용하여 문안이 어렵게 느껴짐

• 문화재의 외적 설명이 주를 이룸

개선 문안

암치리 선각석불좌상

岩峙里 線刻石佛坐像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암치리 선각석불좌상은 얇고 편평한 타원형 돌판에 부처님이 앉아 있는 모습을 선으로 새긴 고려 시대 불상이다.

세월에 많이 지워져 본래 모습을 명확하게 알기는 힘드나 머리 주변에 3줄로 둥글게 새긴 두광(頭光)이 있다.

① 정수리에는 부처의 지혜를 상징하는 상투 모양의 육계(肉髻)를 새겼다. 얼굴은 닳아 알아보기 힘들지만, 양어깨를 모두 덮고 무릎 아래로 흘러내린 옷자락이 잘 표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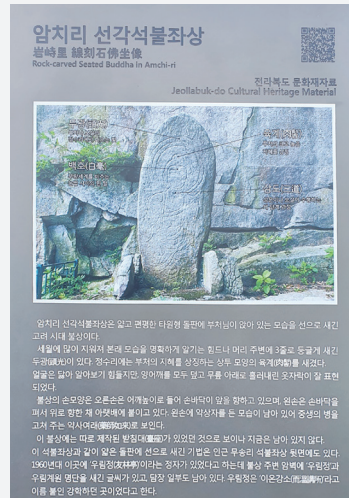
불상의 손모양은 오른손은 어깨높이로 들어 손바닥이 앞을 향하고 있으며, 왼손은 손바닥을 펴서 위로 향한 채 아랫배에 붙이고 있다.

② 왼손에 약사자를 든 모습이 남아 있어 중생의 병을 고쳐 주는 약사여래(藥師如來)로 보인다.

이 불상에는 따로 제작된 받침대(臺座)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③ 이 석불좌상과 같이 얇은 돌판에 선으로 새긴 기법은 인근 무송리 석불좌상 뒷면에도 있다.

④ 1960년대 이곳에 ‘우림정(友林亭)’이라는 정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불상 주변 암벽에 ‘우림정’과 우림계원 명단을 새긴 글씨가 있고, 담장 일부도 남아 있다. 우림정은 ‘이온강소(而溫講所)’라고 이름 붙인 강학하던 곳이었다고 한다.



① 전문용어를 풀이하여 설명

② 약사여래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

③ 동일한 기법으로 제작된 인근 문화재 소개

④ 문화재가 소재한 장소에 대한 다양한 쓰임새 소개



기존 문안에 비해 어려운 단어는 풀어 설명하여 읽기 쉬움



Q 이번에 『암치리 선각석불좌상』을 정비했는데, 해당 문화재 안내판 정비 시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무엇인가요?

A: 석불이 산 중턱에 있습니다. 올라가지 않아도 볼 수 있도록 사진을 넣어 산 아래쪽에 설치했습니다. 주변 문화재인 강학공간 터에 대한 이야기도 연관지어 문안을 작성했습니다.



고창 선운사 참당암 석조지장보살좌상

종 목 보물

지 역 전라북도 고창군

신규 문안

고창 선운사 참당암 석조지장보살좌상

高敞 禪雲寺 懺堂庵 石造地藏菩薩坐像

보물

① 지장보살은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교화하는 보살로 우리나라의 지장보살은 민머리에 지팡이를 짚고 여의주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② 하지만 고창 선운사 참당암 석조지장보살좌상은 머리에 두건을 썼다. 이런 모습은 대체로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유행하였는데, 앉아 있는 지장보살을 돌로 조각한 이 보살상도 이때 만들어진 것이다.

③ 이 지장보살좌상은 두건을 쓰고, 오른손에는 원하는 것을 이뤄준다는 여의주를 들었으며, 왼손은 무릎에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불교 그림에서 흔히 보이는 이런 모습을 조각상으로 정확하게 구현한 까닭에 당시 지장보살 신앙과 형태를 연구하는 데에 귀중한 자료이다.

④ 불상을 모신 받침대인 대좌(臺座)는 상대, 중대, 하대를 완전하게 갖추었는데, 지장보살상과 함께 만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지장보살좌상은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비례와 띠로 묶어 주름잡은 섬세한 두건의 표현 등이 조형적으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여의주를 든 두건 지장의 정확한 도상을 구현했다.

고창 선운사 참당암 석조지장보살좌상

高敞 禪雲寺 懺堂庵 石造地藏菩薩坐像

Stone Seated Kṛtyajñāna Bodhisattva at Chondangam Hermitage of Seonwon Temple, Gochang



보물
Treasure

지장보살은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교화하는 보살로 우리나라의 지장보살은 민머리에 지팡이를 짚고 여의주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하지만 고창 선운사 참당암 석조지장보살좌상은 머리에 두건을 썼다. 이런 모습은 대체로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유행하였는데, 앉아 있는 지장보살을 돌로 조각한 이 보살상도 이때 만들어진 것이다.

이 지장보살좌상은 두건을 쓰고, 오른손에는 원하는 것을 이뤄준다는 여의주를 들었으며, 왼손은 무릎에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불교 그림에서 흔히 보이는 이런 모습을 조각상으로 정확하게 구현한 까닭에 당시 지장보살 신앙과 형태를 연구하는 데에 귀중한 자료이다.

이 지장보살좌상은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비례와 띠로 묶어 주름잡은 섬세한 두건이 표현 등이 조형적으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여의주를 든 두건 지장의 정확한 도상을 구현했다. 이 지장보살상을 돌로 만든 것은 이 시기에 드물었는데, 이 지장보살상이 이런 인자지만 돌로 만들어져 문헌에서 인하는 지장보살상 거의 없어 당시 불교로 연구 자료를 귀하게 여겨진다.

불상, 조각지장보살은 고창 선운사를 중심으로 성행했다 지장 신앙을 잘 전해 주고, 조형적으로 우수하며 여의주를 든 지장보살의 모습을 잘 구현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The stone statue depicts the Kṛtyajñāna Bodhisattva, who is believed to grant wishes and enlighten sentient beings. In Korea, many Kṛtyajñāna Bodhisattvas are generally portrayed with shaven heads, holding a staff and a wish-fulfilling jewel. In contrast, the stone Seated Kṛtyajñāna Bodhisattva at Seonwon Temple wears a hairnet. This is a common feature found on Bodhisattvas during the late Goryeo (late 14th century) to early Joseon period (15th century). The statue was likely sculpted in the same period.

Kṛtyajñāna Bodhisattvas, seated in meditative poses, in wearing a hairnet. The crown is held on the right hand while the left hand is placed on the lap. These figures, which are often seen in Buddhist paintings, are accurately portrayed in stone, making them valuable resources for studying the faith and forms of Kṛtyajñāna Bodhisattvas at that time. Kṛtyajñāna sits on a rock-shaped pedestal which is carved of the stone. The statue and its base are made of the same stone.

The statue, which is made up of granite, is one of the few stone depictions of Kṛtyajñāna that have survived from the Joseon period. It is the only one of its kind in the country. The statue is highly valuable for research purposes. The Kṛtyajñāna Bodhisattva is a central figure in the Buddhist faith. The statue is a valuable resource for studying the faith and forms of Kṛtyajñāna Bodhisattvas at that time. The statue is a valuable resource for studying the faith and forms of Kṛtyajñāna Bodhisattvas at that time.

1 지장보살의 외적 특징 설명

2 보편적인 지장보살과 해당

문화재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동시에 이를 통한 연대 추정

3 문화재의 가치 설명

4 관람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려고 노력

5 이 시기에 금동 또는 나무로 만든 지장보살상이 여럿 전하지만 돌로 만들어져 온전하게 전하는 지장보살은 거의 없어 당시 불교조각 연구 자료로 가치가 매우 높다. 또한, 6 두건 지장보살은 고창 선운사를 중심으로 성행했던 지장 신앙을 잘 전해 주고, 조형적으로 우수하며 여의주를 든 지장보살의 모습을 잘 구현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5 문화재의 가치를 다시 한번

부각

6 문화재 특징 설명 및 관람

포인트 안내



Q 안내 문안 작성 과정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문화재마다 지정서가 존재합니다. 안내 문안 작성시 우선 지정서에 적힌 지정이유를 살펴보고 마인드맵 기법으로 꼭 들어가야 할 말을 정리한 뒤 살을 붙입니다. 문안을 작성할 때 관람객의 시선으로 작성하려 노력했고 ‘내가 읽기 어려우면 다른 사람도 읽기 어렵다’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쉽고 친절하게 쓰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문안이 완성되면 가독성이 좋은지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에게 의견을 수렴합니다. 저같은 경우, 고창이 고향이라 제 모교인 고창고등학교에 부탁드렸습니다. 학교의 역사나 문화 관련 선생님에게 문의를 드려 클럽시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 주셨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묻고자 문안이 적힌 종이와 빈종이로 구성된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학생뿐 아니라 시민자문단도 따로 두었는데 지역향토사학자, 역사 교사, 출판 관련 인물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느낌이 들어 동료선생님들, 공익, 심지어 지나가시는 시민에게도 설문을 받았습니다. 받은 설문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여 문안을 완성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에게 설문하는 것은 좋지만 말의 흐름이나 좋은 글이라고 느끼는 주관적인 관점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어느 선까지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담당자는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경주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

종 목 보물

지 역 경상북도 경주시

기존 문안

경주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

慶州 掘佛寺址 石造四面佛像

보물 ① 제121호

② 통일신라시대 8세기

③ 이 불상은 경주의 북쪽 산인 소금강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높이 약 3m의 커다란 바위에 여러 보살상을 조각한 사방불형태이다. 불상은 서쪽면에는 아미타삼존불, 동쪽면에는 약사여래좌상, 남쪽면에는 삼존입상이, 북쪽면에는 보살상 두 분이 새겨져 있는데 특히 북쪽면 보살상 중 한 분은 얼굴이 열하나, 팔이 여섯 달린 관세음보살입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것이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신라 경덕왕이 백률사를 찾았을 때 땅속에서 염불 소리가 들려왔다고 한다. 땅을 파 보니 이 바위가 나와서 바위의 사방에 불상을 새기고 절을 지어 굴불사라 불렀다고 한다. ④ 최근의 발굴조사에서 고려시대의 건물터가 확인되었다. ⑤ 출토유물 가운데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⑥ 금고에는 굴석사라는 명문이 있다.



① 지정번호 불필요

② 연대 기입 불필요

③ 불필요한 소재지 설명

④ 단순 발굴조사결과 소개로
문화재와의 연결성 설명 필요

⑤ 어디서 발견된 유물인지
해당 문화재와는 어떤 관계
가 있는지 설명 필요

⑥ 단어 설명 필요

Q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일은 무엇인가요?

A : 경주에는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 업무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안내 문안 등 사업 전반적인 사항을 세밀하게 살펴볼 시간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문화재 전문가 및 시민자문단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협업을 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개선 문안

경주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

慶州 掘佛寺址 石造四面佛像

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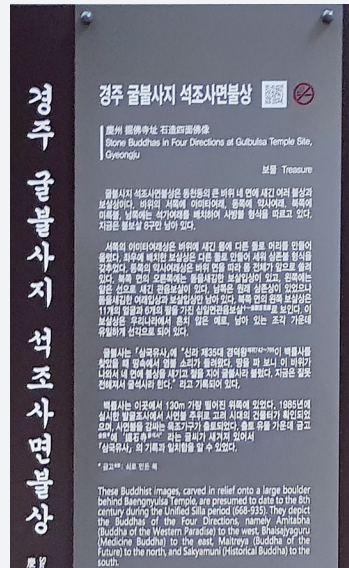
1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은 동천동의 큰 바위 네 면에 새긴 여러 불상과 보살상이다. 바위의 서쪽에 아미타여래, 동쪽에 약사여래, 북쪽에 미륵불, 남쪽에는 석가여래를 배치하여 사방불 형식을 따르고 있다. 지금은 불보살 8구만 남아 있다.

서쪽의 아미타여래상은 바위에 새긴 몸에 다른 돌로 머리를 만들어 올렸다. 좌우에 배치한 보살상은 다른 돌로 만들어 세워 삼존불 형식을 갖추었다. 동쪽의 약사여래상은 바위 면을 따라 몸 전체가 앞으로 쏠려 있다. 북쪽 면의 오른쪽에는 돌을새긴한 보살입상이 있고, 왼쪽에는 얇은 선으로 새긴 관음보살이 있다. 남쪽은 원래 삼존상이 있었으나 돌을새긴한 여래입상과 보살입상만 남아 있다. 북쪽 면의 왼쪽 보살상은 11개의 얼굴과 6개의 팔을 가진 십일면관음보살(十一面觀音菩薩)로 보인다. 2 이 보살상은 우리나라에서 흔치 않은 예로, 남아 있는 조각 가운데 유일하게 선각으로 되어 있다.

3 굴불사는 『삼국유사』에 “신라 제35대 경덕왕(재위 742~765)이 백률사를 찾았을 때 땅속에서 염불 소리가 들려왔다. 땅을 파 보니 이 바위가 나와서 네 면에 불상을 새기고 절을 지어 굴불사라 불렀다. 지금은 잘못 전해져서 굴석사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4 백률사는 이곳에서 130m 가량 떨어진 위쪽에 있었다. 1985년에 실시한 발굴조사에서 사면불 주위로 고려 시대의 건물터가 확인되었으며, 사면불을 감싸는 목조가구가 출토되었다. 출토 유물 가운데 금고(金鼓)*에 ‘掘石寺(굴석사)’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어서 『삼국유사』의 기록과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9* 금고(金鼓) : 쇠로 만든 북



1 문화재의 개념 설명과 현재

모습 소개

2 문화재의 특징과 가치 평가

3 사료의 기록된 내용을 온전

하게 안내 문안으로 반영함

• 사료의 기록을 알기 쉽게 설명

4 발굴조사와 출토유물을 통해

기록과 비교함으로써 신빙성을

높임

5 각주를 사용하여 전문용어를

풀이함



문단을 나눠 가독성을 높이고

쉬운 단어를 사용해 설명



하남 동사지 오층석탑

종 목 보물

지 역 경기도 하남시

기존 문안

하남 동사지 오층석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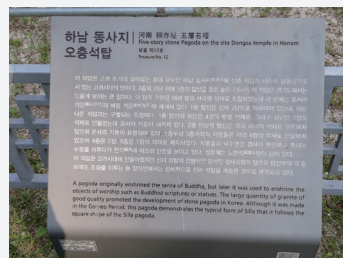
河南 桐寺址 五層石塔

보물 1 제12호

이 석탑은 고려 초기의 절터로는 최대 규모인 하남 동사지(桐寺址)에 삼층 석탑과 나란히 남동향으로 서 있는 고려시대의 탑이다. 2층의 기단 위에 5층의 탑신을 올린 높이 7.5m의 이 석탑은 경기도에서는 드물게 보이는 큰 탑이다. 이 탑의 기단은 여러 장의 사각형 석재로 조립하였는데 각 면에는 모서리 2기둥(隅柱[우주])과 버팀기둥(撐柱[탱주])이 새겨져 있다. 1층 탑신은 상하 2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다른 석탑과는 구별되는 특징이다.

3 1층 탑신의 하단은 4장의 방형 석재로, 그리고 상단은 1장의 석재로 만들었는데 모서리 기둥이 새겨져 있다. 2층 이상의 탑신은 각각 하나의 석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서리 기둥이 표현되어 있다. 1층부터 3층까지의 지붕돌은 각각 4장의 석재로 만들어져 있으며 4층은 2장, 5층은 1장의 석재로 제작되었다. 지붕돌의 낙수면은 경사가 완만하고 추녀는 수평을 이루다가 4 전각(轉角)에 이르러 반전을 보이고 있다. 상륜에는 5 노반석(露盤石)만이 남아 있다.

6 이 석탑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졌지만 신라 석탑의 전형적인 양식인 정사각형의 탑으로 탑신부의 각층 비례도 조화를 이루는 등 양식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신라 석탑을 계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 지정번호 불필요

2 불필요한 한자어 첨부

3 도면이나 그림설명 없이 탑의 구조적 특징을 나열하여 이해하기 어려움

4-5 어려운 단어 사용

6 신라 석탑의 양식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있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문호 재적 가치 설명

개선 문안

하남 동사지 오층석탑

河南 桐寺址 五層石塔

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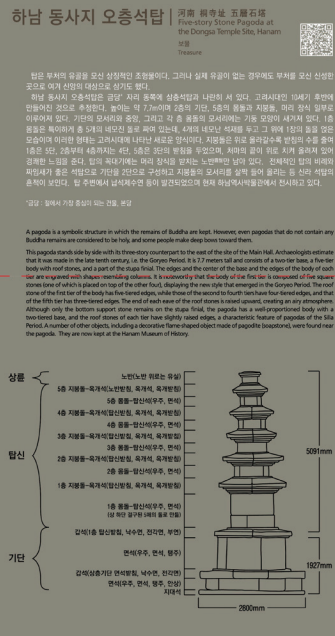
① 탑은 부처의 유골을 모신 상징적인 조형물이다. 그러나 실제 유골이 없는 경우에도 부처를 모신 신성한 곳으로 여겨 신앙의 대상으로 삼기도 했다.

하남 동사지 오층석탑은 금당* 자리 동쪽에 삼층석탑과 나란히 서 있다. 고려시대인 10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한다.

② 높이는 약 7.7m이며 2층의 기단, 5층의 몸돌과 지붕돌, 머리 장식 일부로 이루어져 있다. 기단의 모서리와 중앙, 그리고 각 층 몸돌의 모서리에는 기둥 모양이 새겨져 있다. 1층 몸돌은 특이하게 총 5개의 네모진 돌로 짜여 있는데, 4개의 네모난 석재를 두고 그 위에 1장의 돌을 얹은 모습이며 이러한 형태는 고려시대에 나타난 새로운 양식이다. 지붕돌은 위로 올라갈수록 받침의 수를 줄여 1층은 5단, 2층부터 4층까지는 4단, 5층은 3단의 받침을 두었으며, 처마의 끝이 위로 치켜 올라가 경쾌한 느낌을 준다. 탑의 꼭대기에는 머리 장식을 받치는 노반(露盤)만 남아 있다. 전체적인 비례와 짜임새가 좋은 석탑으로

③ 기단을 2단으로 구성하고 지붕돌의 모서리를 살짝 들어 올리는 등 신라 석탑의 흔적이 보인다. 탑 주변에서 납석 제수연 등이 발견되었으며 현재 하남역사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다.

④* 금당 : 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 본당



1 문화재의 기본 개념과 정의

설명

2 도면을 하단에 첨부하여

이해에 도움을 줌

· 시대적 특징 설명

3 고려시대 탑이지만 신라시대의

탑의 특징이 혼재함을 설명

4 각주를 사용하여 전문용어를

풀이함



Q 향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을 진행하시는데 고려사항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 사업 목적이 알기 쉽고 흥미로운 내용을 담은 안내판 개선사업인 만큼 시민자문단 계획할 때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고려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이나 도면을 더 활용할 수 있는 안내판을 기획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문 및 영문 감수 완료 시 안내판 제작업체와 사전 디자인, 배열, 구성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시안 작업을 완료하여 조기 설치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광주 성거사지 오층석탑

종 목 보물

지 역 광주광역시 남구

기존 문안

(전)광주 성거사지 오층석탑

傳 光州 聖居寺址 五層石塔

보물 ❶ 제109호

광주공원 안에 있는 고려 전기의 석탑으로 이 부근은 성거사(聖居寺)터라고 전해진다 이 광주공원은 원래 성거산(聖居山)이라 불렀는데, ❷ 산의 모양이 거북처럼 생겼으므로 광주를 떠나지 못하도록 등위치에는 성거사를 세우고 거북의 목 부근에는 5층석탑을 세웠다고 한다. 1단의 기단(基壇) 위에 5층의 탑신(塔身)을 세운 석탑으로 통일신라시대의 2단 기단 양식에서 기단을 1단만 두는 ❸ 고려시대로의 양식변화를 보여준다. 또 지붕돌 추녀와 몸돌의 앞맞은 비례감과, 위로 오르면서 줄어드는 비율이 크지 않아 전체적으로 높게 보이면서도 안정감이 있다. 가장 큰 특징은 1층 몸돌에서 나타난다. 즉 몸돌 전체를 아래위 2단으로 나누어 5개의 돌을 맞추고 있는데, ❹ 이러한 양식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고려시대에 흔히 나타나는 특색이다. 또한 지붕돌 밑면의 받침은 4단이고 각 귀퉁이는 아래위 모두 약간씩 치켜올려진 상태이다. 1961년 해체하여 보수할 때 2층 몸돌에서 사리공(舍利孔)과 사리장엄구가 발견되어 이 석탑의 연대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1층 몸돌과 3층 몸돌은 보수할 당시에 보충한 것이다.

(전)광주 성거사지 | Five-story Stone Pagoda at Seonggyosa Temple Site in Gwangju



전남광역시 남구 광주공원 안에 있는 고려 전기의 석탑이다. 광주공원은 원래 성거사(聖居寺)터라고 전해진다. 이 부근은 성거산(聖居山)이라 불렀는데, 산의 모양이 거북처럼 생겼으므로 광주를 떠나지 못하도록 등위치에는 성거사를 세우고 거북의 목 부근에는 5층석탑을 세웠다고 한다. 1단의 기단(基壇) 위에 5층의 탑신(塔身)을 세운 석탑으로 통일신라시대의 2단 기단 양식에서 기단을 1단만 두는 ❸ 고려시대로의 양식변화를 보여준다. 또 지붕돌 추녀와 몸돌의 앞맞은 비례감과, 위로 오르면서 줄어드는 비율이 크지 않아 전체적으로 높게 보이면서도 안정감이 있다. 가장 큰 특징은 1층 몸돌에서 나타난다. 즉 몸돌 전체를 아래위 2단으로 나누어 5개의 돌을 맞추고 있는데, ❹ 이러한 양식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고려시대에 흔히 나타나는 특색이다. 또한 지붕돌 밑면의 받침은 4단이고 각 귀퉁이는 아래위 모두 약간씩 치켜올려진 상태이다. 1961년 해체하여 보수할 때 2층 몸돌에서 사리공(舍利孔)과 사리장엄구가 발견되어 이 석탑의 연대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1층 몸돌과 3층 몸돌은 보수할 당시에 보충한 것이다.

❶ 사리장엄구, 사리공 발견에 의해 이 부근은 성거사(聖居寺)터라고 전해진다. 이 부근은 성거산(聖居山)이라 불렀는데, 산의 모양이 거북처럼 생겼으므로 광주를 떠나지 못하도록 등위치에는 성거사를 세우고 거북의 목 부근에는 5층석탑을 세웠다고 한다. 1단의 기단(基壇) 위에 5층의 탑신(塔身)을 세운 석탑으로 통일신라시대의 2단 기단 양식에서 기단을 1단만 두는 ❸ 고려시대로의 양식변화를 보여준다. 또 지붕돌 추녀와 몸돌의 앞맞은 비례감과, 위로 오르면서 줄어드는 비율이 크지 않아 전체적으로 높게 보이면서도 안정감이 있다. 가장 큰 특징은 1층 몸돌에서 나타난다. 즉 몸돌 전체를 아래위 2단으로 나누어 5개의 돌을 맞추고 있는데, ❹ 이러한 양식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고려시대에 흔히 나타나는 특색이다. 또한 지붕돌 밑면의 받침은 4단이고 각 귀퉁이는 아래위 모두 약간씩 치켜올려진 상태이다. 1961년 해체하여 보수할 때 2층 몸돌에서 사리공(舍利孔)과 사리장엄구가 발견되어 이 석탑의 연대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1층 몸돌과 3층 몸돌은 보수할 당시에 보충한 것이다.

❶ 지정번호 불필요

❷ 거북이가 떠나면 안되는 이유나
거북이의 의미 설명 필요

❸~❹ 고려시대의 양식을 산발적으로
설명해 혼란스러움

개선 문안

(전)광주 성거사지 오층석탑

傳光州 聖居寺址 五層石塔

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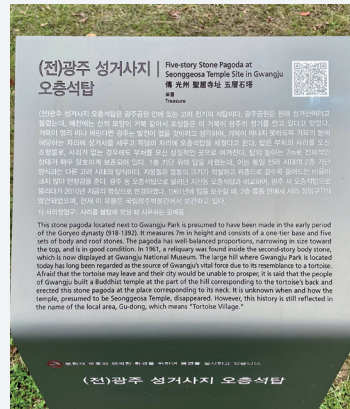
(전)광주 성거사지 오층석탑은 광주공원 안에 있는 고려 전기의 석탑이다. 광주공원은 원래 성거산이라고 불렸는데,

① 예전에는 산의 모양이 거북 같아서 조상들은 이 거북이 광주의 정기를 안고 있다고 믿었다. 거북이 멀리 떠나 버린다면 광주는 발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거북이 떠나지 못하도록 거북의 등에 해당하는 자리에 성거사를 세우고 목덜미 자리에 오층석탑을 세웠다고 한다. 탑은 부처의 사리를 모신 조형물로, 사리가 없는 경우에도 부처를 모신 상징적인 곳으로 여겨진다.

② 탑의 높이는 7m로 전체적인 상태가 매우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다. 1층 기단 위에 탑을 세웠는데, 이는 통일 신라 시대의 2층 기단 양식과는 다른 고려 시대의 양식이다. 지붕돌과 몸돌의 크기가 적절하고 위층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비율이 크지 않아 안정감을 준다.

3 광주 동 오층석탑으로 불리던 지산동 오층석탑과 비교하여, 광주 서 오층석탑으로 불리다가 2010년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1961년에 탑을 보수할 때, 2층 몸돌 안에서 사리 장엄구*가 발견되었으며, 현재 이 유물은 국립광주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4* 사리장엄구 : 사리를 불탑에 모실 때 사용하는 공예품



① 기존 문안에도 소개된 내용

하지만 당시 거북이의 의미를
설명하여 문화재가 세워진 배
경을 흥미롭게 소개

2 기존 문안의 고려시대 양식

내용을 한문장으로 정리하여
이해에 도움을 줌

3 문화재 명칭 변경사 소개

4 각주를 사용하여 전문용어를

풀이함

Q 무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일은 무엇인가요?

A : **소유자들과의 협의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지자체에서 생각하는 역사적 사실과 소유자들이 생각하는 역사적 사실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더불어 소유자들의 경우 건축물에 대한 개념보다 인물에 대한 설명을 많이 넣도록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여 사업 추진이 힘들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 충돌할 경우, 역사적 사실을 검토하고 소유자들의 의견도 반영하되 최대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표현하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Q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 : 누구나 알아보기 쉬운 안내 문안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 어려운 용어를 피하고 한자어나 전문건축 관련 용어를 쉬운 단어로 바꾸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Q 문화재 안내판 안내 문안 작성 혹은 안내판 제작 및 설치에 있어 담당자 선생님의 팀이 있으신가요?

A : 특별한 팀은 아니지만 안내 문안 작성 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문화재와 관계없는 구청 내 다른 직원들에게 보여주거나 주변의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청주 백족사 삼층석탑

종 목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지 역 충청북도 청주시

기존 문안

청주 백족사 삼층석탑

清原 白足寺 三層石塔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❶ 제59호

삼층석탑은 1940년대에 백족사 경내에서 발견하여 복원한 것으로 ❷ 기단부(基壇部)를 비롯하여 많은 부분이 결실되었다. 현재 자연석을 이용한 대석 위에 옥신(屋身)과 갑석(甲石)을 놓고 그 위에 3층의 탑신(塔身)을 올렸는데 1층 옥개석(屋蓋石) 이상은 원래의 부재가 남아 있다. 옥신에는 우주(隅柱)가 표현 되어 있고 옥개석에는 4단의 층급받침과 낙수홈이 조각되었으며, 지붕은 경사가 완만한 편이다. 3층 옥개석은 파손이 매우 심하여 처마부분이 모두 떨어져 나갔다. 상륜부(相輪部)는 모두 결실되어 모조한 장식물을 올려놓았다. 이 석탑은 규모가 작고 보존상태가 좋지 않으나, ❸ 고려시대에 제작된 단아하고 조각이 우수한 작품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❶ 지정번호 불필요

❷ 전문용어 사용. 단어 설명 필요

❸ 감상적 표현 불필요



전체적으로 전문용어를 사용
하여 문안이 어렵게 느껴짐

개선 문안

청주 백족사 삼층석탑

淸原 白足寺 三層石塔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백족사 삼층석탑은 청주 백족사 경내에 있는 고려 시대 석탑이다. 백족사 삼층석탑은 청주 백족사 경내에 있는 고려 시대 석탑이다.

① 이 석탑은 흩어져 있던 석탑 부재를 모아 1940년대에 복원한 것으로, 기단부와 상륜부 등 많은 부분이 없어진 상태이다. 사라진 기단부 대신 넓적한 자연석 위에 다른 탑의 몸돌을 올려 기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탑신부는 원래의 것이다. 탑신 몸돌 모서리 부분에는 기둥이 표현되어 있고, 지붕돌 아래쪽에는 지붕돌받침을 조각하였다. 탑의 꼭대기 상륜부 역시 원래의 것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이며, 현재는 모조하여 만든 장식물이 올려져 있다.

② 절이 있는 백족산에는 조선 시대 세조와 관련된 전설이 있다. 세조가 속리산으로 행차할 때 이곳에 잠시 멈춰 냇가에서 발을 씻자 세조의 발이 백옥같이 하얗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산의 이름을 백족산이라 불렀다고 한다. 백족사는 본래 ‘심진암尋眞庵’이라는 암자였으나 백족산의 이름을 따라 백족사로 바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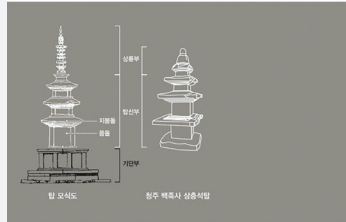
③ 청주 백족사 삼층석탑은 비록 원형이 많이 훼손되었으나, 남아 있는 부분에서 고려 시대 석탑의 특징이 두드러지는 학술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이다.

청주 백족사 | 淸原 白足寺 三層石塔
삼층석탑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백족사 삼층석탑은 청주 백족사 경내에 있는 고려 시대 석탑이다. 이 석탑은 흩어져 있던 석탑 부재를 모아 1940년대에 복원한 것으로, 기단부와 상륜부 등 많은 부분이 없어진 상태이다. 사라진 기단부 대신 넓적한 자연석 위에 다른 탑의 몸돌을 올려 기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탑신부는 원래의 것이다. 탑신 몸돌 모서리 부분에는 기둥이 표현되어 있고, 지붕돌 아래쪽에는 지붕돌받침을 조각하였다. 탑의 꼭대기 상륜부 역시 원래의 것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이며, 현재는 모조하여 만든 장식물이 올려져 있다.

절이 있는 백족산에는 조선 시대 세조와 관련된 전설이 있다. 세조가 속리산으로 행차할 때 이곳에 잠시 멈춰 냇가에서 발을 씻자 세조의 발이 백옥같이 하얗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산의 이름을 백족산이라 불렀다고 한다. 백족사는 본래 ‘심진암尋眞庵’이라는 암자였으나 백족산의 이름을 따라 백족사로 바꾸었다.

청주 백족사 삼층석탑은 비록 원형이 많이 훼손되었으나, 남아 있는 부분에서 고려 시대 석탑의 특징이 두드러지는 학술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이다.



① 현재 모습에 이르는 복원 현황

설명

② 관련 설화 소개와 명칭 변화

설명

③ 문화재적 가치 부각



불교문화재 | 불화



북고사 신중탱화

종 부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지 요 전라북도 무주군

기존 문안

북고사 신중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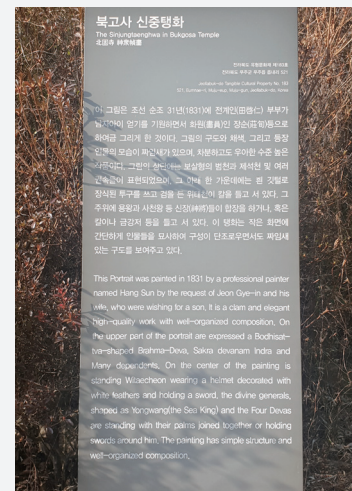
北固寺 神衆幀畫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① 제187호

②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521

이 그림은 조선 순조 31년(1831)에 전계인(田啓仁) 부부가 남자아이 얻기를 기원하면서 화원(畵員)인 장순(莊旬) 등으로 하여금 그리게 한 것이다.

③ 그림의 구도와 채색, 그리고 등장 인물의 모습이 짜임새가 있으며, 차분하고도 우아한 수준 높은 작품이다. 그림의 상단에는 보살형의 범천과 제석천 및 여러 권속들이 표현되었으며, 그 아래 한 가운데에는 흰 깃털로 장식된 투구를 쓰고 검을 든 ④ 위태천이 칼을 들고 서 있다. 그 주위에 용왕과 사천왕 등 ⑤ 신장(神將)들이 합장을 하거나, 혹은 칼이나 금강저 등을 들고 서 있다. 이 탕화는 작은 화면에 간단하게 인물들을 묘사하여 구성이 단조로우면서도 짜임새 있는 구도를 보여주고 있다.



① 지정번호 불필요

② 소재지 불필요

③ 감상적 표현 불필요

④ 어려운 용어 사용, 설명 필요



문화재의 외형 설명이 주를

이름

이렇게
바뀌었어요!



개선 문안

북고사 신중탱화

北固寺 神衆幀畵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① 신중탱화는 부처의 가르침을 수호하는 신들을 묘사한 그림이다. 신중탱화에 나오는 신들은 신묘한 능력으로 재앙을 쫓아주며 복을 주는 존재로 여겨진다.

② 북고사 신중탱화는 북고사 극락전에 모셔져 있다. 이 탱화는 순조 31년(1831)에 그려진 것으로 승려 화가인 장순(莊旬), 윤관(允寬), 호묵(護默), 민훈(敏訓) 등이 제작에 참여했다. ③ 전계인(田啓仁)과 부인 김 씨가 아들 얻기를 소원하면서 시주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비단에 채색한 신중탱화의 크기는 가로 116cm, 세로 139cm이다.

④ 화면은 상하 2단으로 구성돼 있으며, 중앙에는 흰 깃털 장식 투구를 쓰고 합장한 팔로 검을 받쳐 든 위태천*이 있다. 위쪽에는 제석천과 범천, 천동과 천녀, 명왕 2위와 보살 2위가 대칭을 이루며 배치돼 있고, 아래쪽에는 사천왕과 용왕이 그려져 있다. 구도는 단조로우면서도 짜임새가 있다. 인물들의 얼굴을 흰색으로 칠해 화면을 밝게 묘사하였는데 이는 19세기 전라도 지역 불화의 특징이다.

⑤* 위태천 : 불법을 지키는 신장(神將). 사천왕 가운데 남방 증장천의 여덟 신장의 하나이며, 삼십이천(三十二天)의 우두머리로 달음질을 잘한다고 한다.

북고사 신중탱화 北固寺 神衆幀畵

Buddhist Painting of Bukgosa Temple (Guardian Deities)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Jeollabuk-do Tangible Cultural Heritage

신중탱화는 부처의 가르침을 수호하는 신들을 묘사한 그림이다. 신중탱화에 나오는 신들은 신묘한 능력으로 재앙을 쫓아주며 복을 주는 존재로 여겨진다.

북고사 신중탱화는 북고사 극락전에 모셔져 있다. 이 탱화는 순조 31년(1831)에 그려진 것으로 승려 화가인 장순(莊旬), 윤관(允寬), 호묵(護默), 민훈(敏訓) 등이 제작에 참여했다. 전계인(田啓仁)과 부인 김 씨가 아들 얻기를 소원하면서 시주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비단에 채색한 신중탱화의 크기는 가로 116cm, 세로 139cm이다. 화단은 상하 2단으로 구성돼 있으며, 중앙에는 흰 깃털 장식 투구를 쓰고 합장한 팔로 검을 받쳐 든 위태천*이 있다. 위쪽에는 제석천과 범천, 천동과 천녀, 명왕 2위와 보살 2위가 대칭을 이루며 배치돼 있고, 아래쪽에는 사천왕과 용왕이 그려져 있다. 구도는 단조로우면서도 짜임새가 있다. 인물들의 얼굴을 흰색으로 칠해 화면을 밝게 묘사하였는데 이는 19세기 전라도 지역 불화의 특징이다.

*위태천 : 불법을 지키는 신장(神將). 사천왕 가운데 남방 증장천의 여덟 신장의 하나이며, 달음질을 잘한다고 한다.

This painting enshrined in Gyeongrakjeon Hall of Bukgosa Temple was made in 1831 by painter-monks Jangsun, Yungwan, Homuk, and Minhun and depicts guardian deities who protect the Buddha's teaching. Such guardian deities have an achieved religiousness like a bodhisattva or bodhisattva, but are believed to possess miraculous powers which allow them to prevent calamities and bring good fortune. It is said that a man named Jeon Gyeon and his wife Lady Kim donated the funds for this painting with the wish to have a son. The painting was done on silk and measures 116 cm in width and 139 cm in height.

The composition of the painting consists of an upper and lower section with the guardian deity Shanda depicted in the center wearing a helmet adorned with white feathers and holding his hands pressed together with a sword resting in the center of his bent elbows. Above him are two other deities, Indra and Brahma, with a divine youth and a divine female, two wise kings, and two bodhisattvas standing symmetrically on either side. Depicted below are the Four Great Kings with the Four Guardian Kings. Overall, the painting features a simple but well-arranged composition. The faces of the figures were painted white to brighten the painting, which is a common trait of 19th-century Buddhist paintings of the Jeolla-do region.

① 문화재의 개념 설명

② 제작 시기와 제작자 소개

③ 제작 이유와 시주자 소개

④ 문화재의 화면 구성과 특징 설명

⑤ 각주를 사용하여 전문용어를 풀이함

기존 안내판은 문화재와 동떨어져 있는 곳에 설치되어 있어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다. 반면 개선된 안내판은 문화재가 있는 건물 앞에 세워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고창 선운사 만세루

종 목 보물

지 역 전라북도 고창군

기존 문안

1 선운사 만세루

禪雲寺萬歲樓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53호

3 만세루는 백제 위덕왕 24년(577)에 검단 선사가 선운사를 짓고 남은 목재로 지었다고 전해진다. 선운사 만세루는 대웅전과 마주 보도록 개방되어 있으며 설법(불교의 가르침을 풀어 밝힘)을 하는 강당이다.

4 최근에는 방문객이 편안하게 선운산 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되었다.

5 선운사 만세루는 안팎으로 정제된 법식을 따르지 않은 독특한 건물이다. 만세루의 루(樓)는 누각<(樓閣)사방을 바라볼 수 있도록 문과 벽이 없이 다락처럼 높이 지은 집>을 뜻하지만 일반적인 누각의 모습이 아니라 넓은 평면에 비해 높이가 낮은 형태의 누각이다. 또한 보기에는 단순한 구조에 장엄한 외관이지만 내부 공간을 보면 부재(구조물의 뼈대를 이루는 데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여러 가지 재료)가 가지각색으로 휘어 있다. 부재를 다듬지 않은 채로 사용하기도 하고, 기둥 위아래를 다른 것으로 이어 사용한 것도 있다. 이러한 부재 사용 방법은 목재를 구하기 어려웠던 당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하나같이 온전한 것이라고는 없는 것들이 모여 이렇게도 멋진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 만세루의 멋 중 하나이다.

선운사 만세루

禪雲寺 萬歲樓
Manseru Hall of Seonunsa Temple

2020년 6월 1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206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보물 제 2065호

Treasure No. 2065

만세루는 백제 위덕왕 24년(577)에 검단 선사가 선운사를 짓고 남은 목재로 지었다고 전해진다. 선운사 만세루는 대웅전과 마주 보도록 개방되어 있으며 설법(불교의 가르침을 풀어 밝힘)을 하는 강당이다. 최근에는 방문객이 편안하게 선운산 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되었다.

선운사 만세루는 안팎으로 정제된 법식을 따르지 않은 독특한 건물이다. 만세루의 루(樓)는 누각<(樓閣)사방을 바라볼 수 있도록 문과 벽이 없이 다락처럼 높이 지은 집>을 뜻하지만 일반적인 누각의 모습이 아니라 넓은 평면에 비해 높이가 낮은 형태의 누각이다. 또한 보기에는 단순한 구조에 장엄한 외관이지만 내부 공간을 보면 부재(구조물의 뼈대를 이루는 데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여러 가지 재료)가 가지각색으로 휘어 있다. 부재를 다듬지 않은 채로 사용하기도 하고, 기둥 위아래를 다른 것으로 이어 사용한 것도 있다. 이러한 부재 사용 방법은 목재를 구하기 어려웠던 당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같이 온전한 것이라고는 없는 것들이 모여 이렇게도 멋진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 만세루의 멋 중 하나이다.

The name of this building, "Manseru (萬歲樓)," literally means "pavilion of ten thousand years." This building's rear side faces the main hall, Daewungjeon, and does not have any walls, making it optimal for viewing monastic lectures and ceremonies. It also serves as a place for tea ceremony lectures. Manseru was first constructed in 1620, and the current building was rebuilt in the late 19th century. As raw wood materials were used for pillars, beams, rafters, and other features of the structure, many parts of this building show natural curves and irregular shapes.

1 문화재 명칭 중 지역 표기 누락

2 지정번호 불필요

3 근거가 부족한 설명이 가장
앞머리에 놓여 문안 전체에
대한 신빙성이 낮아짐

4 불필요한 정보 기재

5 많은 정보를 소개하고 있지만
문장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음

6 감상적 표현 불필요

개선 문안

고창 선운사 만세루

高敞 禪雲寺 萬歲樓

보물

① 고창 선운사 만세루는 대웅보전 앞에 세워진 누각으로 예불과 설법(說法) 및 법회를 하는 공간으로 쓰였다. 정면 9칸 측면 2칸 규모의 일자집 맞배지붕 건물로 우리나라 사찰 누각 중에 규모가 가장 크다.

② 기록에 따르면 이 누각은 조선 광해군 12년(1620) 2층 이상의 대양루(大陽樓)로 지어졌으나, 1751년 불타서 영조 28년(1752)에 단층인 만세루를 다시 지었다고 한다.

③ 이 때문에 현재의 누각은 일반적인 누각 모습이 아닌 평면이 넓고 높이가 낮은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다.

④ 단순한 구조에 웅장한 모습이지만, 뼈대를 이룬 나무들 가운데에는 다듬지 않거나 기둥 위아래에 다른 것을 이어 사용한 것도 있다. 특히 마룻보 가운데 하나는 두 갈래로 갈라진 나무를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그 끝에 용머리를 조각해서 자연미를 살렸다. 이처럼 만세루는 목재를 구하기 어려웠던 당시 상황과 이를 극복한 장인들의 슬기로운 건축 솜씨가 돋보인다.

고창 선운사 만세루

高敞 禪雲寺 萬歲樓

Manseru Pavilion of Seonunsu Temple, Gochang



보물

Treasure

고창 선운사 만세루는 대웅보전 앞에 세워진 누각으로 예불과 설법(說法) 및 법회를 하는 공간으로 쓰였다. 정면 9칸 측면 2칸 규모의 일자집 맞배지붕 건물로 우리나라 사찰 누각 중에 규모가 가장 크다. 기록에 따르면 이 누각은 조선 광해군 12년(1620) 2층 이상의 대양루(大陽樓)로 지어졌으나, 1751년 불타서 영조 28년(1752)에 단층인 만세루를 다시 지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현재의 누각은 일반적인 누각 모습이 아닌 평면이 넓고 높이가 낮은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다. 단순한 구조에 웅장한 모습이지만, 뼈대를 이룬 나무들 가운데에는 다듬지 않거나 기둥 위아래에 다른 것을 이어 사용한 것도 있다. 특히 마룻보 가운데 하나는 두 갈래로 갈라진 나무를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그 끝에 용머리를 조각해서 자연미를 살렸다. 이처럼 만세루는 목재를 구하기 어려웠던 당시 상황과 이를 극복한 장인들의 슬기로운 건축 솜씨가 돋보인다.

Manseru Pavilion, located in the main courtyard of Seonunsu Temple, is used for holding Buddhist services and opening ceremonies held at the main worship hall, Daewungjeon. The name Manseru means "Pavilion of Ten-Thousand Years," which symbolizes eternal life. This pavilion was first built in 1620 as a two-story structure. After it burnt down in 1751, it was replaced with the current single-story temple building. In Korea, the use of the building, which shows the structural and typology of the which was the result of the scarcity of wood at the time and shows the structural and typology of the craftsmen that overcame the circumstances. For example, many of the wooden parts that form the building's frame were left in their natural curved and irregular shape, while some of the planks are made out of two shorter pieces of wood that were fastened together. Furthermore, one of the building's upper beams was made out of a trunk that split into two branches, the ends which were carved to look like dragon heads.

① 문화재의 개념과 규모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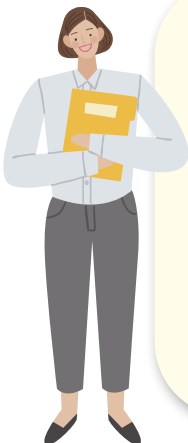
② 기록을 근거로 하여 문화재의 재건축 과정 설명

③ 문화재만의 독특한 특징 설명

④ 기존 문안의 내용을 정리하여 알기 쉽게 설명

Q 문화재 안내판 설치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 설치와 관련하여 크게 주의할 점은 없는 것 같네요.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안내판 설치에 있어서 안내판의 크기, 디자인, 재질 등 통일성 있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안내판 위치는 보통 문화재의 계단 옆이나 가운데에 두었습니다. 더불어 관람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안내판이 반드시 눈에 띄는 위치에 설치하고자 했습니다. 재질로는 비행기 합판이나 자동차 패널에 사용되는 두랄루민(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했습니다. 선택 이유는 유지 및 관리에 용이한가, 글씨가 잘 읽히는가, 햇빛 반사로 읽을 때 방해가 되지 않는가 등을 고려했습니다. 안내판은 야외에 노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나무 같은 재질은 훼손에 약하고 유통기한이 짧으며 내용 수정 시 재활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개인적으로는 잘 선택하지 않는 재질입니다. 여기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QR코드는 흰색 음각은 인식률이 좋지 않아 검은색으로 음각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안동 봉황사 대웅전

종 목 보물

지 역 경상북도 안동시

기존 문안

1 봉황사 대웅전

鳳凰寺 大雄殿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2 제141호

3 안동시 임동면 수곡리

4 이 건물은 원래 황산사의 대웅전이었으나 언제 개명되었는지 알 수 없다. 현재 대웅전과 요사채, 산신각이 있으나 예전에는 극락전, 범종각, 만세루 등 많은 건물이 있었다고 한다. 전하는 말로는 신라 선덕여왕 5 13(644)년에 창건되었다고 하며 북쪽 텃밭에 원래의 절터가 있었다고 한다. 현재 경내의 건물 2동은 후대에 옮겨 세운 것으로 북향의 급경사지에 세워져 있다.

규모는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산곡간의 법당으로 규모가 비교적 큰 편이다. 내부의 3칸 후면의 벽에 불상을 설치하였다. 기둥의 앞면과 뒷면의 모양이 서로 다른 것이 특이하다.

전설에 의하면 대웅전의 단청은 봉황이 하였다고 한다.

6 단청을 할 때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고 단청을 하였으나 전면을 마친 후 뒷면을 하는데 사람들이 몰래 쳐다보자 일을 다 마치지 않고 날아 가버렸다고 한다. 현재 후면은 단청이 되어 있지 않다.



1 문화재 명칭 중 지역 표기 누락

2 지정번호 불필요
(2020년 보물로 승격)

3 소재지 불필요

4 부정확한 정보 소개

5 연도 표기 오류

6 흥미로운 내용이지만 문장의 호흡이 길어 정리가 필요함
· 앞문장과 뒷문장 간의 연결
할 접속부사나 보조설명 필요

개선 문안

안동 봉황사 대웅전

安東 鳳凰寺 大雄殿

보물

① 대웅전은 석가모니불을 모시는 곳으로, 절의 중심이 되는 건물이다. 대웅전은 ‘세상을 밝히는 위대한 영웅을 모시는 전각’이라는 뜻이다. 봉황사는 신라 선덕여왕 13년(644)에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며, 대웅전은 17세기 후반 무렵 세워진 이후 여러 차례 수리를 했다. 정면 5칸, 측면 3칸이며, 법당으로는 규모가 비교적 큰 편이다.

② 전면 기둥은 중간이 배가 부르고 아래위로 가면서 점점 가늘어지도록 만든 배흘림기둥인데, 조선 후기의 건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양식이다. 대웅전의 외부 단청(丹靑)*은 근래에 다시 칠한 것이지만, 내부 단청은 17~18세기의 상태를 온전하게 보전하고 있다. 우물반자**에 그려진 용, 금박으로 정교하게 표현한 연화당초문***과 보상화당초문**** 등은 당시 단청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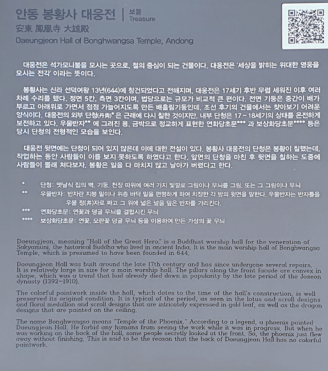
③ 대웅전 뒷면에는 단청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전설이 있다. 봉황사 대웅전의 단청은 봉황이 칠했는데, 작업하는 동안 사람들이 이를 보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앞면의 단청을 마친 후 뒷면을 칠하는 도중에 사람들이 몰래 쳐다보자, 봉황은 일을 다 마치지 않고 날아가 버렸다고 한다.

④* 단청 : 옛날식 집의 벽, 기둥, 천장 따위에 여러 가지 빛깔로 그림이나 무늬를 그림. 또는 그 그림이나 무늬

** 우물반자 : 반자란 지붕 밑이나 위층 바닥 밑을 편평하게 하여 치장한 각 방의 윗면을 말한다. 우물반자는 반자들을 우물 정(井)자로 짜고 그 위에 넓은 널을 덮은 반자를 가리킨다.

*** 연화당초문 : 연꽃과 덩굴 무늬를 결합시킨 무늬

**** 보상화당초문 : 연꽃, 모란꽃 덩굴 무늬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꽃 무늬



① 대웅전의 개념과 의미 설명

② 문화재의 특징과 가치 부각

③ 기존 문안에도 있는 내용으로 문장을 수정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다시 작성

④ 각주를 사용하여 전문용어를 풀이함

Q 안동 문화재 안내판에 특징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QR코드가 있는 문화재 안내판 인터뷰 수록)

A : 안동시는 세계문화유산 하회마을, 도산서원, 병산서원을 비롯해 중요무형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문화재에 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안내판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기존 안내판은 어려운 용어, 일관성 없는 디자인,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디자인 등으로 관람객의 만족도가 높지 않아 2019년부터 현재까지 안내판을 새롭게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어린이용 QR코드를 부착한 영상안내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안내판은 2020년 대구교육대학교 안동부설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어려운 말은 쉽게 풀이하고 호기심을 일으킬 수 있는 안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기존 안내판에 어린이용 안내 QR코드를 부착하고 유튜브 영상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운영하다 올해는 학생 관람객이 많이 찾는 문화재 중심으로 안내 영상을 확대·보급할 예정입니다. 제작 후 어린이들의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신들이 제안한 사업이 시에 반영되니 기쁘다는 후기를 보내었습니다.

<KBS 안동 라디오 - 즐거운 라디오 여기는 안동입니다. 2021년 1월 27일 방송 발췌>





경주 감은사지

종 목 사적

지 역 경상북도 경주시

기존 문안

경주 감은사지

慶州 感恩寺址

사적 1 제31호

감은사는 신라 문무왕이 삼국을 통일한 뒤 왜구의 침략을 막고자 이곳에 절을 세우기 시작하여 신문왕 2년(682)에 완성된 절이다. 감은사에는 죽어서도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는 문무왕의 유언에 따라 동해의 대왕암에 장사 지낸 뒤, 용이 된 부왕이 드나들 수 있도록 금당 밑에 특이한 구조로 된 공간이 만들어져 있다.

2 금당 앞에 동서로 마주 보고 서 있는 삼층석탑은 높이가 13.4m로 장대하다. 상층석탑은 이중 기단 위에 몸체돌을 올린 모습으로 처마밑은 받침이 5단이며, 지붕 위는 곡면을 이루어 통일 신라기의 전형적인 양식을 보인다. 1959년 12월 서탑을 해체 보수할 때 3층 몸돌에서 건립 당시 설치하였던 매우 정교하고 귀중한 사리장치가 발견되었다. 1966년에 동탑을 해체·보수하였는데, 3층 지붕돌의 상면 사리공에서 금동사리함이 발견되었다. 경주에 있는 3층 석탑으로는 가장 거대하며, 옛 신라의 탑 중심에서 삼국통일 직후 쌍탑으로 변모한 최초의 가람배치를 보이고 있다.



1 지정번호 불필요

2 감은사지의 설명보다 탑의 설명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함



전반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정보는 좋으나 단락을 나누고 정리가 필요함

개선 문안

경주 감은사지

慶州 感恩寺址

사적

감은사는 동해에서 신라 수도 경주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에 세워진 절이다. 이곳에는 삼층석탑 2기와 금당, 강당 등의 건물터만 남아 있다.

① 문무왕이 삼국을 통일한 뒤 부처의 힘을 빌려 왜구의 침략을 막고자 동해 바다에서 경주로 가는 길목인 이곳에 절을 창건하였고, 이후 신문왕 2년(682)에 완성하였다. 문무왕은 “내가 죽으면 바다의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고자 하니 화장하여 동해에 장사지내 달라.”라고 유언하였는데, 그 뜻을 받들어 장사지낸 곳이 대왕암이고, 그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으로 절 이름을 감은사라 하였다.

② 감은사는 금당, 강당, 중문이 한 줄로 배치되어 있다. 금당 앞에 쌍탑이 있고 건물들을 회랑으로 두른 통일 신라의 전형적인 가람 배치를 보여 준다. 금당 밑에는 배수 시설이 있어 동해의 용이 된 문무왕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한다.

이곳은 문무왕의 명복을 빌기 위한 원찰*이자 호국사찰**, 성전***이 설치되었던 사찰이었지만, 창건 이후 절의 역사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③* 원찰(願刹) : 사찰 가운데 창건주가 자신의 소원을 빌거나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건립하는 불교건축물. 원당·내불당·내원당이라고도 한다.

** 호국사찰(護國寺刹) : 부처의 공덕으로 나라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고자 건립한 사찰. 또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찰

*** 성전(成典) : 신라 시대에 왕실의 사원을 관리하던 관청의 명칭



① 감은사지 창건 배경과 의미를 흥미롭게 설명

② 문화재만의 독특한 구성 설명

③ 각주를 사용하여 전문용어를 풀이함

Q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 :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관람객이 읽기 쉬운 안내 문안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1차 초안은 쉽고 간략한 안내문에 치중하다 내용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이 작성했습니다. 1차 초안에서는 객관적 사실 확인 및 새로운 연구 성과를 보완하는 등 학계의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문화재청의 안내 문안 작성가이드 라인을 준수하면서 경주의 정체성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문화재 안내판에서 부족한 상세설명 은 일괄적으로 QR코드를 부착하여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과 연계시켜 해결했습니다.





경주 황룡사지

종 목 사적

지 역 경상북도 경주시

기존 문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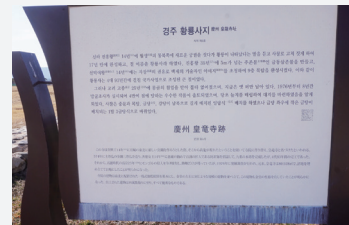
경주 황룡사지

慶州 皇龍寺址

사적 1 제6호

신라 진흥왕 14년(553) 월성의 동북쪽에 새로운 궁궐을 짓다가 황룡이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사찰로 고쳐 짓게 하여 절 이름을 황룡사라 하였다고 한다. 574년에 주존불인 금동 삼존불을 만들고, 선덕여왕 14년(645)에 자장의 권유로 백제의 기술자인 아비지를 초청하여 9층 목탑을 완성시켜 4대 93년간에 걸친 공사를 마무리했다. 이후 고려 고종 25년(1238)에 몽고의 침입을 받아 불타버린 후, 옛터만 남아 있던 것을 사적 내 민가 100여호를 이주시키고 1976년 경주 고적발굴조사단에서 8년간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원래 황룡사 대지는 80,928㎡에 달하는 높지를 매립하여 마련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사찰의 건물은 남북으로 일탑식 절 배치를 기본으로 하고, 금당의 좌우에 거의 같은 규모의 건물이 나란히 세워져 이 건물 역시 금당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2 출토된 유물은 4만여 점에 달하며 모두 우수한 작품들이다.



1 지정번호 불필요

2 출토된 유물의 어떤 부분이
우수한지에 대한 설명 필요



전반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정보는 좋으나 단락을 나누고

읽기 쉽게 정리할 필요가 있음

개선 문안

경주 황룡사지

慶州 皇龍寺址

사적

황룡사는 경주 중심부에 위치한 신라 최대의 사찰이다.

① 진흥왕 14년(553) 월성 동북쪽에 궁궐을 조성하다가 황룡이 나타나자 사찰로 고쳐 지었다고 한다.

② 이후 장육존상*을 봉안하기 위한 금당을 지었고, 선덕여왕 12년(645)에 구층목탑을 건립하면서 완성되었다. 이처럼 황룡사는 93년에 걸친 대규모 국가사업으로 완성된 사찰이다.

③ 황룡사는 중문과 목탑, 금당, 강당이 남북으로 놓여 있다. 금당의 좌우에 작은 금당을, 탑의 좌우에 경루(經樓)와 종루(鐘樓)를 대칭으로 배치하고 주위 사방을 회랑(回廊)으로 둘렀다. 금당은 금동삼존불을 모시기 위해 진평왕 6년(584)에 새로 지었다. 인도의 아소카왕(阿育王)이 삼존불상을 만들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황금과 황철을 배에 실어 보냈는데, 이 재료로 신라에서 금동삼존불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후 선덕여왕 12년(643)에 당나라에서 돌아온 자장이 신라의 위용을 보여 줄 수 있는 거대한 구층탑을 세워 외적의 침입을 막을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백제 기술자인 아비지(阿非知)를 불러 공사를 시작하자 2년 만에 황룡사 구층목탑을 완공하였다. 경덕왕(742~765 재위)대에는 황룡사 대종이 완성되었다. 구층목탑은 낙뢰와 같은 사고가 있을 때마다 고쳐 지었는데, 고려 고종 25년(1238) 몽골 침입 때 황룡사와 함께 소실되었다.

신라삼보** 가운데 두 개의 황룡사가 있을 정도로 황룡사는 신라를 상징하는 큰 사찰이었다. 이 밖에도 왕실의 사원을 관리하던 관청인 성전(成典)이 설치될 만큼 황룡사는 국가관리 사찰로, 호국사찰로 위상이 높았다.

④ 1976년부터 8년 동안 발굴 조사한 결과, 원래 늪지대였던 곳을 매워 절터를 만들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4만여 점에 달하는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유물 가운데 높이 182cm의 대형 치미***는 황룡사 건축의 웅장한 규모를 짐작하게 한다.

⑤* 장육존상(丈六尊像) : 사람 키를 보통 8척이라 하는데 그 배수인 16척의 크기로 만든 불상, 16척이 1장 6척이므로 장육이라 부른다.

** 신라삼보(新羅三寶) : 신라 왕실의 권위와 호국을 상징하는 세 가지 보물, 진평왕의 천사옥대(天賜玉帶, 하늘로부터 받았다는 허리띠), 진흥왕대의 황룡사 장육존상, 선덕여왕대의 황룡사 구층목탑

*** 치미(鷄尾) : 고대의 목조건축에서 용마루의 양 끝에 높게 부탁하던 장식기와



① 흥미로운 장면 배경과 시기 설명

② 기록을 통해 황룡사를 구성하고 있는 건물의 건립 기간 설명

③ 앞서 간단하게 설명했던 구성과 건립 기간 등을 내용을 첨가하여 자세히 설명

④ 발굴 조사 결과와 출토 유물 설명으로 해당 문화재의 상당했던 규모 추측

⑤ 각주를 사용하여 전문용어를 풀이함

Q 이번에 『경주 감은사지』, 『경주 황룡사지』를 정비했는데, 해당 문화재 안내판 정비 시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무엇인가요?

A : 『경주 감은사지』, 『경주 황룡사지』는 관람객의 흥미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가람 배치도를 안내판에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시각 자료를 안내판에 사용하여 관람객에 쉽게 다가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화천 계성리 석등

종 목 보물

지 역 강원도 화천군

기존 문안

화천 계성리 석등

華川 啓星里 石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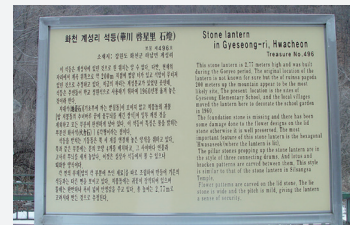
보물 ① 제496호

② 소재지: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계성리

③ 이 석등은 계성사에 있던 것으로 원 위치는 알 수 없다. 다만, 현재의 자리에서 계곡 위쪽으로 약 200m 지점에 범당 터가 있고 석탑이 무너져 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금의 자리는 계성분교가 있었던 곳인데, 석등은 주민들이 학교 정원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60년 옮겨 놓은 것이라고 한다.

④ 지대석(地臺石)[기초부에 까는 받침돌]이 보이지 않고 지붕돌의 귀꽃[탑 지붕돌의 추녀마루 끝에 꽃무늬를 새긴 장식]이 일부 깨진 것을 제외하고 모든 부분이 완전하게 남아 있다. 이 석등의 특징은 불을 밝히는 부분인 ⑤ 화사석(火舍石) 6각형이라는 점이다. 석등을 받치는 기둥돌은 북세 개를 연결해 놓은 양식을 취하고 있다. 북과 같은 부분에는 문의 모양 4개를 배치하고, 그 사이마다 연꽃과 고사리 무늬를 새겨 놓았다. ⑥ 이것은 실상사 석등에서 볼 수 있으나 퇴화한 양식이다.

각 면의 부재[탑의 각 부분에 쓰인 재료]를 따로 조립하여 만들어 기존의 석등과는 다른 면을 보이고 있다. 지붕돌에는 귀꽃이 장식되어 있으며 물매는 완만하나 폭이 넓어 안정감을 주고 있다. 총 높이는 2.77m로 고려시대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① 지정번호 불필요

② 소재지 불필요

③ 부정확한 정보 소개

· 문화재의 연혁을 장황하게 설명함

④~⑤ 어려운 용어 설명을 소괄호와 대괄호를 연속적으로 사용하여 정리가 필요함

⑥ 실상사 석등이나 문양의 양식 등의 기본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려움



필요한 내용을 담았으나 전체적으로 정리가 필요해 보임

개선 문안

화천 계성리 석등

華川 啓星里 石燈

보물

① 화천 계성리 석등은 고려 시대 초기에 만들어진 석등이다. 원래 지금 있는 자리에서 세워 있던 200m 지점인 계성사의 옛 절터에 있었는데 1960년대 지금의 위치로 옮겨졌다.

② 높이는 2.77m이며, 지붕돌의 귀꽃 일부가 깨진 것을 제외하고 모든 부분이 완전하게 남아 있다. 석등을 받치는 기둥은 장구와 닮은 원통 모양으로, 위와 아래, 중간에 굽은 마디가 있고 그 사이사이에 연꽃과 고사리 문양을 새겨 놓았다. 석등을 이루는 부분들을 따로 만들어 조립한 것이 보통 석등과는 다르다.

③ 화천 계성리 석등의 가장 특별한 점은 석등에 불을 밝히는 부분인 화사석의 모습이다. 일반적으로 신라 시대의 석등은 8각, 고려 시대의 석등은 4각인데 화천 계성리 석등의 화사석은 6각으로 매우 독특하다. 6각형 석등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화천 계성리 석등 | 華川 啓星里 石燈

Stone Lantern in Gyesong-ri, Hwachon

보물

Treasure

화천 계성리 석등은 고려 시대 초기에 만들어진 석등이다. 원래 지금 있는 자리에서 세워 있던 200m 지점인 계성사의 옛 절터에 있었는데 1960년대 지금의 위치로 옮겨졌다. 높이는 2.77m이며, 지붕돌의 귀꽃 일부가 깨진 것을 제외하고 모든 부분이 완전하게 남아 있다. 석등을 받치는 기둥은 장구와 닮은 원통 모양으로, 위와 아래, 중간에 굽은 마디가 있고 그 사이사이에 연꽃과 고사리 문양을 새겨 놓았다. 석등을 이루는 부분들을 따로 만들어 조립한 것이 보통 석등과는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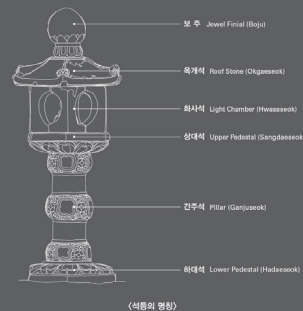
화천 계성리 석등의 가장 특별한 점은 석등에 불을 밝히는 부분인 화사석의 모습이다. 일반적으로 신라 시대의 석등은 8각, 고려 시대의 석등은 4각인데 화천 계성리 석등의 화사석은 6각으로 매우 독특하다. 6각형 석등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Stone lanterns are placed in Buddhist temples to be used for light offerings to the Buddha. They are typically placed in front of the main worship hall or a pagoda.

This stone lantern in Gyesong-ri is believed to have been made during the early period of the Goryeo dynasty (918-1392). Originally, it stood at the site of Gyesongsang Temple, which is located about 200 m up the valley from its current location. It was moved to its current location in the 1960s.

It measures 2.77 m in height and consists of a pedestal, a cylindrical pillar, a light chamber with six openings, a roof stone, and a decorative top shaped like a lotus leaf. Each part of the stone lantern was made separately and then assembled. All parts remain intact apart from some broken flower-shaped decorations at the corners of the roof stone. The pillar is designed with three modules and engraved with lotus flower and fern designs.

This stone lantern is special in that its light chamber is hexagonal. Generally, light chambers of stone lanterns are either octagonal, as was common in the Silla period (57 BCE-935 CE), or rectangular, as was common in the Goryeo period.



① 문화재의 연대와 연혁을 간결하게 설명

② 석등 도면을 삽입하여 이해에 도움을 줌

③ 문화재의 특징과 가치를 드러냄



분황사 석정

종 목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지 역 경상북도 경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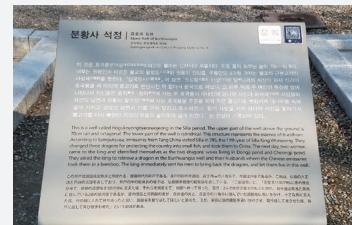
기존 문안

분황사 석정

分皇寺 石井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① 제9호

이것은 ② 호국룡변어정(護國龍變魚井)이라고도 불리는 신라시대 우물이다. 우물틀의 외부는 높이 70cm의 8각, 내부는 원형인데 이것은 불교의 팔정도(八正道)와 원융의 진리를, 우물 안의 4각형 격자는 불교의 근본 교리인 사성체(四聖諦)를 뜻한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보면 ‘원성왕(元聖王) 11년(795)에 당나라의 사신이 와서 신라의 호국용을 세 마리의 물고기로 변신시킨 뒤 잡아서 본국으로 떠났다. 그 하루 뒤에 두 여인이 원성왕 앞에 나타나서 자신들은 동지(東池)·청지(靑池)에 사는 두 호국용의 아내인데 당나라 사신과 하서국(河西國) 사람들이 자신의 남편과 분황사 팔각정(八角亭)에 사는 호국용을 주문을 외워 작은 물고기로 변화시켜 대나무통 속에 넣어 가지고 갔다고 하면서 이를 구해 달라고 호소하였다. 왕이 사람을 시켜 당나라 사신을 쫓아가서 물고기를 다시 빼앗아 각각의 우물에 놓아주어 살게 하였다.’는 전설이 기록되어 있다.



① 지정번호 불필요

② 용어 설명 필요



전반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정보는 종이나 단락을 나누고

읽기 쉬운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음

개선 문안

분황사 석정

芬皇寺 石井

문화재자료

❶ 이 석정은 분황사에 남아 있는 신라 시대의 우물로 '나라를 지키는 용이 물고기로 변한 우물'이라고 해서 호국용변어정(護國龍變魚井)으로도 불린다.

❷ 『삼국유사』에 이 우물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다. 분황사 우물과 금학산 동천사(東泉寺)의 동지와 청지라는 우물에 신라를 지키는 세 마리의 용이 살았다. 원성왕 11년(795)에 당나라 사신이 주술을 써서 이 용들을 물고기로 둔갑시켜 잡아갔다. 이 용들의 부인이라는 두 여인이 왕 앞에 나타나 남편을 찾아줄 것을 청하였다. 왕이 사람을 시켜 물고기를 다시 빼앗아 각각의 우물에 놓아주자 물이 한 길이나 솟아오르고 용들이 기뻐하며 뛰었다. 당나라 사람들은 왕의 밝은 지혜에 감복했다고 한다.

❸ 이 우물은 틀의 높이가 약 70cm로 외부는 팔각 모양이고, 내부는 원형이다. ❹ 남아 있는 통일 신라 시대의 돌우물 가운데 가장 크고 우수하며 지금도 사용될 만큼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그러나 이 우물에는 조선 시대에 분황사에 있던 모든 돌부처의 목을 잘라 이곳에 넣었다는 아픈 이야기가 전한다.

분황사 석정

분황사 석정

이 석정은 분황사에 남아 있는 신라 시대의 우물로 '나라를 지키는 용이 물고기로 변한 우물'이라고 해서 호국용변어정(護國龍變魚井)으로도 불린다.

『삼국유사』에 이 우물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다. 분황사 우물과 금학산 동천사(東泉寺)의 동지와 청지라는 우물에 신라를 지키는 세 마리의 용이 살았다. 원성왕 11년(795)에 당나라 사신이 주술을 써서 이 용들을 물고기로 둔갑시켜 잡아갔다. 이 용들의 부인이라는 두 여인이 왕 앞에 나타나 남편을 찾아줄 것을 청하였다. 왕이 사람을 시켜 물고기를 다시 빼앗아 각각의 우물에 놓아주자 물이 한 길이나 솟아오르고 용들이 기뻐하며 뛰었다. 당나라 사람들은 왕의 밝은 지혜에 감복했다고 한다.

이 우물은 틀의 높이가 약 70cm로 외부는 팔각 모양이고, 내부는 원형이다. 남아 있는 통일 신라 시대의 돌우물 가운데 가장 크고 우수하며 지금도 사용될 만큼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그러나 이 우물에는 조선 시대에 분황사에 있던 모든 돌부처의 목을 잘라 이곳에 넣었다는 아픈 이야기가 전한다.

This stone well located in Bunhwangsa Temple dates to the Unified Silla period (668-935). Among the stone wells dating to this period, this well is the largest, most outstanding, and in such good condition that it can still be used to this day. The inside of the well is circular while the exterior is octagonal. The story is told to protect the concept of perfect interrelation (i.e. the mutual containment of all phenomena) and the noble righteous path.

A legend about this well is told in the Unsaenggi of the Three Kingdoms. Legend goes it is said that there were three guardian dragons who protected the Silla kingdom. One lived in this well, and the other two lived in wells at Bunghwansa Temple and the steps of Chamsongwon Mountain. In 795, the army of King Shinra visited Silla and used a magic spell to transform the dragons into fish and capture them. Two women who were the wives of the dragons, came before King Unsaenggi. They told of fish and pleaded that their husbands be freed. The king ordered that the fish be returned to their wells. Upon their return, water sprouted out of the well and the dragons jumped with joy, causing the king people to admire the king's wisdom.

❶ 어려운 용어 풀어서 설명

❷ 기존 문안의 내용을 어렵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 이해하기

쉽고 흥미롭게 설명

❸ 문화재의 규모 설명

❹ 문화재의 특징과 가치 부각

Q 문화재 안내판 안내 문안 작성 혹은 안내판 제작 및 설치에 있어 담당자 선생님만의 팁이 있으신가요?

A : 요즘 관람객은 사진을 찍어 기록하는 문화가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문화재 경관에 방해되지 않는 곳에 안내판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화재 종별, 관리 여건에 따라 형식을 가급적 통일하려고 합니다.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종 목 국보

지 역 충청북도 청주시

기존 문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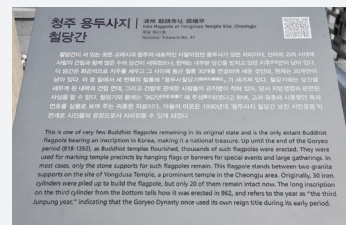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清州 龍頭寺址 鐵幢竿

국보 ① 제41호

철당간이 서 있는 곳은 고려시대 청주의 대표적인 사찰이었던 용두사가 있던 자리이다. 신라와 고려시대에 사찰의 건립과 함께 많은 수의 당간이 세워졌으나, 현재는 대부분 당간을 받치고 있던 지주(支柱)만이 남아 있다. 이 당간은 화강석으로 지주를 세우고 그 사이에 둥근 철통 30개를 연결하여 세운 것인데, 현재는 20개만이 남아 있다. 이 중 밑에서 세 번째의 철통에 『용두사철당기(龍頭寺鐵幢記)』가 새겨져 있다.

② 철당기에는 당간을 세우게 된 내력과 건립 연대, 그리고 건립에 관련한 사람들의 관직명이 적혀 있어, 당시 지방 경영과 관련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철당기의 끝에는 '962년(준풍, 峻豐3)'에 주성(鑄成)하였다고 하여, 고려 광종때 사용했던 독자 연호를 실물로 보여 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아울러 이곳은 1990년대 '용두사지 철당간 보전 시민운동'의 전개로 시민들의 광장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게 되었다.



① 지정번호 불필요

② 문화재에 새겨진 내용을 설명

하지 않아도 아쉬움



- 전체적으로 단락 나눔과 문장 정리로 이해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음
- 문화재의 기본 개념이나 정의에 대한 설명이 없어 이해하기 어려움

개선 문안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淸州 龍頭寺址 鐵幢竿

국보

❶ 당(幢)은 사찰 입구에 거는 깃발을 뜻하며, 깃발을 거는 대를 당간(幢竿)이라 한다. 당간은 보통 나무로 만들지만, 용두사지 당간은 둥근 철통을 연결하여 만든 것이 특징이다. 본래 30개의 철통으로 만들었으나, 현재는 20개만이 남아 있다.

❷ 이 중 아래에서 세 번째 철통에는 건립 배경과 연대 등이 상세히 적혀 있는 당간기가 있다. 당간기에 따르면 고려 광종 13년(962년) 김희일(金希一)을 비롯한 김씨(金氏), 손씨(孫氏), 경씨(慶氏), 한씨(韓氏) 등 청주의 호족들이 힘을 모아 이 당간을 세웠다고 한다. 또한 당간기의 마지막에는 고려 광종 때 사용한 독자 연호인 '준풍(峻豐)3년'이라는 건립 연대가 표기되어 있어 주목된다.

철제 당간 옆에는 깃대를 지탱하는 석제 당간지주(幢竿支柱)가 있으며, 아래쪽에는 널찍한 받침돌과 간대가 놓여 있다.

❸ 청주의 옛 지명인 주성(舟城)과 관련된 창건 설화도 전해지고 있다. 과거 청주일대에는 홍수가 자주 발생하였다고 한다. 그러던 중 한 점술가가 말하길, 청주의 지형이 떠나려가는 배와 같아서 그 중심에 배의 돛대를 세우면 재난이 사라질 것이라 하였다. 이에 청주의 중심인 용두사에 높은 철당간을 세우니 이후로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❹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은 우리나라 당간 중 건립 연도가 정확히 밝혀진 유일한 것으로, 우리나라 당간 연구의 귀중한 문화재이다.

❺ 아울러 이곳은 1980년대 시민단체가 '용두사지 철당간 보전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시민들의 광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다.



❶ 문화재의 개념과 특징 설명

❷ 문화재에 세겨진 건립 배경과 연대 등의 내용 설명

❸ 흥미로운 설화 소개

❹ 문화재적 가치 부각

❺ '시민'의 노력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음을 설명

이렇게 바뀌었어요!

문화재의 도면 자료를 첨부하고 각 부위를 설명함으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문화재 관련 설화를 재미있게 만화로 표현하여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만화에 당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려넣음으로써 자연스럽게 문화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1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개선사례



자연문화재 · 무형문화재

식물류 / 화석지질류 / 명승류 /
자연 생태 / 무형문화재



고창 문수사 단풍나무 숲

종 목 천연기념물

지 역 전라북도 고창군

기존 문안

고창 문수사 단풍나무 숲

高敞 文殊寺 ① 丹楓나무 숲

천연기념물 ② 제463호

③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은사리

고창 문수사 단풍나무 숲은 수령 100년에서 400년으로 추정되는 단풍나무 500여 그루가 문수사 입구에서 문수산(일명 청량산)중턱까지 좌우측 숲 일대에서 자생하고 있으며 나무의 크기는 직경 30~80cm, ④ 수고는 10~15m나 되며 ⑤ 흉고둘레가 2~2.95m에 이르는 노거수들이 포함되어 있다.

2005년 9월 9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120.065㎡내에는 단풍나무 이외에도 고로쇠나무, 졸참나무, 개서어나무, 상수리나무, 팽나무, 느티나무 등 혼생하는 다른 수종들과 어우러져 경관적으로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표적인 단풍나무 숲으로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



① 한자표기 오류

② 지정번호 불필요

③ 소재지 불필요

④~⑤ 어려운 단어 사용

☆ 문안이 짧고 식생 규모와 나무의 크기, 수령, 수종 나열에 그림



이렇게 바뀌었어요!

기존 안내판은 주자체에 설치되어 있어 다소 접근성이 떨어지고 관람객이 읽기에도 위치가 좋지 않습니다. 새로 설치한 개선된 안내판은 단풍나무 숲 초입에 설치되어 있어 접근성이 좋아요. 또 단풍나무 숲이 가장 붉게 물들었을 때의 모습을 항공 사진으로 첨부하여 가을 이외의 계절에 가도 가을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 좋습니다.



개선 문안

고창 문수사 단풍나무 숲

高敞 文殊寺 단풍나무 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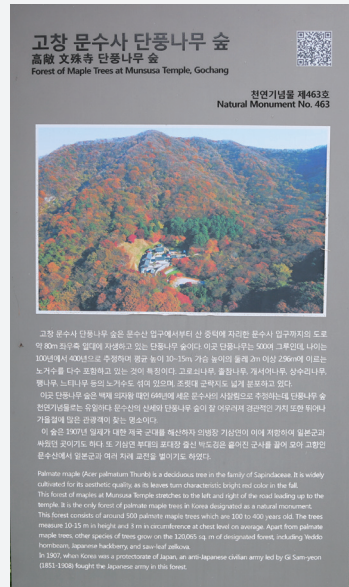
천연기념물

❶ 고창 문수사 단풍나무 숲은 문수산 입구에서부터 산 중턱에 자리한 문수사 입구까지의 도로 약 80m 좌우측 일대에 자생하고 있는 단풍나무 숲이다. ❷ 이곳 단풍나무는 500여 그루인데, 나이는 100년에서 400년으로 추정하며 평균 높이 10~15m, 가슴 높이의 둘레 2m 이상 296m에 이르는 노거수를 다수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❸ 고로쇠나무, 졸참나무 개서어나무, 상수리나무, 팽나무, 느티나무 등의 노거수도 섞여 있으며, 조릿대 군락지도 넓게 분포하고 있다.

❹ 이곳 단풍나무 숲은 백제 의자왕 때인 644년에 세운 문수사의 사찰림으로 추정하는데, 단풍나무 숲 천연기념물로는 유일하다. 문수산의 산세와 단풍나무 숲이 잘 어우러져 경관적인 가치 또한 뛰어난 가을철에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이다.

❺ 이 숲은 1907년 일제가 대한 제국 군대를 해산하자 의병장 기삼연이 이에 저항하여 일본군과 싸웠던 곳이기도 하다. 또 기삼연 부대의 포대장 출신 박도경은 흩어진 군사를 끌어 모아 고향인 문수산에서 일본군과 여러 차례 교전을 벌이기도 하였다.



고창 문수사 단풍나무 숲
高敞 文殊寺 단풍나무 숲
Forest of Maple Trees at Munsu Temple, Gochang

천연기념물 제463호
Natural Monument No. 463

고창 문수사 단풍나무 숲은 문수산 입구에서부터 산 중턱에 자리한 문수사 입구까지의 도로 약 80m 좌우측 일대에 자생하고 있는 단풍나무 숲이다. 이곳 단풍나무는 500여 그루인데, 나이는 100년에서 400년으로 추정하며 평균 높이 10~15m, 가슴 높이의 둘레 2m 이상 296m에 이르는 노거수를 다수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로쇠나무, 졸참나무, 개서어나무, 상수리나무, 팽나무, 느티나무 등의 노거수도 섞여 있으며, 조릿대 군락지도 넓게 분포하고 있다.

이곳 단풍나무 숲은 백제 의자왕 때인 644년에 세운 문수사의 사찰림으로 추정하는데 단풍나무 숲 천연기념물로는 유일하다. 문수산의 산세와 단풍나무 숲이 잘 어우러져 경관적인 가치 또한 뛰어난 가을철에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이다.

이 숲은 1907년 일제가 대한 제국 군대를 해산하자 의병장 기삼연이 이에 저항하여 일본군과 싸웠던 곳이기도 하다. 또 기삼연 부대의 포대장 출신 박도경은 흩어진 군사를 끌어 모아 고향인 문수산에서 일본군과 여러 차례 교전을 벌이기도 하였다.

Redleaf maple (*Acer palmatum* Thunb.) is a deciduous tree in the family Sapindaceae. It is widely cultivated for its ornamental quality as its leaves have characteristic bright red color in the fall. The forest of maples at Munsu Temple stretches to the left and right of the road leading up to the temple. It is the only forest of palmate maple trees in Korea designated as a natural monument. This forest consists of around 500 palmate maple trees which are 200 to 400 years old. The trees measure 10-15 m in height and 2 m in circumference at chest level on average. Apart from palmate maple trees, other species of trees grow in the 22,000 sq. m of designated forest, including hollyhock, hornbeam, Japanese hackberry and saw-hill paulownia. In 1907 when Korea was a protectorate of Japan, an anti-Japanese civilian army led by Gi Sam-yeon (1883-1908) fought the Japanese army in this forest.

❶ 숲의 규모 설명

❷ 숲에서 자생하고 있는 단풍 나무의 수와 수령, 크기 등을 통한 특징 설명

❸ 단풍나무 이외의 수종 소개

❹ 문화재적 가치 부각과 관광 포인트 소개

❺ 숲에 얽힌 일화를 소개함으로써 흥미를 높임

Q 이번에 『고창 문수사 단풍나무 숲』을 정비했는데, 해당 문화재 안내판 정비 시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무엇인가요?

A: 관광객 시선으로 문안을 작성하려 많이 노력하고 문화재 안내 문안을 쓸 때 문화재마다 포인트를 한 두가지 정도 줍니다. 문수사 단풍나무 숲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단풍나무 숲으로 가장 크고 유일하다라는 것과 이곳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었다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포인트로 삼고 작성했습니다. 또 동백나무 숲의 절정이 어떤지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사진을 첨부했는데 다양한 사진을 비교하고 직접 촬영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좋지 않아 결국 드론을 띄워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사진을 완성하여 안내판에 첨부할 수 있었습니다.





마산동굴

종 목 전라북도 기념물

지 역 전라북도 무주군

기존 문안

마산동굴

馬山洞窟

전라북도 기념물 ① 제41호

②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사산리

적상산 노고봉 남쪽의 늦쇠솔굴 계곡에 위치한 이 마산동굴은 대자연의 신비를 간직한 석회암 천연동굴이다. 동굴의 입구는 좁고 경사가 급하여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정도로 험하다.

굴 속 깊은 곳은 담회색 암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기묘한 형태의 담홍색 종유석과 석순이 가득하다.

③ 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아름답고 신비한 궁전을 찾은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



① 지정번호 불필요

② 소재지 불필요

③ 감상적 표현 불필요



문안이 짧아 정보를 얻기에는
무리가 있음

개선 문안

마산동굴

馬山洞窟

전라북도 기념물

마산동굴은 무주군 적상면 사산리 마산마을 남쪽의 늦쇠솔 계곡에 있는 천연 석회암 동굴이다.

① 70m 길이의 주굴(主窟)과 9개의 지굴(支窟)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굴 전체 길이는 약 190m, 면적은 99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동굴을 중심으로 2.3km 주위에는 석회석, 장석, 규석 등을 캐는 광산이 있다.

② 이 동굴은 사람들이 오소리를 잡기 위해 드나들다가 우연히 발견하였다고 한다. 동굴 입구의 지름은 60~100cm 가량으로 한 사람 정도가 겨우 출입할 만큼 매우 좁다. 내부는 40°쯤 경사가 저 천장이 낮고 보행이 어렵다.

③ 마산동굴은 대자연의 신비를 품은 아름다운 동굴로 얇은 회색을 띤 벽과 고드름처럼 생긴 얇은 홍색의 종유석 그리고 동굴 바닥에서 돌출되어 올라온 석순이 인상적이다.

④ 자주색과 검정색의 박쥐가 서식하고 있고 오소리 등이 드나들던 흔적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가치가 있다.

마산동굴 馬山洞窟
Masandonggul Cave전라북도 기념물
Jeollabuk-do Monument

마산동굴은 무주군 적상면 사산리 마산마을 남쪽의 늦쇠솔계곡에 있는 천연 석회암 동굴이다. 70m 길이의 주굴(主窟)과 9개의 지굴(支窟)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굴 전체 길이는 약 190m, 면적은 99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동굴을 중심으로 2.3km 주위에는 석회석, 장석, 규석 등을 캐는 광산이 있다.

석 동굴은 사람들이 오소리를 잡기 위해 드나들다가 우연히 발견하였다고 한다. 동굴 입구의 지름은 60~100cm가량으로 한 사람 정도가 겨우 출입할 만큼 매우 좁다. 내부는 40°쯤 경사가 저 천장이 낮고 보행이 어렵다.

마산동굴은 대자연의 신비를 품은 아름다운 동굴로 얇은 회색을 띤 벽과 고드름처럼 생긴 얇은 홍색의 종유석 그리고 동굴 바닥에서 돌출되어 올라온 석순이 인상적이다. 자주색과 검정색의 박쥐가 서식하고 있고 오소리 등이 드나들던 흔적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가치가 있다.

This cave, located in Namseonggonggul Valley to the south of Masan Village, formed naturally in limestone strata. It consists of a 70 m-long main cave and nine subsidiary caves. The cave system occupies an area of 990 m², and its overall length amounts about 190 m. It is said that the cave was discovered accidentally by hunter hunters. The entrance to the cave measures 60-100 cm in diameter, which is only wide enough for one person to pass through. The cave is inclined at a 40-degree angle, and the ceiling is quite low, which makes walking inside impossible. The cave has light grey walls, light red stalactites, and stalagmites, which together create an otherworldly setting. The cave is the habitat of purple and black bats and shows traces of badger movement, making it a place of scientific importance. In the 2.3 km area around the cave, there are also mines of limestone, feldspar, and quartzite.

① 기념물의 규모 소개

② 기념물 발견 경위 설명

③ 관람포인트 소개

④ 서식하는 동물 소개와 이를 통한 학술적 가치 부각



고성 덕명리 공룡과 새발자국 화석산지

종 목 천연기념물

지 역 경상남도 고성군

기존 문안

고성 덕명리 공룡과 새발자국 화석산지

천연기념물 ① 제411호

②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

이곳에는 지금으로부터 약 1억년 전(중생대 백악기 전기)에 커다란 호수 주변에서 쌓인 퇴적암층이 나타난다. 제전마을에서 실바위까지 해안선을 따라 약 6km에 걸쳐 수많은 공룡발자국들이 발견된다.

③ 목 긴 초식공룡 용각류, 두 발 또는 네 발로 걷는 초식공룡 조각류와 육식공룡 수각류의 발자국이 모두 관찰되고, 두 종류의 새 발자국도 나타난다. 공룡발자국이 포함된 지층 전체 두께는 약 150m이며, 200여 퇴적층에서 약 2,000여 개의 공룡발자국이 발견된다. 이 지역은 천연기념물 제411호로 지정·보호되고 있다.

고성 덕명리 공룡과 새발자국 화석산지
固城 德明里 恐龍과 새 발자국 化石產地

천연기념물 제411호

이곳은 백악기 공룡 발자국 화석 산지이다. 화석의 양은 물론 다양성에서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제전마을에서 실바위까지 해안선을 따라 약 6km에 걸쳐 나타난다. 목 긴 초식공룡 용각류, 두 발 또는 네 발로 걷는 초식공룡 조각류와 육식공룡 수각류의 발자국은 물론 두 종류의 새 발자국이 있다. 공룡 발자국이 포함된 지층 전체 두께는 약 150m이며, 200여 퇴적층에서 약 2,000여 개의 공룡 발자국이 발견된다.

Deongmyeong Village Dinosaur
Fossils and Bird Tracks, Goseong

Monument No. 411

This is a region bearing fossilized dinosaur tracks from the Cretaceous Period. It is recognized worldwide both for the number and for the diversity of its fossils, which appear along the six-kilometer-long shoreline from the village of Jejeon to Silbawi Rock. Footprints can be

① 지정번호 불필요

② 소재지 불필요

③ 발견된 발자국 종류 단순 나열

개선 문안

고성 덕명리 공룡과 새발자국 화석산지

한국의 자연유산

공룡이란?

공룡은 겉모습이 도마뱀이나 악어를 닮은 동물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2억2천5백만 년 전인 중생대 트라이아스기에 지구상에 처음 나타나 약 6천5백만 년 전인 중생대 백악기 말까지 무려 1억 6천만 년 동안 지구를 지배하였다.

① 공룡(恐龍, Dinosauria)이란 말은 '무서운(deinos) 도마뱀(sauros)'이라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한다. 공룡은 육지에 살았던 동물 중에서 가장 길고 큰 동시에 가장 무거운 동물이었을 것이다.

② 또 아마도 가장 무서운 동물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나 모든 공룡이 다 '무서운' 것은 아니었다. 공룡들 중 많은 종류는 싸움을 하지 않고 풀을 뜯어 먹었으며 크기가 작은 것도 있었다. '무서운 도마뱀'이라 불리는 공룡은 실제로 도마뱀과는 전혀 달랐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공룡이 파충류에 속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학자도 있다. 공룡과 비슷한 동물로 하늘에는 익룡, 바다에는 어룡과 수장룡이 살고 있었다.

공룡 발자국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③ 호숫가처럼 완전히 마르지 않은 진흙층 위에 공룡이 발자국을 깊게 남긴 후 땅이 마르고 굳으면 그 자국이 남게 된다. 그 뒤 어느 날 홍수나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그 위에 퇴적물이 쌓이면서 발자국은 순식간에 묻히게 된다. 계속해서 퇴적물이 쌓일수록 땅속 깊은 곳에서 퇴적물은 딱딱한 암석으로 변하고 수천만 년의 오랜 시간이 지난다. 그러다가 발자국 위의 퇴적층은 오랜 세월 동안 물과 바람 등에 의해 깎이면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공룡 발자국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공룡 발자국은 공룡뼈에서는 알 수 없는 많은 것을 알려준다.

④ 공룡 발자국이 많이 발견되는 지역이라고 해서 공룡뼈가 항상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공룡 발자국은 공룡이 살던 흔적이지만, 공룡뼈는 공룡이 죽은 후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는 공룡의 행동을 연구할 수 있는 야외 박물관이다.

⑤ 공룡 발자국을 분석하여 공룡이 얼마나 빨리 달리고 걸었는지를 계산할 수 있으며, 공룡이 싸울 때 발가락과 발바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룡 발자국의 생김새는 공룡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육식 공룡은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발자국의 끝이 뾰족한 발톱 모양을 하고 있지만 초식 공룡의 발자국은 발톱이 날카롭지 않고 뭉툭하다.



① 공룡이란 단어의 어원 소개

② 공룡에 대한 여러 종류와 학설을 알기 쉽게 설명

③~④ · 공룡 발자국 화석이 생긴 경위를 순서에 따라 조리있게 설명 · 다양한 사진자료를 삽입하여 이해를 도모함

⑤ 문화재의 중요성을 흥미롭게 설명



· 청소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안내 문안을 작성함
· 공룡과 공룡발자국으로 확장되는 클러스터 기법이 연상되는 작성법



제천 의림지와 제림

종 목 명승

지 역 충청북도 제천시

기존 문안

제천 의림지와 제림

提川 義林地와 提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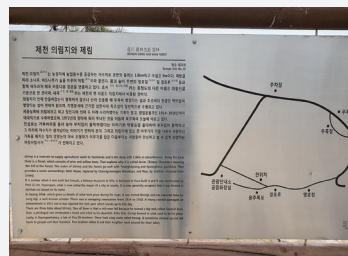
명승 ❶ 제20호

❷ 제천 의림지는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로 호반의 둘레는 1.8km이고 수심은 8m이다. 제방을 따라 소나무, 버드나무가 숲을 이루어 제림이라 불린다. 물과 숲이 주변의 영호정 및 경호루 등과 함께 어우러져 매우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호서(호수의 서쪽)라는 충청도의 다른 이름은 의림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내제(큰 제방)라는 제천의 옛 이름도 의림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❸ 의림지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신라 진흥왕 때 우륵이 쌓았다는 설과 조선시대 현감인 박의림이 쌓았다는 설이 전해져 있으며, 지명분석에 근거한 삼한시대 축조설이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세종실록에 의림제라고 하고 정인지에 의해 두 차례 수리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항일운동기인 1914~1918년까지 대대적으로 수축하였으며, 1972년의 장마에 둑이 무너진 것을 이듬해 복구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❹ 전설로는 거북바위를 돌려 놓아 부자집이 몰락하였다는 이야기와 탁발승을 홀대하여 부자집이 몰락하고 그 자리에 저수지가 생겨났다는 이야기가 전하여 온다. 그리고 의림지에 있는 큰 이무기가 가끔 나와서 사람이나 가축을 해치는 일이 있었는데 어찌 오형제가 이무기를 잡은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놀 수 있게 되었다는 어장사참사가 전해지고 있다.



❶ 지정번호 불필요

❷ 산만한 문장으로 정리 필요

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연대 측정

❹ 흥미를 끄는 전설 소개. 다만 여러 전설을 산만하게 섞어 설명하여 집중도가 떨어짐

개선 문안

제천 의림지와 제림

堤川 義林池와 堤林

명승

① 의림지는 산과 산 사이의 움푹 들어간 골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고대 수리시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다.

② 충청도의 별칭인 ‘호서(湖西)’라는 말은 ‘호수의 서쪽’이라는 뜻으로, 바로 이 의림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한 큰 둑이나 제방을 의미하는 ‘내토(奈吐)’, ‘내제(奈堤)’라는 제천의 옛 이름도 의림지에서 비롯되었다고 추정된다.

③ 의림지의 축조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세종실록지리지』에 그 존재가 보인다. 또한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한 제방 남쪽 하단부 발굴조사 결과 최소한 삼국시대에 만들었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후 1914~18년에 수문 등을 보수했고, 1972년 장마 때 제방 일부가 파손된 것을 복구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④ 의림지는 제방 길이 320m에 둘레 약 1.8km, 수심은 최대 13m에 달하며, 저수면적보다 관개면적이 넓게 되어 있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효율적인 관개시설이라 할 수 있다. 의림지 제방은 흙으로 쌓았는데, 하부에서 발견된 ‘부엽공법(敷葉工法)*’과 물이 새거나 흘러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 등은 고도로 발달된 토목기술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한편 제방 위에는 소나무와 버드나무숲이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고 있어 예부터 제림이라 불려 왔으며, 주변의 정자와 누각과 등이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⑤ 의림지와 제림은 조선 후기 화가 이방운(李昉運)이 그린 『사군강산참선수석(四郡江山參僊水石)』에 나오는 명승지 8곳 중의 하나로 전통적인 경관지이다. 현재까지도 많은 이들이 찾는 제천 농업의 살아있는 관개문화유산으로서 제천의 역사와 함께 하고 있다. 지금도 의림지 아래의 넓은 들판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⑥* 부엽공법(敷葉工法) : 흙으로 제방이나 성벽을 쌓을 때 사질, 점토로 만든 상부 제체(堤體)와 하부의 연약 지반 사이에 연결 역할을 하여 구조물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점질토와 나뭇잎, 풀 등을 번갈아 쌓아올리는 공법



① 문화재의 개념과 가치 부각

② 기존 문안 정리와 어려운 말을 풀어 설명

③ 역사 기록과 발굴 조사 내용을 근거로 연대 측정

④ 문화재의 규모와 토목 기술. 문화재 관람 포인트 설명. 도면 및 사진 자료를 삽입하여 이해를 도움

⑤ 문화재의 과거와 현재를 자료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

⑥ 각주를 사용하여 전문용어를 풀이함

이렇게 바뀌었어요!

기존 안내판은 오래된 디자인으로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다소 어색합니다. 개선된 안내판은 가독성이 좋은 재질과 색상으로 변경하고 해당 문화재에 대한 역사적 기록과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출토된 유물 사진, 문안에 설명한 이방운의 그림, 현재 지도 이미지 등을 첨부하여 관람객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남해 지족 해협 죽방렴

종 목 명승

지 역 경상남도 남해군

기존 문안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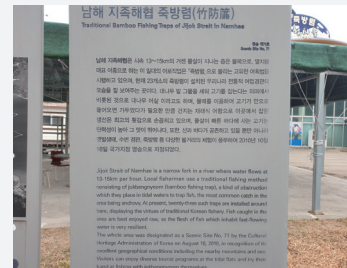
1 竹防簾

명승 2 제71호

경남 남해군 삼동 향선면 지족해협 일원

3 남해 지족해협은 시속 13-15km의 거센 물살이 지나가는 좁은 물목으로, 멸치를 대표 어종으로 하는 이 일대의 어로 작업은 『죽방렴』으로 불리는 고유한 어획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23개소의 죽방렴이 설치되어 있는 우리나라 전통적 어업경관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곳이다.

4 대나무 발그물을 세워 고기를 잡는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나무 어살이라고도 하며, 물때를 이용하여 고기가 안으로 들어오면 가두었다가 필요한 만큼 건지는 재래식 어항으로 이곳에서 잡힌 생선은 최고의 맛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물살이 빠른 바다에 사는 고기는 탄력성이 높아 그 맛이 뛰어난 입지여건상 산. 바다 등 다른자원의 경험과 공유가 가능하며 갯벌생태, 수변경관, 죽방렴 등 다양한 볼거리의 체험이 풍부하여 2008년 8월 18일 국가지정 명승으로 지정 되었다.



1 한자 표기 오류

2 지정번호 불필요

3 소재지 불필요

4 문장의 호흡이 길어 정리가 필요함

5 상당한 정보를 한 호흡으로 작성하여 이해하기 어려움

개선 문안

남해 지족 해협 죽방렴

남해 지족 해협 竹防簾

명승

❶ 죽방렴은 지족 해협의 거센 물살을 이용한 전통 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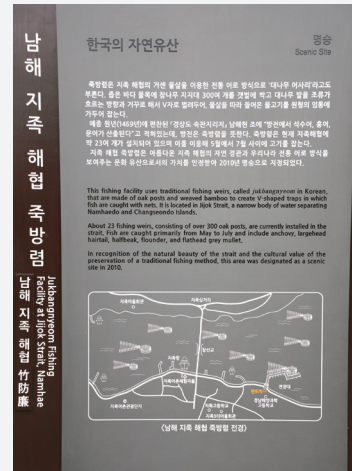
방식으로 ‘대나무 어사리’라고도 부른다. 좁은 바다 물목에
참나무 지지대 300여 개를 갯벌에 박고 대나무 발을 조류가
흐르는 방향과 거꾸로 해서 V자로 벌려두어, 물살을 따라
들어온 물고기를 원형의 임통에 가두어 잡는다.

❷ 예종 원년(1496년)에 편찬된 『경상도 속찬지리지』

남해현 조에 “방전에서 석수어, 홍어, 문어가 산출된다”고
적혀 있는데, 방전은 죽방렴을 뜻한다. 죽방렴은 현재 지족
해협에 약 23여 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를 이용해 5월에서
7월 사이에 고기를 잡는다.

❸ 지족 해협 죽방렴은 아름다운 지족 해협의 자연 경관과

우리나라 전통 어로 방식을 보여주는 문화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2010년 명승으로 지정되었다.



❶ 문화재의 건립 시기 설명

❷ 기록을 통한 죽방렴의 역사와
어종 소개

❸ 문화재 지정 사유를 밝혀
가치를 드러냄

☆
문화재의 위치와 형태를 그림
으로 표현하여 이해를 도움



부여·청양 지천 미호종개 서식지

종 목 천연기념물

지 역 충청남도 부여군·청양군

기존 문안

부여·청양 지천 미호종개 서식지

천연기념물 ① 제533호

② 지정일: 2011년 9월 5일

③ 소재지: 충남 부여군 규암면 금암리 - 청양군 장평면 분향리 일원

분류 : 잉어목 미꾸리과에 속하는 우리나라 고유종

보호 : 천연기념물 제454호(종), 제533호(서식지) 문화재

보호법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태·생태:

- 6~9cm의 몸은 가늘고 길며 주둥이는 뾰족하고 입에 세쌍의 수염이 있음
- 연한 황갈색 몸의 옆면 중앙에는 12~17개의 원형 또는 삼각형의 암갈색 반점이 있음
- 수심 1m 이내의 유속이 완만하고 2mm 이하의 가는 모래가 깔려있는 곳에 서식



① 지정번호 불필요

② 지정일 기입 불필요

③ 소재지 불필요



전반적으로 문화재 안내판 문안
작성 기준을 따르지 않음

개선 문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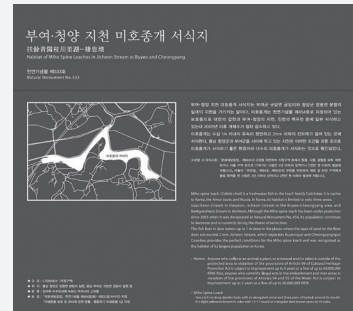
부여·청양 지천 미호종개 서식지

扶餘靑陽枝川美湖—棲息地

천연기념물

① 부여·청양 지천 미호종개 서식지는 부여군 규암면 금암리와 청양군 장평면 분향리 일대의 지천을 가리키는 말이다. 미호종개는 천연기념물 제454호로 지정되어 있는 보호종으로 대전의 갑천과 부여·청양의 지천, 진천의 백곡천 등에 일부 서식하고 있는데 2005년 이후 개체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미호종개는 수심 1m 이내의 유속이 완만하고 2mm 이하의 잔모래가 깔려있는 곳에 서식한다. 충남 청양군과 부여군을 사이에 두고 있는 지천은 이러한 조건을 갖춘 곳으로 미호종개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라 다수의 미호종개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① 일러스트를 첨부해 서식지의
규모와 위치 설명



기존 문안을 안내판 문안
작성 기준에 맞춰 쉬운 단어를
사용해 알기 쉽게 작성

이렇게 바뀌었어요!

기존 안내판은 오래되어 훼손이 심하여 문안과 사진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개선된 안내판은 기존 두 개로 나누었던 안내판을 하나로 정리하고 미호종개 서식지를 일러스트로 표시하여 알기 쉽습니다.





출처 : 김해시

김해 장군차 서식지

종 목 경상남도 기념물

지 역 경상남도 김해시

신규 문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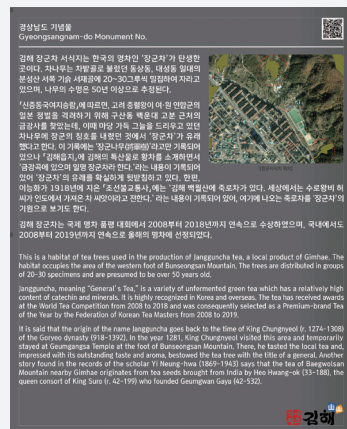
김해 장군차 서식지

金海 將軍茶 棲息地

경상남도 기념물

김해 장군차 서식지는 한국의 명차인 ‘장군차’가 탄생한 곳이다. ❶ 차나무는 차밭골로 불렸던 동상동, 대성동 일대의 분성산 서쪽 기슭 서재골에 20~30그루씩 밀집하여 자라고 있으며, 나무의 수명은 50년 이상으로 추정된다.

❷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고려 충렬왕이 여·원 연합군의 일본 정벌을 격려하기 위해 구산동 백운대 고분 근처의 금강사를 찾았는데, 이때 마당 가득 그늘을 드리우고 있던 차나무에 장군의 칭호를 내렸던 것에서 ‘장군차’가 유래했다고 한다. 이 기록에는 ‘장군나무(將軍樹)’라고만 기록되어 있으나 『김해읍지』에 김해의 특산물로 황차를 소개하면서 ‘금강곡에 있으며 일명 장군차라 한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장군차’의 유래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이능화가 1918년에 지은 『조선불교통사』에는 ‘김해 백월산에 죽로차가 있다. 세상에서는 수로왕비 허씨가 인도에서 가져온 차 씨앗이라고 전한다.’라는 내용이



경상남도 기념물
Gyeongnam-do Monument No.

김해 장군차 서식지는 한국의 명차인 ‘장군차’가 탄생한 곳이다. 차나무는 차밭골로 불렸던 동상동, 대성동 일대의 분성산 서쪽 기슭 서재골에 20~30그루씩 밀집하여 자라고 있으며, 나무의 수명은 50년 이상으로 추정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고려 충렬왕이 여·원 연합군의 일본 정벌을 격려하기 위해 구산동 백운대 고분 근처의 금강사를 찾았는데, 이때 마당 가득 그늘을 드리우고 있던 차나무에 장군의 칭호를 내렸던 것에서 ‘장군차’가 유래했다고 한다. 이 기록에는 ‘장군나무(將軍樹)’라고만 기록되어 있으나 『김해읍지』에 김해의 특산물로 황차를 소개하면서 ‘금강곡에 있으며 일명 장군차라 한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장군차’의 유래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이능화가 1918년에 지은 『조선불교통사』에는 ‘김해 백월산에 죽로차가 있다. 세상에서는 수로왕비 허씨가 인도에서 가져온 차 씨앗이라고 전한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장군차’의 유래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김해 장군차는 국제 명차 대회를 2008부터 2018년까지 연속으로 수상하였으며, 국내에서도 2008부터 2018년까지 연속으로 최우수 명차에 선정되었다.

This is a habitat of tea trees used in the production of Jangguncha tea, a local product of Gimhae. The habitat occupies the area of the western foot of Bamsongsan Mountain. The trees are distributed in groups of 20-30 specimens and are presumed to be over 50 years old.

Jangguncha, meaning "General's Tea," is a variety of unfermented green tea which has a relatively high content of catechins and minerals. It is highly recognized in Korea and overseas. The tea has received awards at the World Tea Competition from 2008 to 2018 and was consequently selected as a Premium-brand Tea of the Year by the Federation of Korean Tea Masters from 2008 to 2019.

It is said that the origin of the name Jangguncha goes back to the time of King Chungnyeol (r. 1274-1298) of the Goryeo dynasty (918-1392). In the year 1281, King Chungnyeol visited this area and temporarily stayed at Gwangmyeong Temple at the foot of Bamsongsan Mountain. There, he tasted the local tea and, impressed with its outstanding taste and aroma, bestowed the tea tree with the title of a general. Another story found in the records of the scholar Yi Jeong-gye (1469-1543) says that the tea of Bamsongsan Mountain nearby Gimhae originates from tea seeds brought from India by Hui Hwang-uk (33-188), the queen consort of King Suro (r. 42-199) who founded Gyeongju Gaya (42-562).

❶ 차나무의 분포 지역과 수령

소개

❷ 역사적 기록을 통해 장군차의

기원과 유래 설명

기록되어 있어, 여기에 나오는 죽로차를 ‘장군차’의 기원으로 보기도 한다.

③ 김해 장군차는 국제 명차 품평 대회에서 2008부터 2018년까지 연속으로 수상하였으며, 국내에서도 2008부터 2019년까지 연속으로 올해의 명차에 선정되었다.

③ 지역을 대표하는 명품 특산품
으로 육성했음을 부각



출처 : 김해시



은산별신제

종 목 국가무형문화재

지 역 충청남도 부여군

기존 문안

은산별신제

- ❶ 지정별: ~~중요 무형문화재 제9호~~
- ❷ 소재지: ~~충남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

은산 별신제(恩山 別神祭)는 토속 신앙에 군대 의식이 가미된 충남 지역의 대표적인 별신제로 ❸ 장군제(將軍祭)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❹ 백제 부흥군의 원혼을 위령하여 그 음덕으로 질병을 퇴치하고 마을의 평안을 얻었다하여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고 전해오고 있으며, 별신당 정면에는 산신(山神)을 동쪽에는 토진(土進)대사, 서쪽에는 복신(福信)장군의 영정(影幀)을 모셨는데 토진(도침)대사와 복신장군은 백제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❺ 별신제는 2년마다 음력 정월이나 2월경 길일(吉日)을 택해 대제(大帝)를 지내는데 행사의 내용은 물봉하기, 조라술담그기, 집굿행사, 진대(陣大)베기, 꽃받기, 상당(上堂)행사, 본제(本祭), 상당굿, 하당굿, 독산제(獨山祭)와 장승제이며, 대제를 지내지 않는 해는 소제(小祭)를 지낸다.

별신당 뒷산에는 백제 부흥군이 항쟁했던 곳으로 보이는 토성(土城)인 은산 당산성(이중산성)이 있다.

은산별신제

지정명: 중요 무형문화재 제9호
소재지: 충남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

은산 별신제(恩山 別神祭)는 토속 신앙에 군대 의식이 가미된 충남 지역의 대표적인 별신제로 장군제(將軍祭)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백제 부흥군의 원혼을 위령하여 그 음덕으로 질병을 퇴치하고 마을의 평안을 얻었다하여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고 전해오고 있으며, 별신당 정면에는 산신(山神)을 동쪽에는 토진(土進)대사, 서쪽에는 복신(福信)장군의 영정(影幀)을 모셨는데 토진(도침)대사와 복신장군은 백제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별신제는 2년마다 음력 정월이나 2월경 길일(吉日)을 택해 대제(大帝)를 지내는데 행사의 내용은 물봉하기, 조라술담그기, 집굿행사, 진대(陣大)베기, 꽃받기, 상당(上堂)행사, 본제(本祭), 상당굿, 하당굿, 독산제(獨山祭)와 장승제이며, 대제를 지내지 않는 해는 소제(小祭)를 지낸다.
별신당 뒷산에는 백제 부흥군이 항쟁했던 곳으로 보이는 토성(土城)인 은산 당산성(이중산성)이 있다.

❶ 지정종목 표기 오류. 지정번호 불필요

❷ 소재지 불필요

❸ 단어 해석 필요

❹ 문장이 길고 관람객이 흥미를 갖기 어려운 설명

❺ 진행 시기와 순서를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 설명



전반적으로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해하기 어려움

개선 문안

은산별신제

恩山別神祭

국가무형문화재

① 은산별신제는 은산면 일대에 전승되는데 향토 신앙을 기초로 군대 의식이 더해진 독특한 형태의 제례 의식이다. 별신제란 마을을 지켜 주는 수호신에게 드리는 제례 의식을 뜻한다.

② 전설에 따르면 과거 은산면 지역에 괴질이 돌아 많은 사람이 죽어 가던 때에 한 노인의 꿈에 백제의 장군이 나타나 자신과 함께 죽은 병사들의 유골을 수습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한다. 이에 마을 주민들이 유골을 잘 묻어주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위령제를 올리자 병이 사라지고 마을이 평안해졌다고 한다.

이후 신당에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온 것이 별신제이다. 별신제를 지내던 별신당 뒷산에는 백제의 항쟁 장소인 당산성이 있다.

은산별신제는 백제부흥군의 영혼을 위로하고 마을의 풍요와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종합예술축제로 발전해왔다.

옛날에는 3년에 한 번 윤달이 든 해의 음력 정월이나 2월에 제를 지냈으나, 최근에는 규모가 커지면서 짝수 해에는 대제(大祭), 홀수 해에는 소제(小祭)로 구분하여 매년 3월 말에 지내고 있다.

③ <별신제 순서>

- ① 물봉하기: 별신당 옆의 은산천에 흐르는 물을 막는 의식
- ② 조라술 담기: 물봉하기를 하고 나서 물을 받아와 제를 지내기 위해 술을 담그는 행사
- ③ 집긋: 물을 봉한 날부터 3일 동안 풍장패*가 마을의 집을 돌며 축원을 해주는 행사
- ④ 진대배기: 진대목으로 쓸 참나무를 베어 오는 행사
- ⑤ 꽃받기: 별신제에 올릴 꽃을 받아오는 행사
- ⑥ 상당 행사: 산신제를 지내기 위해 꽃과 제물을 별신당으로 옮기는 행사
- ⑦ 본제: 산신과 별신에게 올리는 유교식 제사
- ⑧ 상당굿: 모두의 평안을 기원하는 행사
- ⑨ 하당굿: 은산별신제를 마감하는 뒤풀이 행사
- ⑩ 독산제: 별신제를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보살펴준 산신에게 올리는 감사 의식
- ⑪ 장승제: 동서남북 사방의 장승 터에 새로 제작한 장승과 진대**를 세우는 행사

④* 풍물놀이를 하며 노는 패거리

** 은산별신제를 할 때, 베어다 쓰는 일종의 서낭대



① 은산별신제의 개념 소개

② 문화재 유래와 관련해 전설을 소개하여 흥미를 게 설명

③ 별신제 과정을 사진과 함께 설명하여 이해를 도움

④ 각주를 사용하여 전문용어 설명



불화장

종 목 국가무형문화재

지 역 경기도 고양시

신규 문안

불화장

佛畵匠

국가무형문화재

① 불화장은 불교 그림인 불화를 그리는 솜씨가 뛰어난 최고의 장인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다. 조선 시대에는 불화 제작을 담당하던 장인을 금어(金魚), 화사(畵師), 화승(畵僧) 등으로 부르기도 했다.

② 불화는 그려진 형태에 따라 탕화(幀畵), 사경화(寫經畵), 벽화(壁畵) 등으로 나뉜다. 그 가운데에서도 탕화는 종이·비단·삼베 등에 불교 경전의 내용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려서 사찰의 벽에 걸 수 있도록 그린 전통 채색화로, 우리나라 불화의 주류를 이룬다.

③ 불화를 그리려면 수많은 불교 경전의 내용을 이해해야 하고, 부처님의 상호(相好)*를 그릴 때에도 정해진 법식과 불교적 사상을 고려하여 표현해야 한다. 즉, 불화는 작가가 임의로 그릴 수 없고 경전의 가르침에 따라 전통을 지켜서 그려야 한다.



① 문화재의 개념과 정의 설명

② 문화재에 관련된 유래 설명

③ 불화 기술 채택의 어려움을 설명 함으로써 문화재적 가치 부각

④ 문화재청은 2006년에 종목의 특성을 고려해 불화장을 단청장에서 분리하였으며, 같은 해에 임석환 씨를 불화장 보유자로 인정하였다.

④* 상호(相好) : 부처의 몸에 갖추어진 훌륭한 용모와 형상. 부처의 화신에는 뚜렷해서 보기 쉬운 32가지의 상과 미세해서 보기 어려운 80가지의 호가 있다.

④ 지정 이유 설명

⑤ 각주를 이용해 전문용어를 설명하면서 주요 관람 포인트 안내



국가무형문화재 불화장 임석환

Q 이번에 『불화장』을 정비하셨는데 주안점은 무엇이었나요?

A : 불화전수관은 사방이 개방되어 있지 않은 필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문화재 안내판과 도로표지판을 신설하여 불화전수관의 접근성을 높이하고자 하였고, 더불어 노후화된 불화장 공방을 개선하는 사업 또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방법은 대중의 수요와 비례하기에 지속적인 관심과 변화하는 세태에 발맞춰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MEMO

2021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개선사례



근대문화재

근대건축 / 근대시설 / 항일운동터



서울 앨버트 테일러 가옥 (딜쿠샤)

종 목 국가등록문화재

지 역 서울 종로구

신규 문안

서울 앨버트 테일러 가옥(딜쿠샤)

首尔文伯特, 泰勒故居(迪尔座夏)

국가등록문화재

① 딜쿠샤는 미국인 앨버트 W. 테일러와 아내 메리 L, 테일러가 1924년에 지은 집으로, 산스크리트어로 '기쁜 마음의 궁전'이라는 뜻이다. ② 앨버트 W. 테일러는 운산 금광의 광산기술자였던 아버지를 따라 1897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광산업과 상업에 종사하였다. 1919년에는 AP 통신사의 통신원으로 활동하며 고종의 국장과 3·1운동, 제암리 학살사건 등을 취재하여 전 세계에 알렸다. 1942년에 조선 총독부의 강제 추방에 의해 미국으로 떠났던 앨버트 W. 테일러는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노력하던 중 사망하였으며, 그의 유해는 1948년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묻혔다.

③ 딜쿠샤는 1942년에 테일러 부부가 떠난 후 소유주가 바뀌고 공동주택으로 사용되면서 본래 모습이 많이 훼손되었다. 그러던 중 2006년에 아들 브루스 T. 테일러가 딜쿠샤를 다시 찾으면서 그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딜쿠샤의 복원사업을 진행하여 2021년에 시민들에게 공개하였다.



① 문화재의 건립 시기과 의미.

세운 인물 소개

② 관련 인물이 한국에 들어온

경위, 업적, 사망 등을 알기 쉽게 설명

③ 현재 문화재 현황 설명





서울 독립문

종 목 사적

지 역 서울 서대문구

기존 문안

서울 독립문

❶ 지정번호 : 사적 제32호

독립문은 1897년에 자주독립의 결의를 다짐하기 위해 세운 석조물이다. 중국 사신을 맞이하던 영은문을 헐고 그 자리에 세웠는데, 1979년에 성산대로 공사 때문에 북서쪽으로 70m 이전하여 현재의 위치에 있게 되었다. 독립협회가 주도하여 국왕의 동의를 얻고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아 완성하였다.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을 본떠 러시아인 사바틴이 설계하고 한국인 심의석이 시공하였다. 화강암으로 쌓았고, 높이는 14.28m 너비는 11.48m이다. 가운데에는 무지개 모양의 홍예문이 있고, 문 안쪽의 왼쪽에는 정상으로 통하는 돌계단이 있으며, 정상에는 돌난간이 둘러져 있다. 이 맞돌에는 대한제국 황실을 상징하는 오얏꽃 무늬를 새겼다. 문의 정면과 뒷면에 있는 현판석에는 각각 한글과 한자로 '독립문'을 새기고 그 좌우에는 태극기를 새겼다.



❶ 지정번호 불필요



문안의 내용은 종이나 가독성을 위한 단락나눔이나 문장 정리 필요

Q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 : 문안 작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관람객이 짧은 시간 안에 해당 문화재의 유래 및 연혁에 대해 쉽게 파악하고 흥미롭게 다가가갈 수 있는 문안으로 짜임새 있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이번에 『서울 독립문』을 정비했는데, 해당 문화재 안내판 정비시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무엇인가요?

A : 『서울 독립문』 안내판을 정비하면서 문안 정비 측면에서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독립문의 '독립'의 의미가 '식민통치로부터의 해방'이 아닌 '홀로 설 수 있는 주권 국가'의 의미이며 자주독립의 의지를 다짐하기 위해 세운 기념물임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문안을 구성하였으며, 문안 공모전 최우수작의 구절을 인용하여 문안을 완성하였습니다.



개선 문안

서울 독립문

서울 獨立門

사적

① “독립문은 우리 3천만 겨레의 독립 정신을 영원히 상징하는 것” (<자유신문> 1947년 11월 17일)

② 독립문은 자주독립의 의지를 다짐하기 위하여, 중국 사신을 맞이하던 영은문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세운 것이다. 우리 민족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서재필이 조직한 독립 협회가 모금을 주도하고 고종의 승인을 얻어 1897년 11월 20일에 완공하였다.

『경성부사(京城府史)』에 따르면 러시아인 사바틴이 설계하고, 조선인 심의석이 공사하였다.

③ 화강암을 쌓아 만든 독립문의 중앙에는 무지개 모양의 홍예문이 있고 왼쪽 내부에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돌계단이 있다. 옥상에는 돌난간을 둘렀으며 홍예문의 가운데 이맷돌에는 대한제국 황실을 상징하는 오얏꽃 무늬를 새겼다. 문의 앞면과 뒷면에 있는 현판석에는 각각 한글과 한자로 ‘독립문’을 새기고 그 좌우에는 태극기를 새겼다. 본래는 현재 위치에서 남동쪽으로 70m 떨어진 길 가운데에 있었는데, 1979년 성산대로를 공사하면서 이곳으로 옮기게 되었다.

④ 독립문의 ‘독립’은 ‘식민 통치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홀로 설 수 있는 주권 국가’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독립문은 주권을 위협하는 열강들 사이에서 주권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세계에 알리려는 모든 국민들의 노력이 담긴 역사적 기념물이라 할 수 있다.

서울 독립문

서울 獨立門 | Dongnimun Arch, Seoul
首尔独立門 | ソウル独立門(トニンムン)

사적 | Historic Site

“독립문은 우리 3천만 겨레의 독립 정신을 영원히 상징하는 것”
<자유신문> 1947년 11월 17일

독립문은 자주독립의 의지를 다짐하기 위하여, 중국 사신을 맞이하던 영은문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세운 것이다. 우리 민족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서재필이 조직한 독립협회가 모금을 주도하고 고종의 승인을 얻어 1897년 11월 20일에 완공하였다.

『경성부사(京城府史)』에 따르면 러시아인 사바틴이 설계하고, 조선인 심의석이 공사하였다. 화강암을 쌓아 만든 독립문의 중앙에는 무지개 모양의 홍예문이 있고 왼쪽 내부에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돌계단이 있다. 옥상에는 돌난간을 둘렀으며 홍예문의 가운데 이맷돌에는 대한제국 황실을 상징하는 오얏꽃 무늬를 새겼다. 문의 앞면과 뒷면에 있는 현판석에는 각각 한글과 한자로 ‘독립문’을 새기고 그 좌우에는 태극기를 새겼다. 본래는 현재 위치에서 남동쪽으로 70m 떨어진 길 가운데에 있었는데, 1979년 성산대로를 공사하면서 이곳으로 옮기게 되었다.

독립문의 ‘독립’은 ‘식민 통치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홀로 설 수 있는 주권 국가’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독립문은 주권을 위협하는 열강들 사이에서 주권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세계에 알리려는 모든 국민들의 노력이 담긴 역사적 기념물이라 할 수 있다.

① 첫머리에 문화재와 관련한

당시 자료를 소개함으로써

문화재의 정체성 강조

② 건립 배경과 완공일 설명

③ 관람객 시선을 고려하여

구조적 특징 설명

④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 부각



국민이 만드는 문화재 안내

문안 공모전 수상작 일부 반영



부산 구 남선전기 사옥

종 목 국가등록문화재

지 역 부산광역시 서구

기존 문안

한국전력공사 중부산지사

등록문화재 ❶ 제329호 / 부산 구 남선전기사옥
 ❷ 부산광역시 서구 까치고개로 252 (토성동1가)

❸ 이 건물은 일제강점기인 1936년 10월 부산지역의 전 차운행·전등가설 가스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회사인 조선와사전기(주)의 본사건물로 신축되었다. 1937년 4월 이후에는 서울이남 지역의 6대 전기회사가 합병된 남선헌동전기회사(주) 부산지점 사옥으로 사용되었고, 6.25 피란수도 시절에는 정부의 상공부 건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1961년 7월 1일 전기 3개 회사를 통합한 한국전력주식회사의 발족과 함께 부산 및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부산지사(현, 부산울산본부) 사옥으로 사용되다가, 1988년 본부의 부전동 사옥 이전 이후 현재까지 중부산지사 사옥으로 활용되고 있다. 해수에 장기간 침전시킨 천마산 소나무로 기초파일 공사를 한 후 그 위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세워 건물이 견고하며, 외벽은 화강석 마감 석조물 부착, 출입문을 강조한 ❹ pilaster(사각기둥), 처마선 아래 수평 돌림띠 등으로 장식하여 ❺ 미려한 모습을 띠고 있다. ❻ 내부에는 인조대리석을 이용한 계단 난간, 부산 최초의 엘리베이터(노후화에 따른 철거 후 권상기는 동아대학교 기증, 현재는 상단표지판만 보존), 대형 벽면금고, 난방 배관 등 르네상스양식의 오피스 빌딩 모습이 원형에 가깝게 보존되어 있어, 2007년 7월 문화재청에 의해 근대문화유산(등록문화재329호)으로 지정되었다.



❶ 지정번호 불필요

❷ 소재지 불필요

❸ 문화재의 연혁을 긴 호흡으로
단순 나열

❹ 표기 오류

❺ 감상적 표현 불필요

❻ 문장이 길고 산만하여 정리
필요

개선 문안

부산 구 남선전기 사옥

釜山 舊 南鮮電氣 社屋

국가등록문화재

❶ 이 건물은 부산 지역의 전차 운행과 전등 가설, 가스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선와사전기(주)의 본사 건물로 1936년 10월 신축하였다. 그 뒤 남선합동전기회사(주) 부산 지점 사옥으로 사용되다가 6·25 전쟁 당시에는 정부의 상공부 건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1970년~1980년대에는 한국전력주식회사 부산 지사 사옥으로 사용되다가 지금은 한국전력 중부산 지사로 사용되고 있다.

지하 1층과 지상 5층으로 된 건물로, 1층 외벽은 화강석으로 마감한 뒤 사각의 필라스터(Pilaster)로 출입구를 강조하였으며, 2층에서 5층까지의 외벽은 타일로 마감하였다. 옥상의 처마선 아래는 수평으로 장식한 돌림띠가 돋보인다.

❷ 건물 안에는 계단 난간에 사용된 인조 대리석과 난방 배관, 대형 금고 등이 남아 있어 근대 시기 상업 용도로 사용된 건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2007년 7월 문화재청에 의해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부산 구 남선전기 사옥

釜山 舊 南鮮電氣 社屋

국가등록문화재

이 건물은 부산 지역의 전차 운행과 전등 가설, 가스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선와사전기(주)의 본사 건물로 1936년 10월 신축하였다. 그 뒤 남선합동전기회사(주) 부산 지점 사옥으로 사용되다가 6·25 전쟁 당시에는 정부의 상공부 건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1970년~1980년대에는 한국전력주식회사 부산 지사 사옥으로 사용되다가 지금은 한국전력 중부산 지사로 사용되고 있다.

지하 1층과 지상 5층으로 된 건물로, 1층 외벽은 화강석으로 마감한 뒤 사각의 필라스터(Pilaster)로 출입구를 강조하였으며, 2층에서 5층까지의 외벽은 타일로 마감하였다. 옥상의 처마선 아래는 수평으로 장식한 돌림띠가 돋보인다. 건물 안에는 계단 난간에 사용된 인조 대리석과 난방 배관, 대형 금고 등이 남아 있어 근대 시기 상업 용도로 사용된 건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2007년 7월 문화재청에 의해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Former Building of Namseon Electric, Busan
National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The building was completed in October 1936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1910-1945) to be used as the main headquarters of the Busan Electric Company, which operated electric trains, installed lights, and provided gas to the Busan region. It was then used as the Busan branch of the Namseon South Electric Company and temporarily served as the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during the Korean War (1950-1953). In the 1970s and 1980s, it was used as the regional headquarters of the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EPCO). It has since been used as KEPCO's Central Busan branch.

The building consists of one underground floor and five above-ground floors. The exterior of the first story is finished with granite and features a protruding granite entrance. The exterior of the upper stories is finished with tile. The horizontal overhang of the roof features a decorative cornice. The interior retains several original features, including the interior marble of the staircase and balustrade, the heating pipes, and the large safe. As a well-preserved example of an early 20th-century commercial building, it was listed as National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in July 2007.

❶ 문화재의 변천 과정을 읽기 쉬운
단어와 문장으로 기술함

❷ 문화재 가치와 지정 사유 설명



문단을 구분하여 가독성을 높임



Q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일은 무엇인가요?

A: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자체가 다소 생소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안내판 설치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시민자문단을 거치고 국문 및 영문 문안 감수를 받아 실제로 정비된 안내판을 설치하기까지 생각보다 많은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를 수행하면서 문화재 안내판 사업 지침을 준수하고자 노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문화재 안내판 가이드라인 및 개선사례집'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Q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 신속하게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사업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최대한 상반기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노력하였고, 덕분에 상반기 내에 문화재 안내판 정비를 마무리하여 '부산 구 남선전기 사옥'을 접하는 시민들에게 정비된 안내판으로 바른 문화재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 수정동 일본식 가옥

종 목 부산광역시유형문화재

지 역 부산광역시 동구

기존 문안

부산 수정동 일본식 가옥

釜山 水晶洞 日本式 家屋

종목 : 등록문화재 ① 제330호 (등록:2007년 7월 3일)

② 면적 : 대지 660㎡, 건축 304.47㎡(1층 176.5, 2층 127.97)

관리자 : 문화유산국민신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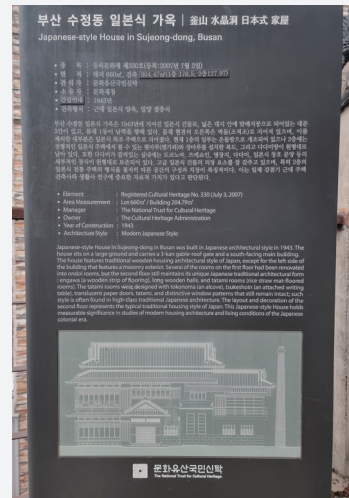
소유자 : 문화재청

건립연대 : 1943년

건축양식 : 근대 일본식 양옥, 일양 절충식

③ 부산 수정동 일본식 가옥은 1943년에 지어진 일본식 건물로, 넓은 대지 안에 맞배지붕으로 되어있는 대문 3칸이 있고, 몸채 1동이 남쪽을 향해 있다. 몸채 현관의 오른쪽은 벽돌(조적조)로 지어져 있으며, 이를 제외한 대부분은 일본식 목조 주택으로 지어졌다. 현재 1층의 일부는 온돌방으로 개조되어 있으나 2층에는 전형적인 일본식 주택에서 볼 수 있는 툇마루(엔가와)와 장마루를 설치한 복도, 그리고 다다미방이 원형대로 남아 있다.

④ 또한 다다미가 깔려있는 실내에는 도코노마, 쓰케쇼인, 명장지, 다다미, 일본식 창호 문양 등의 세부적인 장식이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다. 고급 일본식 건물의 의장 요소를 잘 갖추고 있으며, 특히 2층의 일본식 전통 주택의 형식을 철저히 따른 공간의 구성과 치장이 특징적이다. 이는 일제 강점기 근대 주택 건축사와 생활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① 불필요한 지정번호와 등록일

② 불필요한 정보 기재

③ 만연체로 작성된 문장의 수정 필요

④ 일본용어를 해석없이 사용하여 이해하기 어려움

개선 문안

부산 수정동 일본식 가옥

釜山 水晶洞 日本式 家屋

부산 수정동 일본식 가옥을 일제 강점기인 1943년 넓은 대지 안에 맞배지붕의 대문과 본채로 구성된 2층 목조 건물이다.

① 1945년 광복 이후 소유권이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부엌과 정원 등이 새로 조성되었다. 1970년대에는 본채의 뒷면과 오른편 1층 처마 밑에 콘크리트 건물을 증축하여 고급 음식점으로 사용하였다. 1991년 11월에는 본채의 왼편 토지 일부를 매각한 후 연못과 정원이 대폭 축소되었으며, 2007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뒤에는 보수 정비 공사를 통해 배면*의 증축 부분을 철거하고 창고를 복원하여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

② 현재 1층은 일부가 온돌방으로 개조되었으나 2층은 툇마루와 장마루**를 가진 전형적인 일본식 복도와 일본식 돗자리를 깐 다다미방이 원형 그대로 남아 있다. 조경석을 사용한 일본식 정원 조성 방식과 조경수를 심은 모습 등은 일본의 전통 건축 형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그러나 기둥과 초석, 서까래, 정밀하게 가공한 이층 난간과 창호 등은 당시의 일반적인 일본식 주택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③ 국내에 현존하는 일본식 건축물 중에서 규모와 의장, 공간 구성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당시의 주택사와 생활사 연구에서 귀중한 자료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④* 배면(背面) : 위치상으로 등쪽의 면

** 장마루 : 장귀틀과 동귀틀을 놓아서 짜지 않고 긴 널로 죽죽 깔아서 만든 마루

부산 수정동 일본식 가옥

釜山 水晶洞 日本式 家屋

부산 수정동 일본식 가옥은 일제 강점기인 1943년 넓은 대지 안에 맞배지붕의 대문과 본채로 구성된 목조 건물이다.
1945년 광복 이후 소유권이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부엌과 정원 등이 새로 조성되었다. 1970년대에는 본채의 뒷면과 오른편 1층 처마 밑에 콘크리트 건물을 증축하여 고급 음식점으로 사용하였다. 1991년 11월에는 본채의 왼편 토지 일부를 매각한 후 연못과 정원이 대폭 축소되었으며, 2007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뒤에는 보수 정비 공사를 통해 배면*의 증축 부분을 철거하고 창고를 복원하여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
현재 1층은 일부가 온돌방으로 개조되었으나 2층은 툇마루와 장마루**를 가진 전형적인 일본식 복도와 일본식 돗자리를 깐 다다미방이 원형 그대로 남아 있다. 조경석을 사용한 일본식 정원 조성 방식과 조경수를 심은 모습 등은 일본의 전통 건축 형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그러나 기둥과 초석, 서까래, 정밀하게 가공한 이층 난간과 창호 등은 당시의 일반적인 일본식 주택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 현존하는 일본식 건축물 중에서 규모와 의장, 공간 구성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당시의 주택사와 생활사 연구에서 귀중한 자료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배면(背面) : 위치상으로 등쪽의 면

**장마루 : 장귀틀과 동귀틀을 놓아서 짜지 않고 긴 널로 죽죽 깔아서 만든 마루



Japanese-style House in Sujeong-dong, Busan

This house was built in 1943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1910-1945) by a Japanese entrepreneur. It consists of a gate quarters with a gabled roof, a two-story main quarters, and a one-story storeroom. With respect to the scale, design, and organization of space, this house is considered particularly impressive when compared to other Japanese-style buildings built in Korea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The house demonstrates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 upscale Japanese-style houses in the Busan area at the time and is valuable in the research on the history of residential architecture and domestic life.

Following the liberation of Korea in 1945, the house came into possession of a different owner who added a new kitchen and built a garden and pond. In the 1970s, a concrete extension was built along the back and right side of the main quarters' first floor to be used as a restaurant. In November 1991, part of the property to the left of the main quarters was sold, thus resulting in the loss of much of the garden area. In 2007, the house was listed as National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and underwent a renovation that included the removal of the annex and the repair of the storeroom. Although a part of the ground floor was redesigned to have underfloor heating, the upper floor retains the original Japanese-style corridors and tatami mat rooms. The garden features decorative stones and trees, typical for the Japanese architectural style. However, some of the features like the pillars, pillar base stones, rafters, and elaborate balconies and window frames on the upper floor are quite unique to this house and are not common in Japanese architecture.

① 문화재 연혁 설명

② 문화재의 건축 양식과 특징
서술

③ 문화재의 가치 보각

④ 각주를 사용하여 전문용어
설명



인천 세관 구 창고와 부속동

종 목 국가등록문화재

지 역 인천광역시 중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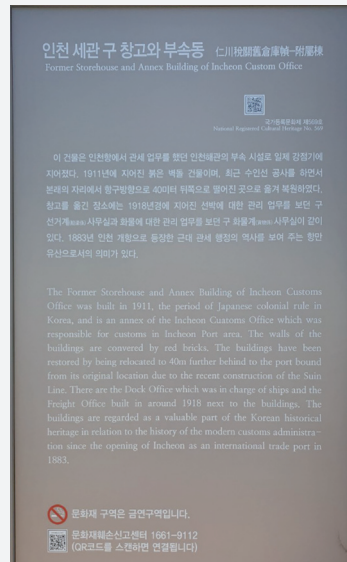
기존 문안

1 인천 세관 구 창고와 부속동

仁州稅關舊倉庫幙 附屬棟

국가등록문화재 2 제569호

이 건물은 인천항에서 관세 업무를 했던 인천해관의 부속 시설로 일제 강점기에 지어졌다. 1911년에 지어진 붉은 벽돌 건물이며, 최근 수인선 공사를 하면서 본래의 자리에서 항구방향으로 40미터 뒤쪽으로 떨어진 곳으로 옮겨 복원하였다. 창고를 옮긴 장소에는 1918년경에 지어진 선박에 대한 관리 업무를 보던 구 선거계(船渠係) 사무실과 화물에 대한 관리 업무를 보던 구 화물계(貨物係) 사무실이 같이 있다. 1883년 인천 개항으로 등장한 근대 관세 행정의 역사를 보여주는 항만 유산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1 문화재 명칭 표기 오류

2 지정번호 불필요



문안이 짧고 내용이 문화재
연혁 소개가 주를 이룸

개선 문안

인천 세관 구 창고와 부속동

仁川 稅關 舊 倉庫와 附屬洞

국가등록문화재

❶ 이 건물들은 1911년에 신축된 인천 세관의 창고와 부속 건물이다. 조선은 1876년에 일본과 조일수호조규를 맺으면서 부산, 원산, 인천 3곳의 항구를 순차적으로 개방하였다. 그리고 외국 물품의 수출입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였다.

❷ 인천 세관은 당시 인천항을 통과한 모든 물품과 사람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 거쳐 간 곳이다. 처음에는 항구를 통해 드나드는 물품에 세금을 매기는 것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여 관세를 걷지 않았다. 그러다가 1883년에 지금의 세관인 해관(海關)을 설치하고 관세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인천은 우리나라 최초로 근대 세관 업무를 시작한 곳으로 이 건물들은 그 의미를 보여주는 유적이다.

❸ 창고 건물은 1911년에, 선박 관리와 화물 관리 업무를 보던 부속 건물 두 동은 1919년에 건립되었다. 하지만 세관은 한국 전쟁 때 불탔으며, 창고와 부속 건물만 남았다. 2012년에 수인선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창고는 원래 자리에서 40미터가량 옮겨 복원하였다. 나무로 만든 지붕 구조에 붉은 벽돌로 마감한 창고의 디자인은 새로 지은 신포역 출구에 반영되었다.

인천 세관 구 창고와 부속동 | 仁川 稅關 舊 倉庫와 附屬洞

Former Storehouse and Annex Buildings of Incheon Customs Office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이 건물들은 1911년에 신축된 인천 세관의 창고와 부속 건물이다. 조선은 1876년에 일본과 조일수호조규를 맺으면서 부산, 원산, 인천 3곳의 항구를 순차적으로 개방하였다. 그리고 외국 물품의 수출입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였다.

인천 세관은 당시 인천항을 통과한 모든 물품과 사람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 거쳐 간 곳이다. 처음에는 항구를 통해 드나드는 물품에 세금을 매기는 것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여 관세를 걷지 않았다. 그러다가 1883년에 지금의 세관인 해관(海關)을 설치하고 관세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인천은 우리나라 최초로 근대 세관 업무를 시작한 곳으로 이 건물들은 그 의미를 보여주는 유적이다.

창고 건물은 1911년에, 선박 관리와 화물 관리 업무를 보던 부속 건물 두 동은 1919년에 건립되었다. 하지만 세관은 한국 전쟁 때 불탔으며, 창고와 부속 건물만 남았다. 2012년에 수인선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창고는 원래 자리에서 40미터가량 옮겨 복원하였다. 나무로 만든 지붕 구조에 붉은 벽돌로 마감한 창고의 디자인은 새로 지은 신포역 출구에 반영되었다.

These two brick buildings served as the storehouse and the annex buildings of Korea's first modern customs office in Incheon. The main building of the customs office was destroyed during the Korean War (1950-1953), and only these three buildings remain. The storehouse was built in 1911, and the annex buildings were built in around 1919.

In 1876, Korea signed an unequal treaty with Japan and was forced to open the ports of Busan, Wonsan, and Incheon, in that respective order. During this time, Korea started officially importing and exporting goods. However, as the concept of customs was unfamiliar to Korea, no tariffs were imposed on the imported goods during the first years. Finally, in 1883, the Incheon Customs Office was established and taxation began. All people and goods arriving at the port of Incheon had to pass through the building before entering the country.

In 2012, the storehouse was relocated about 40 m from its original location due to the construction of the Sun Line of Seoul Metropolitan Subway. The exterior of Exit 2 of Sinpo Station, built in 2016, was designed to resemble the storehouse building.

❶ 문화재의 건축 시기와 용도 설명

❷ 해당 문화재가 가지는 의미를 알기 쉽게 설명

❸ 문화재의 연혁과 현대에 적용된 사례 소개



국민이 만드는 문화재 안내판

안내 문안 소상작 일부 반영

Q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일은 무엇인가요?

A : 안내판 정비사업의 어려운 점은 무엇보다도 문안 작성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해야 하고 누구나 알기 쉽게 내용을 작성하면서 문화재에 대한 검증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이 부분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시민자문단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전문가에게 문안 작성을 의뢰하였습니다.

Q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 : 일반인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내용을 발굴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구 대전형무소 망루

종 부 문화재자료

지 표 대전광역시

기존 문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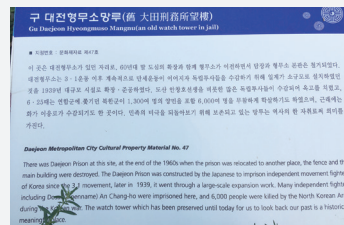
구 대전형무소망루

舊 大田刑務所望樓

지정번호 : 문화재자료 ① 제47호

이곳은 대전형무소가 있던 자리로, 60년대 말 도심의 확장과 함께 형무소가 이전하면서 담장과 형무소 본관은 철거되었다.

대전형무소는 3·1 운동 이후 계속적으로 만세운동이 이어지자 독립투사들을 수감하기 위해 일제가 소규모로 설치 하였던 것을 1939년 대규모 시설로 확장·준공하였다. 도산 안창호선생을 비롯한 많은 독립투사들이 수감되어 옥고를 치렀고, 6·25 때는 연합군에 쫓기던 북한군이 1,300여 명의 양민을 포함 6,000여 명을 무참하게 학살하기도 하였으며, 근래에는 화가 이응로가 수감되기도 한 곳이다. 민족의 비극을 되돌아보기 위해 보존되고 있는 망루는 역사의 한 자취로써 의미를 가진다.



① 지정번호 불필요



전반적으로 내용은 좋으나

문안이 짧고 수감된 인물

나열이 주를 이룸

Q 이번에 『구 대전형무소 망루』를 정비했는데, 해당 문화재 안내판 정비 시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무엇인가요?

A : 『구 대전형무소 망루』는 수형자 감시를 위해 형무소 담장 모서리에 세워던 감시초소입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안창호, 여운형, 김창숙 등 많은 항일독립투사들이 옥고를 치른 곳이며, 1960년대 이후에는 수많은 민주 인사들이 옥고를 치른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987년 형무소 부지 일부에 아파트가 건립되고 현재는 형무소의 흔적 중 우물 1기와 망루 1기만 남아있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형무소 부지 일부에 조그마한 쉼터공원처럼 조성해놨서 많은 분들이 휴식을 즐기는 곳인데요. 남아있는 망루와 우물을 보며 그 당시 옥고를 치른 분들의 가슴아픈 상황과 슬픔을 함께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선 문안

구 대전형무소 망루

舊 大田刑務所望樓

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① 대전형무소 망루는 수형자를 감시하기 위해 대전형무소 담장

모서리에 세워둔 감시 초소이다.

② 3·1운동으로 인해 수감자가 많아지자 일제는 부족한 수감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1919년 대전감옥으로 개소한 곳이다. 이곳은 1923년 대전형무소로, 1961년 대전교도소로 각각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 후 1984년 대전교도소가 유성구 대정동으로 이전하면서 대부분의 시설이 철거되고, 1987년 부지 일부에 아파트가 건립되어 현재는 형무소의 흔적 중 우물 1기와 망루 1기만 남아 있다.

③ 대전형무소는 일제강점기에 안창호, 여운형, 김창숙 등 많은

항일독립투사들이 옥고를 치른 곳이며, 한국전쟁 당시에는 북한군이 반공주의자들과 민간인을 학살했던 곳이기도 하다. 당시 학살 장소 중 한 곳이 현재 남아 있는 우물이다. 1960년대 이후에는 화가 이용노 화백의 수감을 비롯하여 독재에 항거한 수많은 민주 인사들이 옥고를 치른 곳이기도 하다.

④ 망루의 높이는 7.85m이며, 건축 면적은 30.5㎡이다. 망루는

붉은 벽돌을 원통형으로 쌓고 시멘트모르타르(시멘트와 모래를 물에 갠 접합제)로 마감했다. 평면은 장방 원형으로 내부에 계단을 두고 최상층에 감시실을 두었다. 최상층에는 발코니를 내밀어 난간을 설치했는데, 평슬래브 지붕을 몸체보다 넓게 밖으로 내밀어 발코니에서 비를 맞지 않도록 했다.

감시실로 올라가는 계단은 철재로 가파르게 만들었고, 중간에 환기와 채광을 위한 작은 창이 뚫려 있다. 최상층 감시실은 출입문과 사방으로 창을 두어 형무소 내외를 잘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최상층의 감시실을 제외한 망루의 몸체 부분에는 큰 간격으로 격자형 줄눈을 만들어 두었다.

망루 하층부에는 벽돌담과 연결되었던 흔적이, 중간부에는 철거 당시 벽돌담이 뜯긴 흔적이 남아 있다.

구 대전형무소 망루

舊 大田刑務所 望樓
Watchtower of the
Former Daegu Prison

대전형무소 망루는 수형자를 감시하기 위해 대전형무소 담장 모서리에 세워둔 감시 초소이다. 3·1운동으로 인해 수감자가 많아지자 일제는 부족한 수감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1919년 대전감옥으로 개소한 곳이다. 이곳은 1923년 대전형무소로, 1961년 대전교도소로 각각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 후 1984년 대전교도소가 유성구 대정동으로 이전하면서 대부분의 시설이 철거되고, 1987년 부지 일부에 아파트가 건립되어 현재는 형무소의 흔적 중 우물 1기와 망루 1기만 남아 있다.

대전형무소는 일제강점기에 안창호, 여운형, 김창숙 등 많은 항일독립투사들이 옥고를 치른 곳이며, 한국전쟁 당시에는 북한군이 반공주의자들과 민간인을 학살했던 곳이기도 하다. 당시 학살 장소 중 한 곳이 현재 남아 있는 우물이다. 1960년대 이후에는 화가 이용노 화백의 수감을 비롯하여 독재에 항거한 수많은 민주 인사들이 옥고를 치른 곳이기도 하다.

망루의 높이는 7.85m이며, 건축 면적은 30.5㎡이다. 망루는 붉은 벽돌을 원통형으로 쌓고 시멘트모르타르(시멘트와 모래를 물에 갠 접합제)로 마감했다. 평면은 장방 원형으로 내부에 계단을 두고 최상층에 감시실을 두었다. 최상층에는 발코니를 내밀어 난간을 설치했는데, 평슬래브 지붕을 몸체보다 넓게 밖으로 내밀어 발코니에서 비를 맞지 않도록 했다.

감시실로 올라가는 계단은 철재로 가파르게 만들었고, 중간에 환기와 채광을 위한 작은 창이 뚫려 있다. 최상층 감시실은 출입문과 사방으로 창을 두어 형무소 내외를 잘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최상층의 감시실을 제외한 망루의 몸체 부분에는 큰 간격으로 격자형 줄눈을 만들어 두었다.

망루 하층부에는 벽돌담과 연결되었던 흔적이, 중간부에는 철거 당시 벽돌담이 뜯긴 흔적이 남아 있다.

This watchtower was a guard post of Daegu Prison. Daegu Prison was established by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to accommodate the growing number of prisoners from the Sout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of 1919. During the colonial period (1910-1945), many Korean patriots were imprisoned here. It also served as a main Korean army detention facility and a prison during the Korean War (1946-1953). After the 1980s, many democratic leaders who opposed the dictatorship were imprisoned here. In 1984, a new prison was built in Daegu-dong, Yongsong-gu, so most of the facilities here were demolished. In 1987, an apartment complex was built on part of this site. All that remains of the prison are this watchtower and a well.

It is said that the first watchtower built at this site was made of wood, but was replaced with a concrete watchtower sometime after 1945. The current watchtower, built in 1971, measures 7.85 m in height and is made of red brick finished with cement mortar. Inside the ciling structure is an iron staircase that leads to the observation room at the top, which is surrounded by a balcony and railing. Small windows were installed on the side of the watchtower for natural lighting and ventilation. Rows of where the watchtower originally connected to the prison wall can be seen on one side of the watchtower's base.

① 문화재의 개념 소개

② 문화재의 연혁 설명

③ 당시 소장된 인물 소개를
생생하고 알기쉽게 설명④ 문화재의 규모와 건축소재,
구조를 단계적으로 설명



화천 꺼먹다리

종 목 국가등록문화재

지 역 강원도 화천군

기존 문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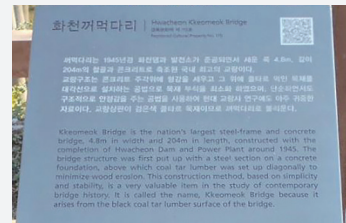
화천꺼먹다리

등록문화재 1 제110호

꺼먹다리는 1945년경 화천댐과 발전소가 준공되면서 세운 폭 4.8m, 길이 204m의 철골과 콘크리트로 축조된 국내 최고의 교량이다.

교량구조는 콘크리트 주각 위에 형강을 세우고 그 위에 콜타르 먹인 목재를 대각선으로 설치하는 공법으로 목재 부식 최소화 하였으며, 단순하면서도 구조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공법을 사용하여 현대 교량사 연구에도 아주 귀중한 자료이다.

2 교량상판이 검은색 콜타르 목재이므로 꺼먹다리로 불리운다.



1 지정번호 불필요

2 문화재 명칭의 유래는 앞부분에 두는 것이 적절함



역사적 배경이나 문화재
가치 설명 필요

개선 문안

화천 꺼먹다리

華川 꺼먹다리

국가등록문화재

❶ 꺼먹다리는 1940년대 화천댐과 화천수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세운 폭 4.5m, 길이 204.84m의 다리이다.

❷ 철근콘크리트로 만든 기둥 위에 철골 구조물로 뼈대를 세우고 마지막으로 나무를 올려 완성하였다. 다리에 사용한 나무는 네모난 모양으로 깎은 후 대각선으로 놓았으며, 부식을 막기 위해 콜타르를 칠하였다. 이 콜타르의 색이 검어서 다리도 전체적으로 검은색을 띠므로 ‘꺼먹다리’라는 이름이 붙었다.

❸ 한국 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지만 꺼먹다리가 남과 북을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였기 때문에 남과 북이 다리를 폭파하지 않고 남겨 두었다. 그래서 꺼먹다리에 총알의 흔적은 많이 남아 있지만 원래의 모습이 잘 보존되었다.

꺼먹다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보수공사를 거쳐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 ❹ 단순하면서도 안정된 구조로 만들어 현대 교량사 연구에 좋은 자료이다.

화천 꺼먹다리

華川 꺼먹다리

국가등록문화재
National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꺼먹다리는 1940년대 화천댐과 화천수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세운 폭 4.5m, 길이 204.84m의 다리이다. 철근콘크리트로 만든 기둥 위에 철골 구조물로 뼈대를 세우고 마지막으로 나무를 올려 완성하였다. 다리에 사용한 나무는 네모난 모양으로 깎은 후 대각선으로 놓았으며, 부식을 막기 위해 콜타르를 칠하였다. 이 콜타르의 색이 검어서 다리도 전체적으로 검은색을 띠므로 ‘꺼먹다리’라는 이름이 붙었다.

한국 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지만 꺼먹다리가 남과 북을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였기 때문에 남과 북이 다리를 폭파하지 않고 남겨 두었다. 그래서 꺼먹다리에 총알의 흔적은 많이 남아 있지만 원래의 모습이 잘 보존되었다.

꺼먹다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보수공사를 거쳐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 단순하면서도 안정된 구조로 만들어 현대 교량사 연구에 좋은 자료이다.

Kkeomeok Bridge, Hwacheon

Kkeomeok Bridge, spanning the Bukhangang River, was built in the 1940s when Hwacheon Dam and Hwacheon Hydropower Plant were constructed. It measures about 205 m in length and 4.5 m in width. The lower part of the piers are made of reinforced concrete, and the upper part of the piers and the beams are made of steel. The decking is made of rectangular wood planks that were laid in a diagonal pattern and coated with coal tar to prevent corrosion. As both the coal tar and the overall color of the bridge is black, it is called Kkeomeok, meaning "Black" Bridge. With its simple, yet balanced design, this bridge is useful in the study of modern bridge history.

This bridge is located to the north of the 38th Parallel, which divided the Korean Peninsula from 1945 to 1950. During the Korean War (1950-1953), this border region was a venue of fierce battles. Because Kkeomeok Bridge was an important transportation route connecting the north and south, it was spared from bombing. There are traces of bullets remaining on the bridge, but it is otherwise relatively well preserved. Due to safety concerns, the bridge was repaired from 2017 to 2019 and reopened to the public in 2020.

❶ 문화재 규모 소개

❷ 문화재의 구조적 특징과 함께

‘꺼먹다리’라는 명칭의 유래

설명

❸ 문화재 의의와 관람 포인트

설명

❹ 문화재 지정 사유 및 가치 설명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종 목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지 역 제주특별자치도

기존 문안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戊午 法井寺 抗日運動 發祥地

① 명칭 :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유형/지정일 : ② 도지정 기념물 제61-1호(2003. 11. 12)

③ 위치 : 서귀포시 1100로 740-168

무오법정사항일운동은 “기미(1919년) 3·1운동”보다 5개월 먼저 일어난 제주도 내의 최초 최대의 항일운동이자 1910년대 종교계가 일으킨 전국 최대 규모의 무장항일 운동이다. 1918년 10월 7일(월) 서귀포시 도순동 산1번지에 있는 법정사에서 평소 일본제국의 통치를 반대하던 불교계의 김연일(金連日)·방동화(房東華) 등 승려들이 중심이 되어 법정사 신도와·선도교도·민간인 등 400여명이 집단으로 무장하여 2일 동안 조직적으로 일본에 항거한 항일운동으로서, 1919년대의 3·1운동을 비롯하여 민족항일의식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나가는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은 당시 법정사 주지인 김연일스님 등 30여인에 의하여 ④ 1918년 5월부터 10월 7일 거사일까지 무장항일거사 계획을 면밀하게 추진해 나가면서 『우리 조선은 일본에 탈취 당해 괴로워하고 있다.… 1918년 ⑤ (음)9월 3일 오전 4시 하원리에 집합하라. 그래서 ⑥ (음)9월 4일 대거 제주향(濟州鄉·제주시)을 습격하여 관리를 체포하고 보통 일본인을 추방하라.』라는 격문을 만들어 법환동·호근동·영남동 등 각 마을 구장에게 격문을 돌리도록 하고, 10월 7일 ⑦ (음 9.3) 새벽 무장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공격의 1차 목표는 서귀포 순사주재소였으나 여의치 못하자 2차 목표인 중문리 순사주재소를 습격하였다. 이 과정에서 ‘큰내’(江汀川)를 가로지르는 전선과 전주 2개를 절단 무너뜨렸고 하원리에 이르자 항일항쟁에 참여한 가담자가 300~400명에 이르렀다. 중문주재소를 습격하기 위해 중문리로 향하던 일행은 하원리에서 ⑧ 일본인 고이즈미세이싱(小泉清身), 장로교의 윤명식(尹淸明)과 일행 부용혁(夫容赫)을 때려 상처를 입히고, 중문순사주재소에 불을 질렀다. 이후 연락을 받고 출동한 서귀포순사주재소 순사들에 의해 총격을 받고 퇴각하면서 흩어지게 되었다. ⑨ 무장항일운동에 참여했던 주요 가담자 66명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으로 송치되었으며, 그 중 48명이 소요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1919년 2월 4일, 실험 선고 31명, 벌금 15명, 재판전 옥사 2명, 수감 중 옥사 3명, 불기소 18명이었다. ⑩ 항일운동의 발상지인 법정사는 ‘법정악’ 능선 해발 680m 지점에 있다. 법당은 우진각 지붕의 초당이었으며, 면적은 87.3㎡의 작은 절이었으나, 당시 항일지사들의 체포와 동시에 일본순사들에 의해 불태워졌고 지금은 축대 등 건물 흔적만 남아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1996년도부터 항일운동발상지의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2004년도에는 400인의 합동신위와 66인의 영정을 모신 의열사가 준공되었다.



① 불필요한 정보 기재

② 지정 종목 명칭 오류. 지정
번호 불필요. 지정일 불필요

③ 소재지 불필요

④~⑦ 양력과 음력이 혼재되어
있어 통일할 필요가 있음

⑧~⑨ 과도한 정보 제공

⑩ 문장이 길고 정리가 필요함



· 단락 구분 필요

· 전반적으로 자세하고 필요한
내용을 담았으나 읽기 쉽게
정리할 필요가 있음

개선 문안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戊午法井寺 抗日運動 發祥址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①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은 제주도 내 최초·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이다. 1918년 10월 7일에 법정사 주지 김연일과 승려들을 중심으로 인근 마을 주민 700여 명이 일본인을 몰아내고 국권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일어섰다.

김연일은 1914년경부터 법정사 신도 등 지역 주민에게 국권 침탈의 부당함을 설명하며 항일 의식을 심어주었고, 1918년 4월경부터 조직을 구성하고 격문과 무기를 준비하는 등 거사를 계획하였다.

② 1918년 10월 7일 새벽에 법정사 예불을 마친 34명의 선봉대는 국권 회복을 내세우며 법정사를 출발하여 마을마다 참여자를 모았다. 이들은 선봉대장의 지휘에 따라 서귀포와 제주읍내 간 통신을 단절하기 위하여 전선을 절단하고, 하원리에서 일본인 일행을 구타하였으며 중문리 경찰관 주재소를 불태우는 등 국권 회복을 위한 거사를 실행하였다.

거사 이후 총으로 무장한 서귀포 기마 순사대는 참여자들을 해산시키고 법정사를 불태웠다. 이 사건으로 일제는 참여자 66명을 검거하고 48명에게 징역 10년 형부터 벌금 30원 형까지 선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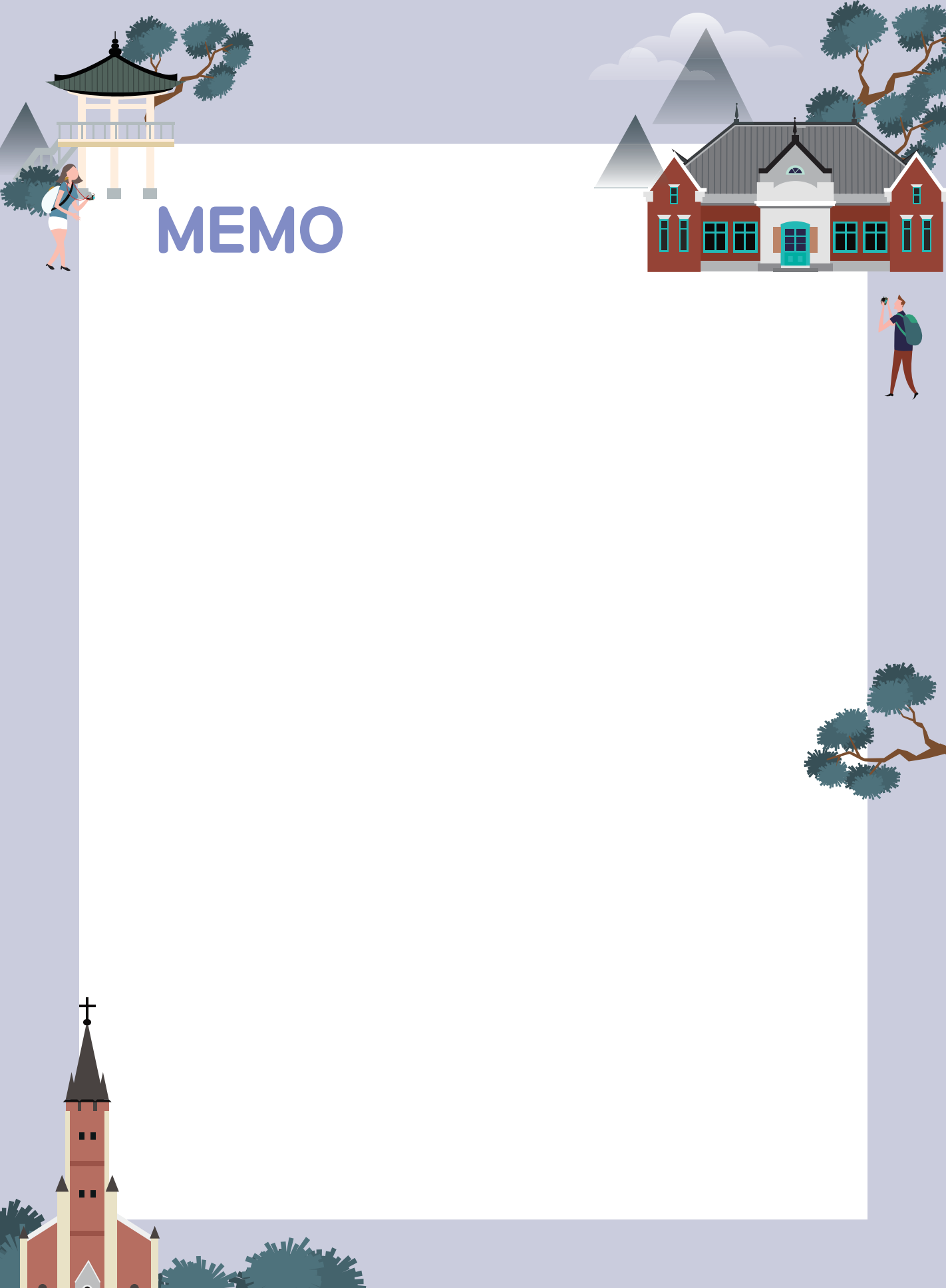


① 해당 기념물이 생긴 배경을
알기 쉽게 설명

② 거사 진행과 이후 내용을 간략
하게 설명함으로써 가독성이 좋고
이해하기 쉬움



전체적으로 기존 문안의
내용과 같으나 이해하기
쉽게 문장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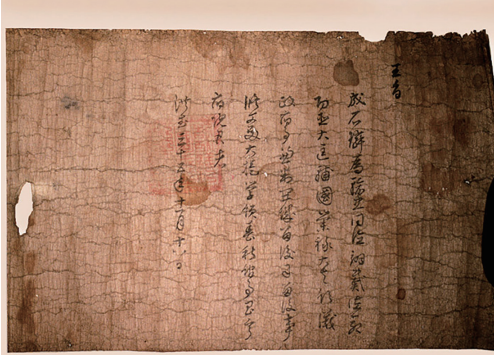
MEMO

2021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개선사례



동산문화재



성석린 고신 왕지

종 목 보물

지 역 전라북도 진안군

기존 문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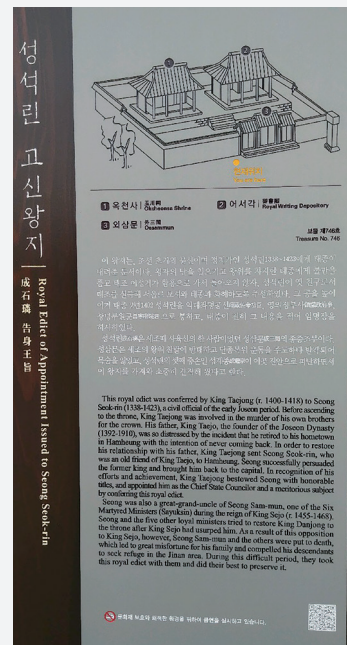
성석린 고신왕지

成石璘 告身王旨

보물 ① 제746호

이 왕지는 조선 초기의 문신이며 정치가인 성석린 1338~1423에게 태종이 내려준 문서이다. ②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왕위를 차지한 태종에게 불만을 품고 태조 이성계가 함흥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자, 성석린이 옛 친구로서 태조를 설득해 서울로 모셔와 태종과 화해하도록 주선하였다. 그 공을 높이 여겨 태종 2년1402 성석린을 ③ 익대좌명공신(翊戴佐命功臣),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창녕부원군(昌寧府院君)으로 봉하고, 태종이 친히 그 내용을 적어 임명장을 하사하였다.

성석린(成石璘)은 세조 때 사육신의 한 사람이었던 성삼문(成三問)의 종증조부이다. 성삼문은 세조의 왕위 찬탈에 반대하고 단종 복위 운동을 주도하다 발각되어 목숨을 잃었고, 성석린의 셋째 증손인 성계종(成繼宗)이 이곳 진안으로 피난하면서 이 왕지를 가져와 소중히 간직해 왔다고 한다.



① 지정번호 불필요

② 목적어와 보어의 서술이 어색함

③ 단순 직급 나열로 흥미 하락



고신왕지와는 관계없는 건물

도면 삽입으로 이해도 하락

개선 문안

성석린 고신 왕지

보물

성석린 고신 왕지는 조선의 제3대 왕 태종(1367~1422)이 성석린에게 내린 임명장이다.

① ‘고신(告身)’은 조정에서 내리는 벼슬아치의 임명장을 말하며, ‘왕지(王旨)’는 임금의 신하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때 내리는 문서로, 흔히 교지(敎旨)라고도 한다.

② 태종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 왕위에 오르자, 화가 난 아버지 태조 이성계는 함흥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이때 이성계의 옛 친구였던 성석린이 태조를 설득하여 두 부자를 화해시켰다. 이 왕지가 작성된 날은 ‘홍무(洪武)* 35년 11월 18일’로 되어 있는데, 홍무 35년은 태종 2년(1402)이다. 태종은 이러한 성석린의 공로를 치하하여, 성석린의 좌명공신(佐命功臣)**으로 봉하고 영의정부사(領議政府使)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왕지를 친히 써서 내렸다.

③ 필체는 흘려 쓴 초서체(草書體)이고, 종이 크기는 가로 61.1cm 세로 32cm이다.

1883년에 창녕 성씨 문중에서 어서각(御書閣)***을 지어 고신 왕지를 보관하고 있다.

④* 홍무(洪武): 명나라 태조 주원장의 연호

** 좌명공신(佐命功臣): 정종 2년(1400) 제2차 왕자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 어서각(御書閣): 임금이 손수 쓴 글씨를 보관하기 위해 세운 건물로, 전라북도에는 진안과 장수에 하나씩 남아 있다.

성석린 고신 왕지

[보물 제 746호]

성석린 고신 왕지는 조선의 제3대 왕 태종 2년(1402)에 성석린에게 내린 임명장이다. ‘고신’은 조정에서 내리는 벼슬아치의 임명장을 말하며, ‘왕지’는 임금의 신하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때 내리는 문서로, 흔히 교지라고도 한다. 태종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 왕위에 오르자, 화가 난 아버지 태조 이성계는 함흥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이때 이성계의 옛 친구였던 성석린이 태조를 설득하여 두 부자를 화해시켰다. 이 왕지가 작성된 날은 ‘홍무 35년 11월 18일’로 되어 있는데, 홍무 35년은 태종 2년(1402)이다. 태종은 이러한 성석린의 공로를 치하하여, 성석린을 좌명공신**으로 봉하고 영의정부사***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왕지를 친히 써서 내렸다. 필체는 흘려 쓴 초서체이고, 종이 크기는 가로 61.1cm 세로 32cm이다. 1883년에 창녕 성씨 문중에서 어서각***을 지어 고신 왕지를 보관하고 있다.

‘좌명공신’은 정종 2년(1400) 제2차 왕자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어서각’은 임금이 손수 쓴 글씨를 보관하기 위해 세운 건물로, 전라북도에는 진안과 장수에 하나씩 남아 있다.

*** 홍무 35년: 명나라 태조 주원장의 연호

Royal Edict of Appointment Issued to Seong Seok-rin
Treasure No. 746

This royal edict was issued in 1402 by King Taping (r. 1402-1422) to Seong Seok-rin (1338-1423) for his appointment as chief state counselor, the highest government position in the government. The paper measures 61.1 cm by 32.0 cm in length.

Seong Seok-rin passed the state examination in 1357 during the Goryeo period (918-1392) and served various government posts. He helped in the establishment of the Joseon dynasty (1392-1910), for which he received the title of meritorious subject.

While still a prince, King Taping led a rebellion to ensure his succession to the throne. His father, King Toppo (r. 1392-1398), was disheartened by the fighting, retreating to his hometown of Hamhung. However, Seong Seok-rin, who was an old friend of King Toppo, was able to repair the damaged relationship between father and son. In recognition of this, King Taping bestowed upon Seong the title of meritorious subject and issued this personally calligraphed edict which appointed him as chief state counselor.

In 1883, the descendants of Seong Seok-rin of the Changnyeong Seong clan family built a Royal Calligraphy Pavilion to house this document.



▲ 왕지(王旨) 문서
Royal Edict of Appointment Issued to Seong Seok-rin

① 혼동하기 쉬운 왕지와 교지의

개념 설명

② 기존 문안에 있는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가독성과

이해도 높여줌

③ 문화재의 크기와 특징 설명

④ 각주를 사용하여 전문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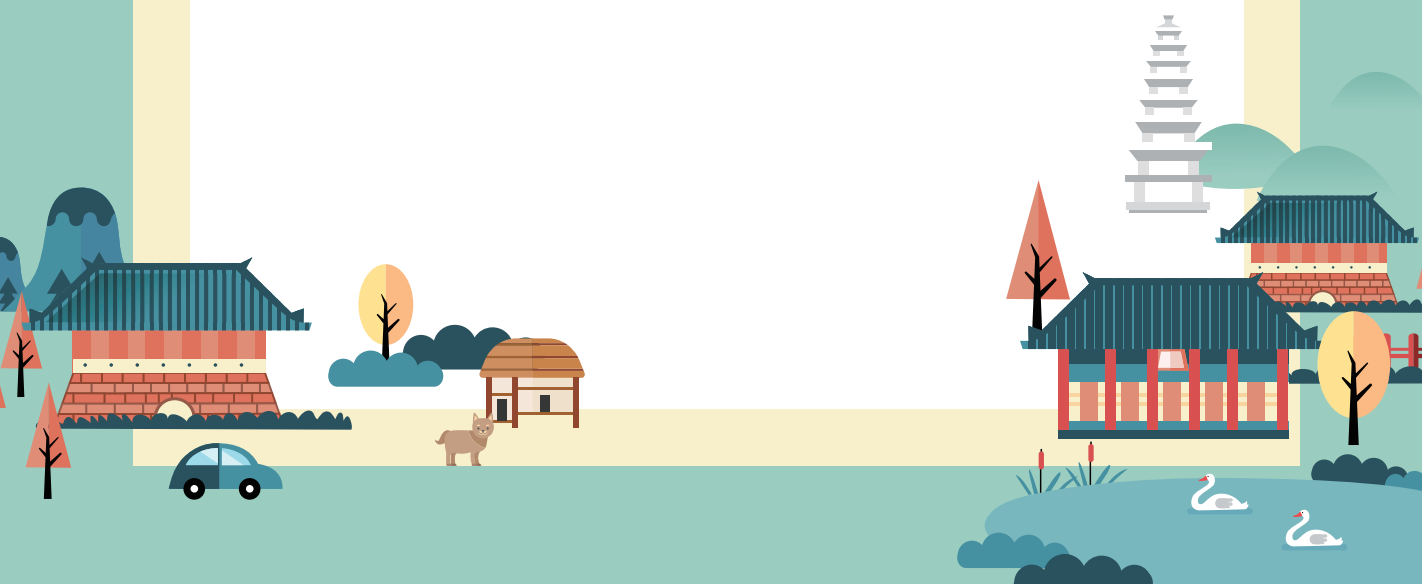
설명





II. 2021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1.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목적
2.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추진 과정
3. 문화재 안내판 문안 작성 방법
4. 문화재 안내판 제작 방법과 고려사항



II. 2021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1.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목적

1) 문화재와 문화재 안내판의 개념

문화재는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의미합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재 종류는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록문화재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화재 종류

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위원회(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문화재로서 국보, 보물, 국가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국가 민속문화재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됨
	시·도 지정문화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시·도유형문화재, 시·도무형문화재, 시·도기념물, 시·도민속문화재 등 4개의 유형으로 구분됨
	문화재자료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
등록문화재	국가 등록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지정문화재가 아닌 유형문화재, 기념물(명승 및 천연기념물의 성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
	시·도 등록문화재	시·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기념물(명승 및 천연기념물의 성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법령에 따라 지정이나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로서 매장문화재, 일반동산문화재, 향토유적으로 구분됨

문화재 유형별 분류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지정주체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국가지정	국보	보물	국가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 기념물	국가민속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
시·도지정	시도유형문화재		시도무형문화재	시도기념물			시도민속문화재	시도등록문화재
	문화재자료							

문화재 안내판은 문화재를 관람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문화재를 소개하고 정보와 가치 등을 공공언어로 안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문화재 안내판의 종류에는 해설안내판과 기능성 안내판이 있고, 해설안내판은 각각의 성격에 따라 문화재 전체 영역을 종합하여 설명하는 종합안내판, 문화재 전체 영역 중 권역을 설명하는 권역안내판, 개별문화재 한 건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개별안내판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1개 이상을 반드시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종류

분류	세분류	설치기준	담겨야 할 정보
해설안내판	종합 안내판	규모가 크고 다수의 건축물이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곳에 설치	- 문화재명 - 문화재 이야기 - 전체 지도 - 연표
	권역 안내판	종합 안내판이 있으면서, 문화재 내 여러 개의 공간이나 건축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곳에 설치	- 문화재명 - 문화재 이야기 - 권역 지도
	개별 안내판	특별한 이야기가 있거나 권역 내에 포함되지 못한 문화재가 있는 경우 설치	- 문화재명 - 문화재 이야기
기능성 안내판		길 찾기(동선유도 편의 시설 등), 금지 주의, 공공(픽토그램 등), 정보알림판, 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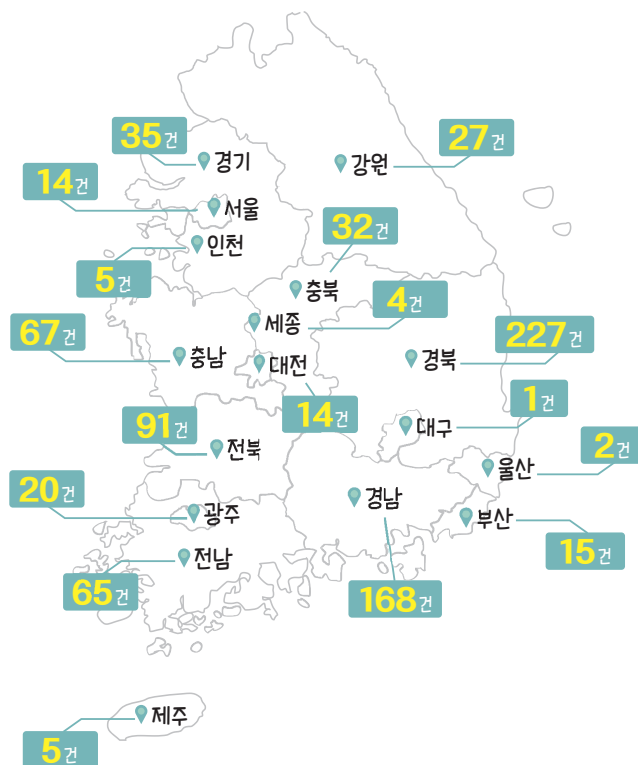
2) 문화재 안내판을 정비하는 이유

문화재 안내판은 관람하는 문화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러나 많은 문화재 안내 문안은 전문용어와 한자어, 문법에 맞지 않거나 맥락 없는 문장 등이 섞여 있어, 관람객이 문화재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외형이나 부적절한 위치 등으로 문화재의 품격을 손상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를 개선하고자 국민 누구나 문화재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이해하기 쉬운 안내 문안, 국민이 알고 싶은 정보 중심의 유용한 안내 문안,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를 이야기로 반영한 흥미로운 안내 문안을 목표로 2018년부터 정비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3) 2021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 대상 (2021년 10월 29일 기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정비 건수	14	15	1	5	20	14	2	4	35	27	32	67	91	65	227	168	5	792



2.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추진 과정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의 첫 단계는 우리 지역 문화재 안내판의 현황분석과 실태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문화재 안내판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안내 문안의 내용은 이해하기 적절한지, 안내판의 설치 위치나 디자인이 문화재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등을 파악합니다.

이후 오래되거나 훼손이 심해 식별이 어려운 안내판, 어려운 용어와 문장으로 읽기 힘든 안내판, 문화재 관람에 방해되는 안내판 등을 정비사업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문화재청은 2019년부터 지자체별로 안내판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안내 문안의 작성과 검토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구성된 시민자문단은 문화재에 관심 있는 각계 각층의 시민들이 안내 문안의 작성과 검토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시민자문단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3명에서 10명 내외로 구성할 수 있으며, 대면·설문조사·메일·서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시민자문단 구성

구분	참여대상	
자문위원 (10명 내외)	전문가	문화재, 역사, 건축, 조경, 국문, 영문, 디자인, 스토리텔링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지역주민	지역의 문화재에 관심이 있는 교사, 학생, 문화유산해설사, 문인, 시민단체 등
	공무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문화재 담당

시민자문단은 안내 문안의 작성 과정에 참여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내 문안의 난이도가 일반 시민이 이해하기에 적절한지, 문안의 내용에 흥미를 느낄 만한 요소가 있는지 살피며, 이외에도 안내판의 설치 위치나 안내판 관련 사항에 대해 자문합니다. 이후 사업 담당자는 시민자문단의 의견을 적절히 수렴하여 안내 문안에 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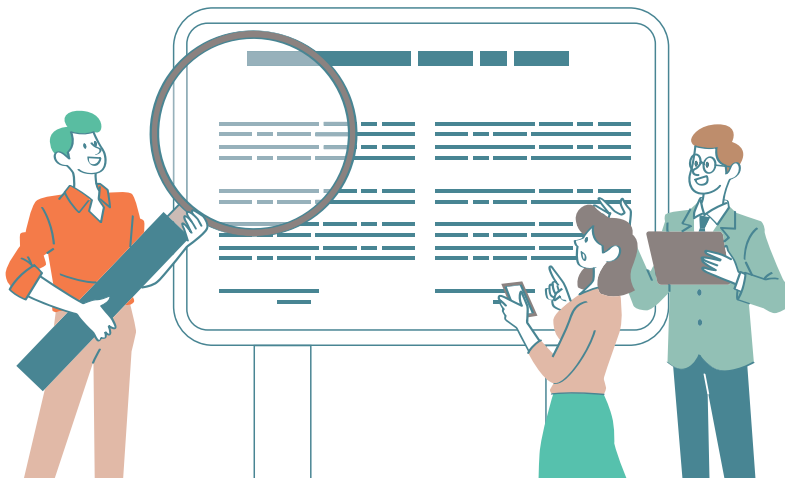
시민자문단 검토 주요 내용

시민자문단 검토사항	문화재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이 읽고 충분히 문화재를 이해할 수 있는가?
	문화재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는가?
	그림이나 이미지가 문화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는가?
	안내판의 설치(예정) 위치는 적절한가?
	기타 문화재 안내판 관련 개선사항 및 아이디어 제시

시민자문단의 검토를 거쳐 확정된 안내 문안은 국·영문 안내 문안의 최종 감수를 위해 국립국어원, 지역별 국어문화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관계기관의 최종감수를 받아 문안의 품질을 높였습니다.

국·영문 감수를 통해 안내 문안이 확정되었으면, 안내판 설치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 안내판의 디자인을 검토하여야 하며, 문화재 주변 경관에 어울리는 안내판을 제작해 설치하고 안내판 주변 정비도 동시에 진행합니다.

문화재 안내판을 정비·설치한 후에는 문화재청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또한 오류나 오탈자 등의 추가적인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관리하고 점검하여 관람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01

문화재 안내판
현지조사 및
현황분석

(전년도) 1~5월

- ▶ 문화재 안내판 실태 조사 및 정비대상 문화재 선정

(전년도) 6~7월

- ▶ 정비대상 문화재 안내판 국고보조사업 신청



02

문화재 안내 문안
작성 및 검토

3~4월

- ▶ 시민자문단 구성 (문화재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3~5월

- ▶ 안내 문안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른 문안 작성

5~6월

- ▶ 안내 문안 시민자문단 검토

6~8월

- ▶ 국립국어원, 지역별 국어문화원을 통한 국문 감수
- ▶ 한국학중앙연구원을 통한 영문 감수



03

안내판 제작과 설치

9~11월

- ▶ 문화재 안내판 설치업체와 계약
- ▶ 문화재 안내판 최종 디자인 결정 및 설치 위치 검토
- ▶ 문화재 안내판 설치 및 주변 정리



04

DB 등록과 사후 관리

12월

-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DB등록
- ▶ 안내판 점검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 사후 관리



3. 문화재 안내판 문안 작성 방법

1 쉬운 용어로 간결하게 적는다.

개선사례

흥성 동헌

興城東軒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동헌’이란 조선 시대 각 군현에 파견된 수령이 공무를 보던 곳이다. 지방 관아는 수령이 사무를 보는 외아와 가족이 거주하는 내아로 구분하는데, 외아가 내아의 동쪽에 있다고 하여 ‘동헌’이라고 하였다.

흥성 동헌은 본래 흥덕 객사로 알려진 건물이다. 그러나 1983년에 건물을 보수할 때 발견한 상량문*에서 동헌이었음이 밝혀졌다.

흥성은 흥덕의 옛 지명으로, 상칠(上漆, 백제 시대), 상질(尙質, 신라 시대), 장덕(章德, 고려 시대) 등 시기별로 달리 부르다가 고려 충선왕이 즉위하면서 왕의 이름인 ‘장’자를 피해 ‘흥덕(興德)’으로 바꾸어 불렀다. 1895년(고종 32)에 흥덕군이 되었다가, 일제 강점기인 1914년에 무장군과 함께 고창군으로 통합하여 흥덕면이 되었다.

* 상량문 : 집을 새로 짓거나 고친 내력, 까닭과 공역한 날짜. 시간 등을 적은 글

** 상량문에는 흥성 읍성(지금의 배풍산 자리)의 동헌을 조선 1807년(순조 7)에 현 위치로 옮겨지었다고 써있다.



‘동헌’의 개념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고 전문용어는 각주를 달아 이해를 돕습니다.

이래서 좋아요!

키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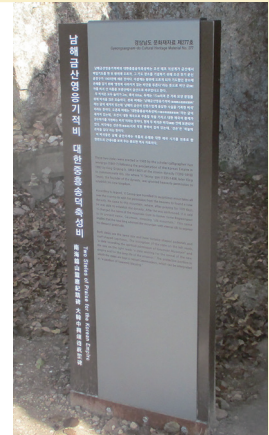
- ▶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전달한다.
- ▶ 문화재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 형태나 크기 규모 등 눈으로 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쓰지 않는다.
- ▶ 전문용어나 어려운 용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단, 꼭 필요한 경우 풀이하거나 주석을 단다.
- ▶ 문화재에 대한 설명이 아니면 넣지 않는다.

개선사례

남해금산영응기적비 대한중흥송덕축성비

南海錦山靈應紀蹟碑 大韓中興頌德祝聖碑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남해금산영응기적비와 대한중흥송덕축성비는 조선 태조 이성계가 금산에서 백일기도를 한 뒤 왕위에 오르자, 그 기도 장소를 기념하기 위해 조선 후기 문신 윤정구가 1903년에 세운 것이다. 이성계는 왕위에 오르게 되자 기도했던 장소에 은혜를 갚기 위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비단을 두른다’라는 뜻으로 비단 금(錦) 자를 써서 산 이름을 보광산에서 금산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두 비석은 모두 높이가 2m, 폭이 60cm, 두께는 15cm이며 큰 거북 모양 받침돌 위에 비석을 얹은 모습이다. 왼쪽 비에는 ‘남해금산영응기적비(南海錦山靈應紀蹟碑)’라는 글이 새겨져 있는데 ‘남해의 금산이 신령스럽게 응답한 사실을 기록한 비석’이라는 뜻이다. 오른쪽 비에는 ‘대한중흥송덕축성비(大韓中興頌德祝聖碑)’라는 글이 새겨져 있는데, ‘조선이 대한 제국으로 부용할 덕을 기리고 대한제국의 황제가 장수하기를 기원하는 비석’이라는 뜻이다. 현재 두 비석은 비각(碑閣) 안에 보관되어 있다. 비각에는 선은전(璿恩殿)이라 적힌 편액이 걸려 있는데, ‘선은’은 ‘하늘의 은덕을 입다’라는 뜻이다.

이 비석들은 남해 금산이라는 이름의 유래와 대한제국 시기를 전후로 한 한반도의 근대사를 보여 주는 중요한 역사 자료이다.



비석이 세워진 배경과 문화재 명칭을 설화와 함께 어려운 용어 없이 쉽게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좋아요!

2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

개천사레

송양사 松陽祠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송양사'는 창녕 성씨들의 위패를 안치하고 제사를 지내는 사우*이다. 1930년에 세웠고 1946년에 다시 지었다. 고려 시대 문신인 성사달과 성부, 조선 시대의 성여원, 성무조, 성경수 등의 위패**를 안치하고 있다. 누각인 풍욕루와 강당인 경현당, 학문을 연구하던 명성재, 관리사와 창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 후기의 전형적인 건축 양식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다.

경현당 기둥 앞의 철제 난간 한 가운데에 성리학의 교리가 함축된 태극무늬가 있다. 일제가 태극무늬 철제 난간을 떼어 가려고 하였으나 이곳 선비들이 강하게 가로막자 포기하였다.

성여원은 문효공 성사달의 7대손으로, 연산군 당시 당쟁이 격화되자 벼슬을 버리고 고창군 대산면 회룡리로 내려왔다. 그의 넷째 아들 성진철의 후손이 이사 하면서 송양사가 있는 솔뫼를 '청산리'라 하였다. 1894년 동학 농민 혁명 당시 마을 사람들이 솔뫼로 안전하게 피신을 하게 되자 '송산'으로 개칭하였다는 일화도 있다.

* 사우 : 선조 혹은 선현의 신주나 영정을 모셔 두고 제향을 행하는 장소

** 위패 : 죽은 사람의 이름과 죽은 날짜를 적은 나무패



이래서 좋아요!

태극무늬에 얹힌 일화를 소개함으로써 숨은그림찾기 하듯 문화재를 다시 한 번 보게 하는 흥미로운 설명입니다.

키포인트

- ▶ 설화나 전설 등을 적극 활용한다.
- ▶ 재미나 유익한 정보가 있는 최근 이야기를 추가한다.

개선사례

예천 초간정

醴泉 草澗亭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초간정은 조선 선조 때의 문신 초간 권문해(草澗 權文海, 1534~1591)가 벼슬에서 물러난 뒤 심신(心身)의 수양을 위해 세운 정자이다. 권문해는 퇴계 이황의 제자로서 문과에 급제하여 대구부자, 좌승지 등을 지냈고,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인 『대동운부군곡(大東韻府群玉)』을 지은 인물이다.

선조 15년(1582)에 처음 세워진 초간정은 1592년에 화재로 불탔다. 권문해의 아들 권별(權鵬)이 인조 4년(1626)다시 지었으나, 인조 14년(1636)에 다시 불탔다. 지금 남아 있는 건물은 영조 15년(1739)에 권문해의 현손(玄孫)*인 권봉의(權鳳儀)가 원래의 터에서 약간 서쪽으로 옮겨 지은 것이다.

‘초간정사’라는 현판은 소고(嘯臯) 박승임(朴承任)의 글로, 정자에 여러 차례 화재가 나면서 잃어버렸다가 훗날 다시 발견하였는데, 정자 앞 높에서 영롱한 빛이 보여 파보았더니 현판이 묻혀있었다는 전설이 있다.

정자는 암반 위에 돌을 쌓아 만든 축대 위에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로 세워졌다. 정면의 왼쪽 두 칸은 온돌방을 배치하였고, 나머지는 대청마루로 사면에 난간을 설치하였다. 지붕은 겹처마 팔작지붕**양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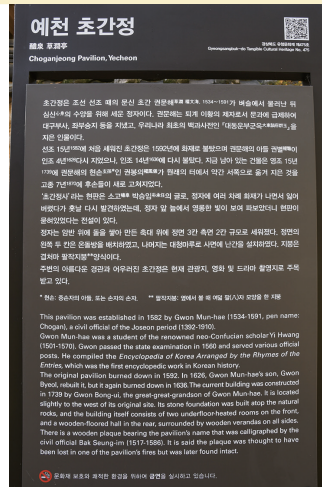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과 어우러진 초간정은 현재 관광지 및 드라마 촬영지로 주목받고 있다.

*현손 : 증손자의 아들. 또는 손자의 손자.

**팔작지붕 : 옆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지붕



현판의 전설을 소개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현대에는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로 활용되고 있다는 내용을 기술하여 관광객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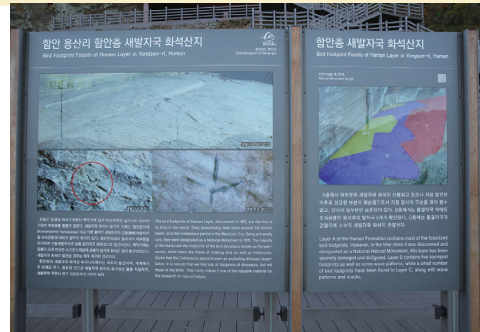
3 그림과 사진을 활용한다.

개선사례

함안 용산리 함안층 새발자국 화석산지

咸安 龍山里 咸安層 새발자국
化石產地

천연기념물



공룡은 중생대 쥐라기로부터 백악기에 걸쳐 번성하였던 길이 5m~25m의 거대한 파충류를 통틀어 말한다. 새발자국 화석이 발견된 곳에는 ‘함안 한국새(Koreanaornis hamanensis)’라고 이름 붙여진 새발자국과 진동(鎭東)새발자국 및 초식공룡(용각류)의 발자국 화석이 있다. 함안한국새의 발자국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진동새발자국과 공룡 발자국은 예외적으로 발견되었다. 백악기에는 공룡이 크게 번식한 시기였기 때문에 공룡의 발자국 화석은 많이 발견되었으나, 새발자국 화석이 발견된 경우는 매우 희귀한 경우이다.

함안층의 새발자국 화석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발견이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연구, 발표된 것으로 새발자국 화석의 희귀성은 물론 지질학적, 생물학적 자연사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이래서 좋아요!

정확한 학술명을 표기하여 신뢰를 높이고 문화재의 다양한 가치를 밝힘으로써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화석의 확대 사진을 첨부하고 화석산지를 지층별로 표시하여 관람객이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키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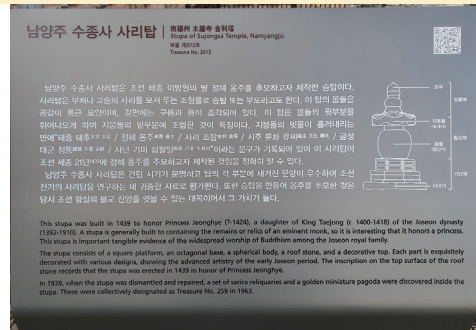
- ▶ 그림이나 사진을 활용한다. 단, 안내판의 전체적 디자인 및 구성, 배열에 어울리도록 한다.

개선사례

남양주 수종사 사리탑

南楊州 水鐘寺 舍利塔

보물



남양주 수종사 사리탑은 조선 태종 이방원의 딸 정혜 공주를 추모하고자 제작한 승탑이다. 사리탑은 부처나 고승의 사리를 모셔 두는 조형물로 승탑 또는 부도라고도 한다. 이 탑의 몸돌은 공갈이 둥근 모양이며, 겉면에는 구름과 용이 조각되어 있다. 이 탑은 몸돌의 윗부분을 튀어나오게 하여 지붕돌의 밑부분에 조립한 것이 특징이다. 지붕돌의 빗물이 흘러내리는 면에 “태종 태후(太宗 太后) / 정혜 공주(貞惠 翁主) / 사리 조탑(舍利 造塔) / 시주 문화 류씨(施主 文化 柳氏) / 금성 대군 정통(錦城 大君 正統) / 사년 기미 십월일(四年 己未 十月日)”이라는 문구가 기록되어 있어 이 사리탑이 조선 세종 21년(1439)에 정혜 공주를 추모하고자 제작된 것임을 정확히 알 수 있다.

남양주 수종사 사리탑은 건립 시기가 분명하고 탑의 각 부분에 새겨진 문양이 우수하여 조선 전기의 사리탑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또한 승탑을 만들어 공주를 추모한 것은 당시 조선 왕실의 불교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어서 그 가치가 높다.



사리탑의 개념과 제작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고 구조적 특징을 알기 쉽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탑의 도면을 첨부하여 관람객이 문화재의 구조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했습니다.



4 문화재의 가치를 알 수 있는 내용을 적는다.

개선사례

산청 망추정

山淸 望楸亭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산청 망추정 | 山淸 望楸亭

Mangchujeong Ritual House, Sancheong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632호
Gyeongsangnam-do Cultural Heritage Material No. 632

산청 망추정은 조선 전기 문신인 송월당 박호원(松月堂 朴好元, 1527~1584)이 어머니의 3년상을 치르기 위해 지은 건물이다. '망추정'이란 이름에는 자식이 부모를 그리워하고 생각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1560년경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여러 차례 고쳐 지으면서 밀양 박씨 문종의 제사를 지내는 재실*로 사용하였다. 앞면 6칸, 옆면 3칸 규모로, 옆에서 보았을 때 여덟 팔(八)자인 팔작지붕 건물이다.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양옆에 온돌방이 있으며, 왼쪽 끝 방을 제외하고 모든 방 앞으로 좁은 마루가 설치되어 있다. 대문은 앞면 3칸, 옆면 1칸의 건물로 문 위에는 '경의문'이라고 적힌 나무판이 걸려 있다. 망추정 오른쪽으로는 관리사가 있다.

망추정은 조선 후기 전형적인 재실 구성을 잘 보존하고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건물이다.

산청 망추정은 조선 전기 문신으로 대사헌과 호조판서 등을 역임한 송월당 박호원(松月堂 朴好元, 1527~1584)이 어머니의 3년상을 치르기 위해 지은 건물이다. '망추정'이란 이름에는 자식이 부모를 그리워하고 생각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1560년경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여러 차례 고쳐 지으면서 밀양 박씨 문종의 제사를 지내는 재실*로 사용하였다. 앞면 6칸, 옆면 3칸 규모로, 옆에서 보았을 때 여덟 팔(八)자인 팔작지붕 건물이다.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양옆에 온돌방이 있으며, 왼쪽 끝 방을 제외하고 모든 방 앞으로 좁은 마루가 설치되어 있다. 대문은 앞면 3칸, 옆면 1칸의 건물로 문 위에는 '경의문'이라고 적힌 나무판이 걸려 있다. 망추정 오른쪽으로는 관리사가 있다.

망추정은 조선 후기 전형적인 재실 구성을 잘 보존하고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건물이다.

* 재실(齋室): 무덤이나 사당 옆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지은 집



이래서 좋아요!

건립 이유와 명칭의 유래를 설명하고 관람객의 시선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적 가치로 마무리하면서 관람객에게 해당 문화재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키포인트

- ▶ 역사적·문화적 가치 등 문화재로 지정된 이유를 간략하고 쉽게 적는다.
- ▶ 만들어진 배경과 기능이나 용도를 설명한다.
- ▶ 관련 인물과 명칭의 유래를 설명한다.

개선사례

청주 흥덕사지

清州 興德寺址

사적

청주 흥덕사지 | 清州 興德寺址 Heungdeoksa Temple Site, Cheongju 사적 제225호 Historic Site No. 215

청주 흥덕사지는 9세기 통일신라 때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흥덕사(興德寺)의 옛터이다. 흥덕사는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이하 『직지』)을 간행한 곳이다.

『직지』는 백운화상(白雲和尙)이 고려 공민왕 21년(1372)에 부처와 고승들의 법어, 대화, 편지 등에서 중요한 내용을 뽑아 엮은 책으로, 우왕 3년(1377)에 흥덕사에서 인쇄하였다. 이는 구텐베르크의 『42행 성서』 간행보다 78년이나 앞선 것으로,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1985년 발굴조사 중 ‘흥덕사’라는 글씨가 새겨진 금구*가 나와 이곳이 당시의 흥덕사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각종 기와, 전돌, 그릇 조각 등을 비롯하여, 청동으로 만든 작은 종과 금강저**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현재는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금당과 삼층석탑을 복원하고, 회랑지와 강당지도 주춧돌이 노출되도록 잔디를 심어 정비하였다.

현재 흥덕사지 옆에는 청주고인쇄박물관이 있으며, 맞은편에는 근현대인쇄전시관과 청주시 금속활자 전수교육관이 들어서 있다. 금속활자 인쇄술은 인류 문명 발전의 원동력인 지식 정보의 공유와 확산을 가능하게 한 획기적인 발명이자 우리 조상들의 문화적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이곳에서는 한국의 인쇄 문화와 금속활자 제작 기술의 발전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금구(禁口) : 청동으로 만든 북으로, 공양을 알리거나 사람을 모으는 용도로 사용함.
**금강저(金剛杵) : 승려가 불도를 닦을 때 쓰는 법구의 하나로, 번뇌를 깨뜨리는 보리심을 상징함.

청주 흥덕사지는 9세기 통일신라 때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흥덕사(興德寺)의 옛터이다. 흥덕사는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이하 『직지』)을 간행한 곳이다.

『직지』는 백운화상(白雲和尙)이 고려 공민왕 21년(1372)에 부처와 고승들의 법어, 대화, 편지 등에서 중요한 내용을 뽑아 엮은 책으로, 우왕 3년(1377)에 흥덕사에서 인쇄하였다. 이는 구텐베르크의 『42행 성서』 간행보다 78년이나 앞선 것으로,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1985년 발굴조사 중 이곳에서 ‘흥덕사’라는 글씨가 새겨진 금구*가 나와 이곳이 당시의 흥덕사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각종 기와와 전돌, 그릇 조각을 비롯하여, 청동으로 만든 작은 종과 금강저**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현재는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금당과 삼층석탑을 복원하고, 회랑지와 강당지도 주춧돌이 노출되도록 잔디를 심어 정비하였다.

현재 흥덕사지 옆에는 청주고인쇄박물관이 있으며, 맞은편에는 근현대인쇄전시관과 청주시 금속활자 전수교육관이 들어서 있다. 금속활자 인쇄술은 인류 문명 발전의 원동력인 지식 정보의 공유와 확산을 가능하게 한 획기적인 발명이자 우리 조상들의 문화적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이곳에서는 한국의 인쇄 문화와 금속활자 제작 기술의 발전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금구(禁口): 청동으로 만든 북으로, 공양을 알리거나 사람을 모으는 용도로 사용함.

**금강저(金剛杵): 승려가 불도를 닦을 때 쓰는 법구의 하나로, 번뇌를 깨뜨리는 보리심을 상징함.



흥덕사지의 개념과 건립시기를 간략하게 밝히고 흥덕사지와 ‘직지’의 관계와 ‘직지’의 내용 및 가치를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발굴과정과 이름의 경위, 복원현황과 현재의 모습까지 자세히 설명하여 이해를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의 가치를 살펴볼 수 있는 관련 기관의 정보를 제공함으로 관심을 유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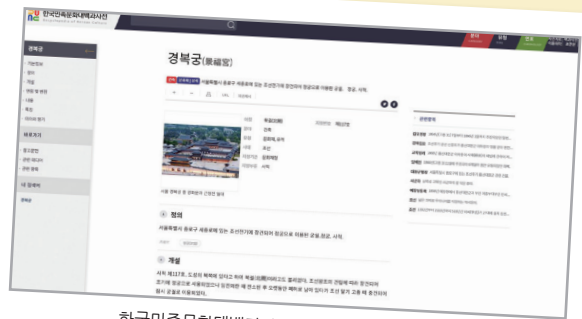
5 역사적 사실, 문법, 어휘 등이 맞는지 꼼꼼하게 점검한다.

키포인트

- ▶ 역사적 사실은 공인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문화재대관(문화재청 편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편찬) 및 국가문화유산포털에 게재된 것을 우선으로 한다.
- ▶ 최종 작성된 국어 안내 문안은 국립국어원이나 국어문화원의 감수를 거친다.
- ▶ 지역의 학생, 교사, 문화유산 해설사 등으로 시민자문단을 구성하여 일반 국민 입장에서 안내 문안이 쉬우면서도 흥미롭게 읽히는지 검토받는다.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eritage.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



국립국어원 (korean.go.kr)

문화재 주변 시설물 공공디자인 세부 기준 <안내 문안 기본원칙>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별표2]

문화재청 예규 제224호 일부개정(2020. 11. 2)

안내 문안 작성
기본원칙

안내 문안은 핵심정보 위주의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주관적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다수가 공감하는 내용이고 관람객이 해당 문화재에 대해 좀 더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내용이면 첨가할 수 있다.

역사적 사실은 공인된 것을 기준으로 하되, 가장 최근에 발간된 문화재대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및 문화재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을 우선으로 한다.

안내 문안은 해당 문화재를 관람객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평이한 언어 및 내용으로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 그림이나 사진을 활용하되, 이 경우 안내판의 전체적인 디자인 및 구성 배열에 부합되도록 한다.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문장의 순서를 결정하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내용을 첫 문장에 작성한다. 이 경우 우선순위의 선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안내 문안 작성자의 판단에 따른다.

첫 문장은 해당 문화재를 관람객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하며 해당 문화재의 기능, 유래, 특징 및 역사적 문화재적 가치 등 문화재가 지닌 사유를 포함하여 설명한다.

해당 문화재의 형태나 크기, 규모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거나 최소화한다.

해당 문화재와 관련된 설화, 전설 등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근래의 사실이나 이야기라 할지라도 관람객에게 재미나 감동 또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첨가한다.

안내 문안 내에서 전문용어나 난해한 용어는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으며 꼭 필요한 경우에는 앞에서 풀이하여 설명한 후에 기술하도록 한다.

문화재의 설명과 관계가 없는 문장은 생략한다.

최종 작성된 국어 안내 문안은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거친다.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 국어문안 직역에서 탈피하여 적절히 의역한다.

필요할 경우 외국어번역을 위한 문안을 별도로 작성한다.

외국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와 이야기 중심으로 작성한다.

국문 작성자와 외국어 번역자가 충분히 교감하여 의역상 오류를 최소화한다.

로마자 표기법 등 관련규정을 따른다.

안내 문안 번역



배열 구성

글자크기는 관람객이 식별할 수 있는 적정 크기로 작성하되, 각각의 안내판 유형에 따른 최소 글자 크기는 아래와 같다.

구분	종합안내판		권역안내판		개별안내판		길찾기안내판	
	제목	본문	제목	본문	제목	본문	제목	본문
서체 급수 (최소한)	100	50	80	40	70	35	150	110

(단위 : 포인트)

가독성을 높이는 정직한 서체가 바람직하며, 장식적인 서체는 가급적 배제한다.

문화재 주변 시설물 공공디자인 세부 기준 <안내 문안 구성요소>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별표2]

종합 안내판

제목 부분

- 국문 명칭, 한자 명칭, 영문 명칭
- 지정유형, 지정유형의 영문 번역

국문 본문 (기술 순서 등)

- 연혁, 유래(관련 이야기)
- 역사적, 문화재적 가치
- 관련 설화, 전설, 민담
- 보유하고 있는 주요 문화재
- 주요 관람 포인트
- 기타 문안 작성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등

영문 본문

- 국어 명칭, 한자 명칭, 영문 명칭
- 지정유형, 지정유형의 영문 번역
(권역명칭이 지정 문화재명인 경우 또는 그 외 필요시)

권역 안내판

제목 부분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 국어문안 직역에서 탈피하여 적절한 의역한다.

국문 본문 (기술 순서 등)

- 권역의 특징
- 연혁, 유래(관련 이야기)
- 역사적, 문화재적 가치
- 관련 설화, 전설, 민담
- 보유하고 있는 주요 문화재
- 주요 관람 포인트
- 기타 문안 작성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등

영문 본문

- 국문 본문의 발췌 번역

개별 안내판	제목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 명칭, 한자 명칭, 영문 명칭 · 지정유형, 지정유형의 영문 번역 (비지정문화재인 경우나 전설, 설화, 민담 등의 이야기 안내판의 경우는 생략)
	국문 본문 (기술 순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의 규모(크기, 높이, 길이, 두께 등) 및 건립연도 · 연혁, 유래(관련 이야기) · 역사적, 문화재적 가치 · 관련 설화, 전설, 민담 · 주요 관람 포인트 · 기타 문안 작성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등
	영문 본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문 본문의 발췌 번역

문화재 주변 시설물 공공디자인 세부 기준 <안내 문안 구성요소별 세부 기준>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별표2]

제목	<p>종합안내판의 제목은 문화재 지정 명칭으로 하고 띄어쓰기를 할 수 있다. 다만, 지정 명칭에 지명이 먼저 나오거나 지정 범위 등을 덧붙일 때에는 지명이나 지정범위의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p>
	<p>문화재안내판의 제목에는 반드시 한자를 병기하며, 이 경우 한자는 국문 명칭과 같은 줄이나 국문 명칭 다음 중에 표기한다. 다만, 글자 크기는 한자가 국문을 초과할 수 없다.</p>
	<p>안내판 제목의 한자는 대상 단어를 음운의 변동 없이 변환 가능한 경우에만 한자로 변환해서 표기하며, 음운의 변동하는 우리말은 변환하지 않고 우리말을 그대로 표기한다.</p>
	<p>안내판 제목에 두 개 개체가 접속조사나 접속부사로 이어진 경우, 한자 표기에서는 접속조사나 접속부사를 쉼표(.)로 바꾼다 이때 가운뎃점(.)은 허용하지 않는다.</p>
	<p>안내판의 제목 중 영문은 국문과 한자에 이어 같은 줄에 나열하거나 줄 바꿈 후 표기할 수 있다. 다만, 글자크기는 영문이 국문을 초과할 수 없다.</p>
	<p>권역(영문)안내판의 제목은 안내판 설치 과정에서 설정된 권역의 이름으로 한다.</p>
	<p>개별 안내판의 제목은 문화재 지정 명칭으로 하되, 상위 위계의 종합안내판을 따로 세운 경우에 지명 등은 생략할 수 있다.</p>
	<p>유적지 안에 비지정문화재와 설화, 전설 등에 대한 개별안내판 명칭도 안내판 설치 과정에서 설정된 명칭에 따르며, 유적지명 등은 생략한다.</p>



제목	<p>안내판 제목에 전문용어나 어려운 용어가 있으면 문안의 첫머리에서 풀이하여 설명한다.</p>
지정종별, 소재지	<p>안내판에는 문화재의 지정 종별과 지정 번호는 표시하되, 소재지는 표시하지 않는다. 특히, 종합안내판이 있는 유적지 안 권역안내판과 개별안내판의 문화재 소재지는 반드시 생략한다. 이 때 지정 종별 및 지정 번호는 제목보다 작게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p> <p>지정종별과 지정번호는 한자표기는 생략하고, 영문 번역 표기만 한다. 이 때 해당 영문 표기 방법은 제목 표기 방법과 같다.</p>
규모 및 건립 연도	<p>석물, 전각 등의 개별안내판(필요시 종합안내판과 권역안내판도 포함)에는 각각 문화재의 규모(크기, 높이 등), 건립연도(시대 포함)를 표기할 수 있다.</p> <p>지정종별, 번호와 줄을 같이하거나 다음 줄에 달리 표기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규모와 건립연도 모두 표기 할 수 있다.</p> <p>한자 표기 없이 영문 번역 표기만 하며, 이때 해당 영문 번역의 표기 방법은 제목 표기방법과 같다.</p>
언어(국어, 영어)의 표기	<p>안내 문안 본문은 두 개 언어(국어/영문)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문화재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부 내용과 용어에 한해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p> <p>안내 문안의 언어 표기는 국립국어원 어문 규정인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을 지킨다.</p> <p>문화재 명칭과 용어의 세부적인 영문 표기는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에 따른다.</p> <p>안내 문안은 높임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문장에서 상하 관계가 분명한 경우 즉 군신, 사제, 부자지간 등에는 높임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p> <p>안내 문안의 국문은 지정 서체로 통일해서 표기하며, 일부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 해당 단어를 굵게 표기할 수는 없다.</p> <p>본문에 직접 풀어 쓴 설명이 아닌 관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연 설명은 안내문 아래에 각주로 표기하거나 해당 글자 오른쪽 윗부분에 본문보다 작게 표기한다.</p> <p>본문에 외래어가 나올 경우 외래어의 어원을 따로 밝히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영문 문안에만 원어를 표기한다.</p> <p>영문표기의 경우 한국의 고유한 문화를 나타내는 단어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p>

한자의 표기

한자는 안내판의 제목에 표기하는 경우와 인물, 지명, 문화재 명칭 등 특별한 경우 말고는 사용하지 않는다. 의미를 전달하고 관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한자의 표기 여부는 안내 문안 작성자의 판단에 따른다.

국문 문안 본문에서 한자를 표기 할 때는 해당 글자의 오른쪽 소괄호() 안에 작게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괄호 없이 작게 표기할 수 있다.

모든 한자는 같은 안내판에서 처음 나온 단어에 한 번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목과 동일한 단어는 본문에 한자 표기를 할 수 없다.

유적과 직접 관련된 인물명에만 한자를 병기하며 사망 연도와 출생 연도 등은 표기하지 않는다.

인물의 호는 되도록 표기하지 않으며, 호가 성명과 함께 쓰여 인물을 부연 설명하거나 성명을 호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표기할 수 있다. 이때 한자는 해당 단어 뒤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호와 성명을 모두 표기할 때는 성명 뒤에 한꺼번에 적는다.

영문 본문에는 오직 영문만을 표기하며 한자는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숫자의 표기

연도, 연대, 물량을 나타내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며 문화재 명칭과 고유명사에 포함된 숫자는 한글로 표기한다.

수목안내판에 수령을 표기하는 경우는 해마다 수령이 늘어나므로 대략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수목의 심은 연도를 정확히 알 때는 절대 연도를 직접 표기할 수 있다.

날짜는 ○○○○년 ○○월 ○○일로 표기하되, 10이하의 숫자에는 0을 표기하지 않는다.

연대 표기

연도는 확실히 아는 경우에만 절대 연도로 표기하며 정확한 연도를 모르는 경우에는 세기로, 정확한 세기를 모르는 경우에는 시대로 표기한다.

대략적인 연도를 아는 경우에는 절대 연도 뒤에 ‘경’, ‘무렵’, ‘즈음’ 등을 붙여서 표기할 수 있다.

왕조 연대와 왕명 다음에 서기를 표시하며 같은 왕조 연대, 재위 기간에는 국호와 연호를 거듭 표기하지 않는다. 다만, 왕조 연대나 왕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또한 생략하고 연도만 표기하는 것도 허용한다.

왕의 재위 연호를 쓰는 경우에도 정확한 연도는 소괄호() 안에 본문보다 작게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괄호 없이 작게 표시할 수도 있으며, 연도 뒤에 ‘재위’라고 쓴다.

문화재 안내판에는 역사 인물의 출생 연도와 사망 연도는 표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해당 문화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인물만 표기하되, 이 경우에도 주변 인물들의 출생연도와 사망 연도는 표기하지 않는다. 생몰연도를 표기할 때는 소괄호 () 안에 본문보다 작게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괄호 없이 작게 표기하는 경우에는 한자 다음에 표기한다.

도량형의 표기

도량형은 미터법에 따라 표기하며, 단위는 기호로 표기한다.

규모를 설명하는 경우에는 단위를 통일하여 가로, 세로, 높이, 두께 순으로 표기 하되, 그 표현은 달리할 수 있다.

한 문장(복문, 중문 포함)에서 단위는 가장 많이 사용된 단위로 통일하되, 수치의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소수 첫째자리까지 표기 가능한 다른 단위로 적는다.

서화의 경우에는 가로, 세로 순으로 표기한다.

고어

안내 문안에 고어가 고유명사 내안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하고, 단독으로 있는 경우에는 현대어로 바꾸어 사용한다.

방향

안내 문안에서 방향 표시는 문화재를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정한다. 다만, 문화재를 직접 가리는 위치에 안내판이 놓이지 않도록 관람 동선과 동떨어진 곳에 안내판을 둘 경우에는 현재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방향을 설정한다.

방위(동·서·남·북)는 날씨에 따라 식별과 판단이 어려우므로 안내 문안에 표기하지 않는다. 다만, 지형이나 이론 등 일반적인 학설 등을 설명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방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종합안내판과 권역안내판 등에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문화재가 다수 밀집되어 관람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권역안내판 지도에 각각의 명칭을 구분해 표기하는 방법을 권장한다.



4. 문화재 안내판 제작 방법과 고려사항

감수를 통해 안내 문안이 확정되면 문화재 안내판은 '문화재 주변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에 따라 디자인 및 제작되어야 합니다. 안내 문안의 여백·글자체·글자 크기 등이 읽기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검토합니다. 또한 신규 안내판이 문화재를 가리지 않는지, 문화재와 적절하게 어울리는지, 재질이 문화재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일반인뿐만 아니라 연령에 따른 신체적 특성, 장애유무 등과 같은 다양한 이용자도 접근이 편리한지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문화재 안내판의 설치 위치부터 크기, 재질, 형태, 색상, 글자 크기 등까지 세심하게 확인하여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지 않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최적의 디자인을 선정합니다.

남양주 봉선사 큰법당

국가등록문화재 | 南楊州 奉先寺 큰法堂

개선사례



이래서 좋아요!

문화재를 관람하며 함께 읽을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면을 첨부하여 실제의 문화재와 비교하며 이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목포 갯바위

천연기념물 | 木浦 갯바위

개선사례



이래서 좋아요!

안내판이 문화재의 바로 앞에 위치해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특히 갯바위의 지질학적 형성과정을 그림자료를 활용해 관람객의 이해를 돕습니다.

포천 화적연

명승 | 抱川 禾積淵

개선사례



이래서 좋아요!

문화와 자연으로 내용에 따라 분리 설치하여 관람자의 입장에서 읽기가 쉽습니다. 더불어 사진 자료를 활용해 화적연에서 지났던 기우제와 지질학적 특성에 대해 이해함에 어려움이 없게 했습니다.

수원 화성

사적 | 水原 華城

개선사례



이래서 좋아요!

화성성역의케 도설, 사진, 그림 등을 설명과 함께 첨부해 관람객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구역별로 안내판의 색깔을 오방색에 의거하여 표시해 혼동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안내판이 문화재 밖에 위치해 지나가는 관람객에게도 정보를 전달하는 배려가 돋보입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보존하면서, 모든 사람이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누릴 수 있도록 범용 디자인을 적용한 '무장애 공간(Barrier Free)'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범용 디자인(Universal Design)'은 제품, 시설,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으로 인해 제약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범용 디자인의 7원칙

원칙	
공평한 사용(Equable Use)	연령, 언어, 성별 등 이용자 특성과 관계없이 디자인의 유용함을 최대한 경험할 수 있는 디자인
사용상의 융통성(Flexibility in Use)	폭 넓은 개인 선호도와 능력을 고려한 디자인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 (Simple and intuitive Use)	경험, 지식, 언어 등 이용자 수준에 상관없이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정보 (Perceptible information)	연령, 언어, 성별 등 이용자 특성과 관계없이 디자인의 유용함을 최대한 경험할 수 있는 디자인
실수에 대한 관대함 (Tolerance for Error)	위험한 상황이나 의도하지 않은 조작에 의한 나쁜 결과를 최소화하는 디자인
최소의 물리적 노력 (Low Physical Effort)	사용자가 최소한의 피로감을 느끼면서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접근과 사용을 위한 충분한 크기와 공간 (Size and Space for Approach and Use)	신체크기, 자세, 이동능력에 상관없이 접근, 도달, 조작, 사용할 수 있는 적정 크기와 공간을 제공하는 디자인

다만, 범용 디자인은 무장애 공간 디자인(Barrier-Free Design)과는 구별됩니다. 무장애 공간 디자인이 장애인 및 고령자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 생활에 지장이 되는 물리적 장애물이나 심리적 장벽을 없애기 위한 디자인이라면, 범용 디자인은 장애인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다양성을 포용하여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보다 넓은 분야에서 쓰이는 보편적 디자인을 말합니다.



범용디자인(선정릉 종합안내판)



무장애 공간 디자인(경복궁 측각 안내판)

문화재 주변 시설물 공공디자인 세부 기준 <안내판>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별표2]

개념·기본

문화재의 안내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로, 문화재의 유형과 특징을 반영하여 이질감을 해소하고 일체감 있는 디자인을 연출하도록 한다.

배치

문화재와 연계하여 배치할 때에는 안내시설이 돌출되지 않도록 배치하되 휠체어 보행보조기 유모차 사용자 등 다양한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도록 배치한다.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등 다양한 이용자의 눈높이와 시선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문화재와 중첩되거나 조망을 훼손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안내시설의 기초부가 지면 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분산된 안내시설 또는 관련 안내시설의 통합 디자인으로 정리된 경관을 연출하도록 한다.

안내판은 빛반사, 눈부심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종류

문화재안내판의 기본 종류는 해설안내판과 기능성안내판으로 구분하며, 해설안내판은 종합안내판, 권역안내판, 개별안내판 등으로 분류하되, 이 중 1개 이상의 안내판은 반드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종합안내판은 문화재의 규모가 크고 다수의 건축물이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곳에 설치하되, 규모가 작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설판 및 당해 문화재의 주요 연표, 조감도나 안내지도, 주요 문화재, 관람정보 등이 담긴 지도판의 2종으로 구성한다.

권역안내판은 종합안내판이 있으면서, 문화재 내 여러 개의 공간이나 건축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권역의 규모에 따라 해설판과 지도판 2종으로 하거나, 해설과 지도가 하나의 안내판으로 통합된 1종으로 구성한다. 단, 통합 1종의 안내판 제작 시에는 해당 권역의 지도를 함께 삽입한다.

수량

적정 안내에 필요한 최소의 문화재안내판만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문화재 규모 및 관람자의 편의, 필요성에 대한 정밀분석에 따라 적절한 안내판 수량을 결정한다.

하나의 문화재에 하나의 안내판이 아닌 관람자의 시선을 고려한 권역 중심의 안내판을 도입, 권역별로 통합할 수 있는 구역은 통합하여 안내판 수량을 줄인다.

크기

안내판은 인간체격기준척도를 지향하고 관람객에게 최적의 편의를 줄 수 있는 크기를 선택한다.



지나치게 웅장하거나 비대하여 문화재를 가리거나 관람객에게 위압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면단위 문화재 내에 다수의 안내판이 설치될 경우 종류와 위계에 따라 크기를 달리 적용한다.

형태

전반적인 안내판 형태는 가능한 장식적 요소가 없는 단순한 형태로, 문화재나 건축물 자체가 더 돋보이도록 한다.

해당 문화재 유형에 어울리는 형태를 선택하되 문화유산의 격에 맞는 미적 가치를 지니도록 한다.

해당 문화재의 안내판은 각각의 안내판 종류와 위계에 따라 형태를 달리 적용하되 디자인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성격이 유사한 안내판은 가급적 형태를 일치하여 디자인의 통일성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색상

색상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대상 문화재의 유형, 특성, 주변경관에 어울리는 색상을 적용한다.

저명도 저채도의 드러나지 않는 색상을 활용하여 관람객이 시각적으로 편안한 느낌을 들도록 한다.

원색 위주의 자극적인 색상을 지양하고 눈의 피로를 감소하고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색상을 사용한다.

경고, 주의 등에는 진출색(적색, 황색) 등의 원색을 사용할 수 있으나 가급적 최소화한다.

2~3가지 색상 이내 최소 색을 사용하여 현란하거나 화려하지 않도록 한다.

안내판의 기본적인 색상은 동일하게 적용하여 디자인의 통일성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안내판의 재질이 다를 경우에는 색상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글자색은 바탕색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며, 가독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재료

대상 문화재의 유형, 특성, 주변 경관에 가장 어울리는 재질을 사용한다.

기존의 반사성이 강한 스틸 위주 재질을 지양하고 다양한 소재를 사용할 수 있다.

가급적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하며, 인공소재 사용할 경우 자연소재에 가까운 느낌으로 표면을 마감을 한다.

해당 문화재 안의 안내판은 같은 재질을 사용하되,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안내판은 재질을 달리할 수 있다.

기타

문화재 안내에 관한 시설물은 문화재청에서 발간한 「문화재안내판 가이드라인 및 개선 사례집」의 기준에 따라 디자인한다.

관할 지자체의 로고나, 후원기업과 관련된 상징 그림 또는 문구는 삽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삽입해야 할 경우에는 안내판의 정면 오른쪽 아래 혹은 옆면의 적정 위치에 작게 표기하여 안내정보의 습득이나 안내판의 전체적인 디자인 정리배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해당 문화재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정보무늬(QR코드)를 부착할 수 있되, 수록되는 정보는 해당 문화재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정보는 제외하고 해당 문화재와 관련 있는 내용으로 한다.

- 위치는 안내판 우측 상단 적절한 곳에 부착한다.
- 크기는 가능한 한 최소한의 규모로 제작한다.
- 재질 및 색상은 안내판과 조화되어 도드라지지 않도록 한다.

시설물의 규모를 고려하여 크기가 적절한 서체로 계획하며 문자표기는 한 가지 색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해설안내판에는 음성안내장치 설치를 권장한다.





문화재 주변 시설물 공공디자인 점검표 <안내판>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별표3]

배치	문화재와 연계하여 배치할 때에는 안내시설이 돌출되지 않도록 배치하되 휠체어·보행 보조기기·유모차 사용자 등 다양한 이용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는가?	해당여부 <input type="checkbox"/>	적용여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등 다양한 이용자의 눈높이와 시선을 고려하여 설치하였는가?	해당여부 <input type="checkbox"/>	적용여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문화재와 중첩되거나 조망을 훼손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였는가?	해당여부 <input type="checkbox"/>	적용여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안내시설을 통합 디자인하여 정리된 경관을 연출하였는가?	해당여부 <input type="checkbox"/>	적용여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안내판은 빛반사, 눈부심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였는가?	해당여부 <input type="checkbox"/>	적용여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규모	문화재를 압도하지 않도록 적절한 규모로 연출하였는가?	해당여부 <input type="checkbox"/>	적용여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이용자 조망을 고려하여 적절한 높이 및 규모를 설정하였는가?	해당여부 <input type="checkbox"/>	적용여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형태	사인물 간의 공통된 디자인을 공유하여 형태가 통일되도록 하였는가?	해당여부 <input type="checkbox"/>	적용여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장식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디자인 요소를 배제하였는가?	해당여부 <input type="checkbox"/>	적용여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인간체격기준척도 및 이용자 조망을 고려하여 디자인하였는가?	해당여부 <input type="checkbox"/>	적용여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재료	문화재와 인접한 안내시설은 단일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해당여부 <input type="checkbox"/>	적용여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고광택 금속재의 노출을 지양하고 도장 또는 표면 처리를 하였는가?	해당여부 <input type="checkbox"/>	적용여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배치	자연 소재에 가까운 재료를 사용하여 문화재와 조화롭게 연출하였는가?	해당여부 <input type="checkbox"/>	적용여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사인시설물은 사용하는 색의 수를 제한하고 원색 사용의 비중을 최소화하였는가?	해당여부 <input type="checkbox"/>	적용여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색채	그림문자(픽토그램)를 사용하여 인지성을 높이며 복잡하지 않은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해당여부 <input type="checkbox"/>	적용여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글자색은 바탕색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며, 글자색과 바탕색의 명도, 채도, 색상 등을 고려하여 가독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	해당여부 <input type="checkbox"/>	적용여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문화재 안내에 관한 사인시설은 문화재청에서 발간한 '문화재 안내판 가이드라인 및 개선 사례집'의 기준을 준수하여 디자인하였는가?	해당여부 <input type="checkbox"/>	적용여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完州威鳳山城

This large stone fortress located on Wibo Island was built by King Sejo in 1468-1470 during the 1675 and 1682 and was renovated in 1932 after a fire. The site was used as a conference, and its wells measure 1.8-2.2m in diameter. The walls are 1.2-2.2m thick. Fortresses were usually built for the military, but Wibongsangseong Fortress had been a place for the portrait of King Taego (r. 1394-1407) and the spirit of Joseon dynasty (1392-1910), and the spirit royal family clan, to be brought in to case of emergency. In addition, the Shrine (Historic Site No. 339) in Jeonju, Insadok Shrine, and other facilities were built in case of emergency. When Jeonju was captured during the Donghak Uprising, the portrait and the spirit tablet were going to be burned here. But the buildings inside were found to be situated at the top of the mountain. Most of the artifacts, wells, parapets, and according to historical records, there were eight remains of three of them are extant. The western part of the fortress has two guardhouses, 13 guard pavilions, two command posts, and enemy movements, one drainage ditch built for flood prevention, and two wells.



사적 제471호
동 8년 사이에 쌓았고 순조 8년에 고쳐
으로 총하는 약 8.6km, 높이는 1.8-2.6m에
위에 만들어진 군사 시설이다. 그러나
주 경기관에 모신 태조 이성계의
위패를 옮겨서 보호하라는 목적도 있었다.
물었으며 이외에도 위령사, 내성장, 장대
다.
의자 태조 어진과 위패를 이곳에 모셔 왔다.
과 위패를 행궁에 모시기에는 마땅치 않아
한다.
고 성벽과 여장, 총안 등이 잘 보존되어
곳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전주로 연결되는
로도 알려진 6곳, 포루지 13곳, 적의
두 곳을 비롯해 성 밖으로 물을 빼기 위한
되었다.

보통(평화) 따위에 들어 올린 구멍
의단 포
고하게 만든 시설물이 있던 곳



Historic site No. 471

ongsan Mountain was built between
8, it measures around 8.6 km in cir-
m in height.
purpose of preparing against (un)s-
other special purpose. It was built as
02-1398), the founding king of the
tablet of Yi Han, the founder of the
(an emergency from Gyeongjeon
le the fortress, a temporary palace,
a of such an event.
phak Peasant Revolution in 1994,
be moved to this fortress, but the
not suitable, so the portrait and the
on Hall of Wibongs Temple.
braures are well preserved. Ac-
ually four fortress gates, and the
gate leading toward Jongsu is in
are the remnants of six secret en-
ents that were built high to observe
water to flow out of the fortress.

III. 특별 기고

문화재 안내문의 존재 의미

이광표(서원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특별기고

문화재 안내문의 존재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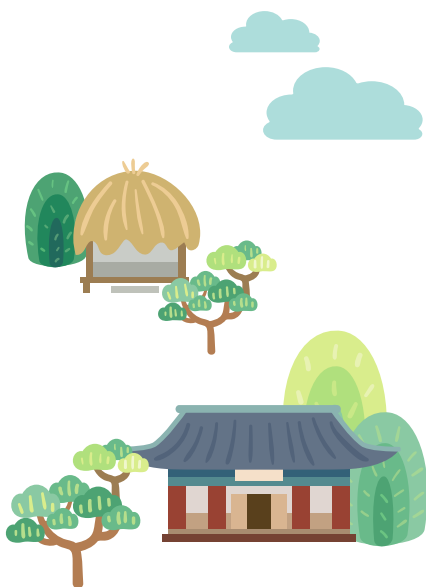
이광표(서원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1. 어떻게 볼 것인가

문화재가 있는 곳엔 늘 문화재 안내문이 있다. 야외의 고궁, 산속 사찰이나 유적지에도 있고 박물관 미술관의 전시실에도 문화재를 설명하는 안내문이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미술관의 홈페이지나 홍보책자 등에도 안내문이 있다. 그런데 이런 문화재 안내문을 두고 사람들은 대체로 어렵다고 한다. 사실, 문화재 안내문이 어렵다는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좀 더 쉽고 좀 더 생동감 있게 작성하고 그래서 읽는 이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가 예전부터 있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화재 안내문을 쉽게 쓴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수백 년~수천 년 전의 환경에서 생성된 문화재를, 오랜 세월과 복잡한 의미 등이 얹혀 있는 문화재를 몇 백 자로 간단하고도 쉽게 설명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난해한 작업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알기 쉽고 명료하게,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안내문을 읽고 싶어 한다.

이에 부응하여 문화재청은 2019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문화재 안내문안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무적인 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문화재 안내문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의미 있게 개선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관점과 철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우선, 문화재 안내문 관련해 이런 질문들을 해보자.

“우리 시대, 문화재의 어떤 속성이나 특징을 국민
에게 전달할 것인가.”

“문화재의 어떤 측면에 주목해야 할 것인가.”

“국민은 어떤 정보와 내용을 원하고 있는가.”

“국민에게 어떤 내용과 정보를 선택해 전달하는 것
이 더욱 효과적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결국 문화재를 어떻게 바라볼 것
인지, 문화재 안내 문안을 작성하는데 어떤 관점을
견지해야 하는지의 문제로 이어진다. 이 대목이 문
화재 안내문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한다.



2. 수용자 관점과 생애 기반 스토리텔링

문화재 안내문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
이 있다. 이른바 6하 원칙 같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6하 원칙만으로는 딱딱하고 지
루할 수 있다. 읽는 이들은 안내문에서 그 이상의 감
동과 스토리를 원한다. 6하 원칙에서 답아 낼 수 없
는, 그 이상의 얘기를 찾아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시대의 관심사를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다
시 말하면 시대의 관점이다.

문화재를 바라보는 관점(혹은 관심사)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다. 문화재 전반에 대한 관점도 변하
고 특정 문화재 하나하나에 대한 생각도 변한다. 따
라서 우리 시대에 이 문화재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
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문화재에 대한 우
리 시대의 관심은 50년 전의 관심사와는 분명 다를
것이다. 이 시대의 트렌드가 존재할 것이고 그것을
최대한 찾아내 안내문안에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
고 본다.

이것은 곧 수용자(소비자)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
다. 수용자(소비자)들이 문화재를 통해 무엇을 얻고
싶어하는지를 먼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선 특정 개별 문화재에 관한 정보,
역사, 스토리, 주변 환경의 변화 등에 관해 정확한 지
식과 깊이 있는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문화재
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문화재 향유의 목적에 맞게
안내문을 작성할 수 없다. 특히 수용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 수용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에 큰 관심을 갖고 이를 안내문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예를 들어 보자.

국보 서울 원각사지 10층석탑

- 유리 보호각은 언제 왜 세운 것인가.

국보 익산 미륵사지 석탑

- 해체 수리 복원 과정은 어떠했는가.
- 선화공주 관련 내용은 어디까지가 사실인가.

국보 원주 법천사 지광국사탑

- 일제강점기 때 어떻게 수난을 당했는지.
- 보수복원 과정과 원위치 이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물 창녕 영산 석빙고

- 그 옛날에 얼음을 어떻게 보관할 수 있었을까.
- 얼음을 어떻게 채취했으며 저온 유지의 비밀은 무엇인지.

사적 강화 부근리 지석묘

- 우리가 고인들의 왕국이라는데 대체 어느 정도 규모인가.
- 청동기인들은 저 무거운 돌로 어떻게 무덤을 만들었을까.

사적 서울 삼전도비

- 치욕의 문화재가 왜 석촌동 주택가에 있는 걸까.

국보 보은 법주사 쌍사자 석등

- 석등에는 왜 사자가 등장하는 걸까.

문화재 자체의 제작시기(생성시기), 제작자, 재료, 장르적 특성, 미학 등도 물론 중요하다. 이런 기본 내용이 안내문에서 빠질 수는 없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특정 문화재에 관한 궁금증이나 호기심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다면 수용자로서는 다소 아쉽고 허전할 것이다. 그동안 문화재 안내문이 딱딱하고 지루하고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렇기에, 제한된 분량이지만 수용자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앞서 말한 점들을 안내문에 제대로 구현하려면 이 시대의 트렌드, 수용자들의 관심 사항에 기초한 접근이 필요하다. 개별 문화재가 지금까지 이어져온 다채로운 일생을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이 대목에서 ‘문화재의 일생’을 특히 더 강조하고 싶다. 개별 문화재의 생애에 담겨 있는 여러 요소들의 의미와 가치를 판단해 안내문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를 두고 ‘생애사적 스토리텔링’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다.

장소적 특수성, 장소와의 연계성이 하나의 예라고 본다. 장소 이동의 측면(이동 약탈 환수)에서 본 생애사인 셈이다. 또 다른 예로는 살아온 내력을 들 수 있다. 여기에는 훼손, 수리, 소장자(소유자)의 변화와 이동, 수난사 등이 해당된다. 이처럼 문화재 각각의 생애에 주목한다면 안내문은 더욱 생동감 넘치고 흥미로워지지 않을까. 이른바, 스토리텔링 안내문이라 할 수 있다. 단순 정보 그 이상의 스토리를 담아낸 안내문, 두드러진 특성이나 내력을 담아낸 안내문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들을 다른 식으로 요약하면 “읽고 나서 궁금증이 최대한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과 통할 것이다.

3. 정보를 넘어 감동까지

정보를 넘어 스토리텔링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고민을 던져준다. “그렇다면 문화재 안내문의 궁극적인 목적과 효용은 무엇인지.” 여러 측면이 있겠지만, 정보 그 이상의 감동이라고 말하고 싶다. 안내문을 읽은 사람들이 특정 문화재의 숨겨진 매력을 느낄 수 있고 나아가 그 문화재로부터 감동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문화재가 이렇게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구나, 우리에게 이런 수난의 역사가 담겨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를 잘 보존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말이다.

물론, 안내문을 통해 감동을 준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고 불가능하지도 않다. 특정 문화재를 좀 더 탐구하고 특정 문화재와 좀 더 끈끈한 일체감을 형성한다면, 이런 분위기의 안내문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문화재란 무엇인가, 우리 시대에 문화재는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이것을 안내문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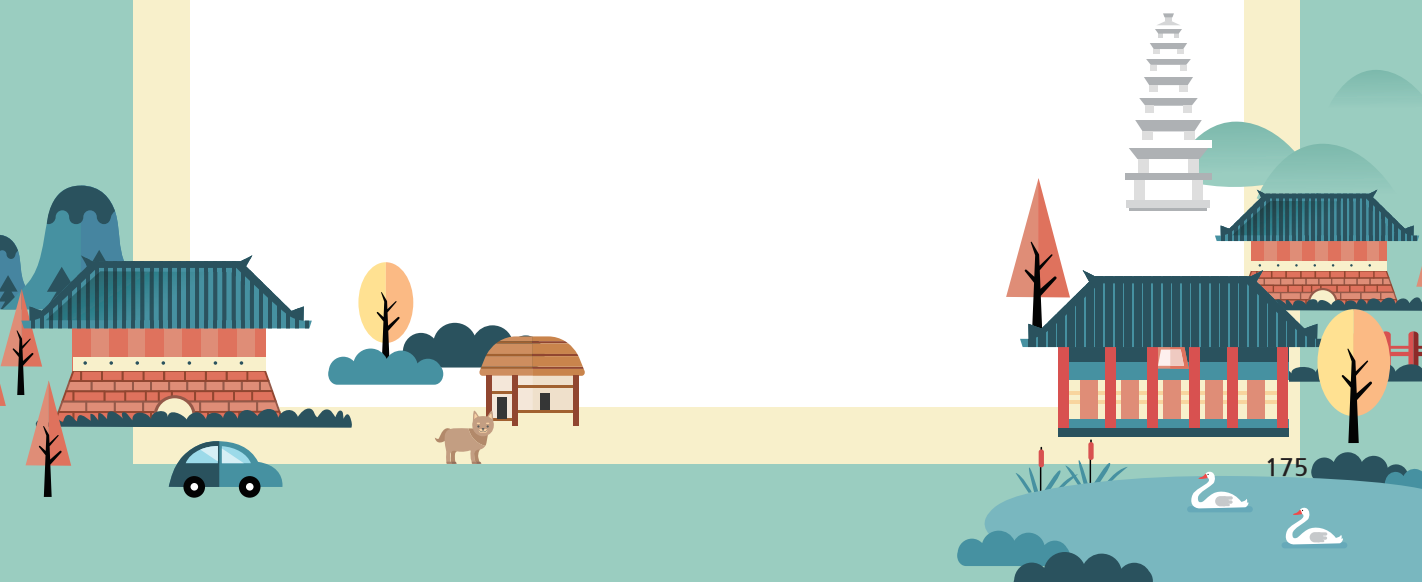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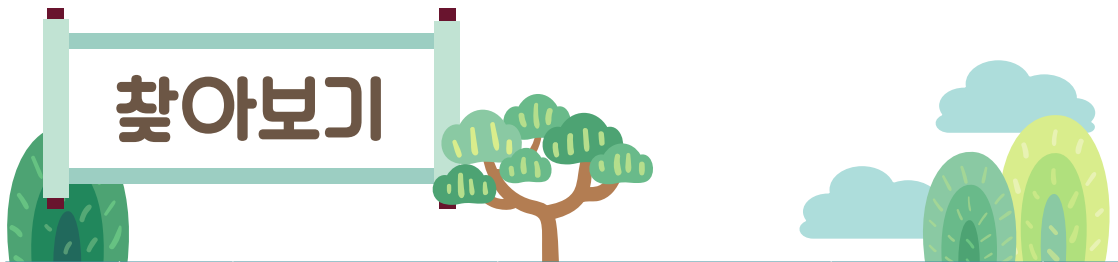


광주향교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



IV. 찾아보기





광역시	시군구	종목번호	문화재명	분류	페이지
서울 특별시	종로구	국가등록문화재	서울앨버트 테일러 가옥(딜쿠샤)	근대문화재-근대건축	110
	서대문구	사적	서울 독립문	근대문화재-근대건축	112
부산 광역시	서구	국가등록문화재	부산 구 남선전기 사옥	근대문화재-근대건축	114
	동구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부산 수정동 일본식 가옥	근대문화재-근대건축	116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등록문화재	인천 세관 구 창고와 부속동	근대문화재-근대건축	118
	계양구	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	육은지	건축문화재-주거시설	32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 기념물	범세동 선생 묘	사적·묘역	54
	남구	보물	(전)광주 성거사지 오층석탑	불교문화재-탑	68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구 대전형무소 망루	근대문화재-근대시설	120
		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삼매당	건축문화재-고택	18
		대전광역시 시도기념물	흑석동산성	사적·관방유적	38
경기도	고양시	사적	고양 벽제관지	사적·유허지	52
		국가무형문화재	불화장	무형문화재	106
	양평군	경기도 문화재자료	운계서원	건축문화재-향교·서원	14
	하남시	보물	하남 동사지 오층석탑	불교문화재-탑·부도	66
강원도	속초시	강원도 문화재자료	속초매곡오윤환선생생가	건축문화재-고택	20
	화천군	보물	화천 계성리 석등	불교문화재-기타	82
		국가등록문화재	화천 꺼먹다리	근대문화재-근대시설	122
충청북도	제천시	명승	제천 의림지와 제림	자연문화재-명승류	96
	청주시	국보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불교문화재-기타	86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청주 것대산 봉수	사적·관방유적	40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청주 백족사 삼층석탑	불교문화재-탑	70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청주 백석정	건축문화재-누·정	28
	충주시	충청북도 기념물	충주 대림산 봉수	사적·관방유적	42
		충청북도 기념물	충주 칠금동 제철유적	사적·선사유적, 발굴터	48
충청남도	논산시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백파 이상 영당 및 승무재	건축문화재-사묘제실	30
	부여군	국가무형문화재	은산별신제	무형문화재	104
	부여군 · 청양군	천연기념물	부여·청양 지천 미호종개 서식지	자연문화재-자연 생태	100



광역시	시군구	종목번호	문화재명	분류	페이지
전라북도	고창군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서산산성	사적·관방유적	43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암치리 선각석불좌상	불교문화재-불상	60
		보물	고창 선운사 참담암 석조지장보살좌상	불교문화재-불상	62
		보물	고창 선운사 만세루	불교문화재-불교건축	74
		전라북도 민속문화재	김정희 고가	건축문화재-고택	22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취석정	건축문화재-누·정	26
		천연기념물	고창 문수사 단풍나무 숲	자연문화재-식물류	90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김기서 강학당	건축문화재-향교·서원	16
	무주군	전라북도 기념물	마산동굴	자연문화재-화석지질류	92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북고사 신중탱화	불교문화재-불화	72
	완주군	사적	완주 위봉산성	사적·관방유적	44
	전주시	보물	전주 풍패지관	건축문화재-관아건축	10
		사적	전주 남고산성	사적·관방유적	46
	진안군	보물	성석린 고신 왕지	기타·동산문화재	128
		전라북도 기념물	마이산탐	사적·탐	56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남도 민속문화재	나주 김효병 가옥	건축문화재-고택	24
경상북도	경주시	보물	경주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	불교문화재-불상	64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분황사 석정	불교문화재-기타	84
		사적	경주 감은사지	불교문화재-절터	78
		사적	경주 황룡사지	불교문화재-절터	80
	안동시	사적	안동 봉황사 대웅전	불교문화재-불교건축	76
경상남도	고성군	천연기념물	고성 덕명리 공룡과 새발자국화석 산지	자연문화재-화석지질류	94
	김해시	경상남도 기념물	김해 장군차 서식지	자연문화재-자연 생태	102
		경상남도 기념물	김해객사 후원지	건축문화재-관아건축	12
	남해군	명승	남해 지족 해협 죽방렴	자연문화재-명승류	98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남해 척화비	건축문화재-비석	34
	창원시	사적	창원 성산 패총	사적·선사유적·발굴터	50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발상지	근대문화재-근대사건	124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탕자나무 천연기념물



2021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개선사례집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처	문화재청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전화	042-481-4744, 4742
홈페이지	http://www.cha.go.kr
기획 및 편집	문화재청 활용정책과, (사)한국문화유산활용단체연합회
디자인/제작	레드-컴

발간등록번호 11-1550000-002093-01
ISBN 978-89-299-2375-4 93600

저작권자 © 문화재청

이 책의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내용의 일부나 전부를 인용, 발췌하는 것을 금합니다.